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4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8.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공동연구자 : 서우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 최보연(서울교육대학교 교육연극연구소 상임연구원)
공동연구자 : 전민정(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연구보조원 : 최윤희(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2.1. 연구 내용	2
2.2. 연구 방법	3
II.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4
1.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역사	4
1.1.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시작	4
1.2. 문예진흥기금 규모 확대 및 문화환경 기초 조성	4
1.3. 기업 참여와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5
1.4. 지원기관 다원화와 지원방식의 변화	5
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구조와 변화	7
2.1. 사업 영역 변화	7
2.2. 사업 재원 변화	20
2.3. 사업추진체계 변화	24
2.4. 종합 분석	29
3. 성과와 과제	35
3.1. 성과	35
3.2. 과제	37
4. 해외 사례	39
4.1.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39
4.2. 캐나다 예술위원회 (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47
4.3. 호주 예술위원회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55
4.4. 해외사례 시사점	63

Ⅲ. 문예진흥기금 사업 현황 및 실태	66
1.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구조 및 내용 분석	66
1.1.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구조	66
1.2. 2014년 문예진흥기금 채원 구조	84
1.3.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 체계	88
1.4. 분석 및 시사점	91
2. 2014년 타 기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구조 및 내용 분석	93
2.1. 예술경영지원센터	94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7
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16
2.4. 서울문화재단	122
3. 문예진흥기금 사업 내부 사업간, 외부 기관과의 유사사업 분석	130
3.1. 내부 사업간 유사성 분석	130
3.2. 외부 기관과의 유사사업 분석	144
3.3. 시사점	153
Ⅳ. 문예진흥기금 사업 평가 및 지원 수요 분석	155
1. 조사 개요	155
2. 조사 결과(설문 및 FGI)	157
3. 시사점	184
Ⅴ. 문예진흥기금 사업 종합 진단 및 개선 방안	186
1. 종합 진단	186
1.1. 지원 목적과 방향	187
1.2. 지원 내용과 방식	188
1.3. 추진 체계 및 성과	193
2. 개선 방안	194
2.1. 기금지원사업 위상 및 내용 조정	194
2.2. 위원회 역할과 기금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195

2.3. 수월성 중심의 지원 강화	196
2.4. 기관 목적에 따른 사업의 유사성 평가	196
2.5. 지원 일몰제 도입	197
2.6. 기금사업 평가 방식의 전환	198

참고문헌

표차례

<표 II-1> 문예진흥5개년계획 기간(1974-1978)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세부지원 내역 및 비중	8
<표 II-2> 1979년도 기준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영역 및 세부내역	9
<표 II-3>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분야별 세부지원현황	10
<표 II-4>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내역 및 사업영역별 비중	11
<표 II-5> 198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 지원 내역	12
<표 II-6> 1990년대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 내역 및 비중	12
<표 II-7> 2000-2005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주요내역 및 비중	14
<표 II-8> 2000-2005년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내역	16
<표 II-9> 2006-2014년 문예진흥기금 성과목표별 사업영역의 변화	17
<표 II-10> 2006-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세부내역 및 예산	17
<표 II-11> 1973-2014년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조성내역	21
<표 II-12> 2004-2014년 사업비 기준, 문예진흥기금사업 및 복권기금사업 예산 내역	23
<표 II-13>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예산변동 내역	30
<표 II-14> 2011-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재원구조	32
<표 II-15>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 전략목표 2010-2010	42
<표 II-16> ACE 예술지원사업 사업영역 및 구조(2013/2014년 기준)	44
<표 II-17>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 재원구조 및 규모(2013/2014년 기준)	46
<표 II-18> 캐나다 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정책의 근본가치	49
<표 II-19>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5개 핵심전략	50
<표 II-20> 2013/2014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예술보조금사업 지출규모	53
<표 II-21> 2013/2014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예술지원금(Funding) 전체 규모	54
<표 II-22>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재원구조 및 규모	54
<표 II-23> 호주 예술위원회(ACA) 2014-2019년 5개년 계획, 4대 전략목표	58
<표 II-24> 2013/2014년도 호주예술위원회(ACA) 예술지원사업 영역분류	59
<표 II-25> 호주예술위원회(ACA) 사업영역별 사업비 비중변화 (2009-2014)	61

<표 II-26> 호주 예술위원회(ACA) 재원구조 및 규모	62
<표 II-27> 잉글랜드-캐나다-호주 예술위원회 사업영역, 재원구성 및 사업추진체계 비교도표	65
<표 III-1> 문예진흥기금 분야별 사업비 비중(2013-2015)	67
<표 III-2> 2014년 예술창작 지원 사업	68
<표 III-3> 2014년 문학창작 지원사업 주요내용	68
<표 III-4> 2014년 시각예술창작 지원사업 주요내용	69
<표 III-5> 2014년 공연예술창작 지원사업 주요내용	71
<표 III-6> 2014년 ‘예술인력육성’ 사업내용	73
<표 III-7> 2014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 대륙별 선정현황	74
<표 III-8> 2014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 분야별 지원결정현황	74
<표 III-9> 2014년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내용	75
<표 III-10> 2014년 ‘생활속예술활성화’ 사업내용	76
<표 III-11>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및 사랑티켓 지역주관처 현황	78
<표 III-12> 2014년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내용	79
<표 III-13> 2014년 17개 광역시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선정 결과	80
<표 III-14> 2014년 17개 광역시도 문예진흥기금 배분(안)	81
<표 III-15> 2014년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내용	82
<표 III-16>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예산·기금	84
<표 III-17>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84
<표 III-18>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및 지원예산 규모	85
<표 III-19> 기금-국고 사업 이관 현황	86
<표 III-20> 2013년 문예진흥기금으로 이관된 사업	87
<표 III-21>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매칭비율	87
<표 III-22> 문화예술위원회 직접 수행사업 추진절차	88
<표 III-23> ‘공연예술예술창작지원’ 주관처 지정사업 추진절차	89
<표 III-24>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 기관별 역할체계	90
<표 III-25> 2014년 문예진흥기금 시행주체별 예산비율	91
<표 III-26>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원별 예산현황	96
<표 III-27>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변화(2010-2015)	97

<표 III-28>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현장배치 지원사업 추진실적(2007-2014)	98
<표 III-29>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현장배치 지원사업과 문예진흥기금 사업 비교	100
<표 III-30>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추진실적(2007-2014)	100
<표 III-31>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와 문예진흥기금사업 비교	101
<표 III-32> ‘한류아카데미-탁’ 과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비교	102
<표 III-33>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 사업(2014)	103
<표 III-34> 예술경영지원센터 센터스테이지코리아(Center Stage Korea) 지원사업	104
<표 III-35> 예술경영지원센터 권역별 해외문화원 순회패키지 사업	105
<표 III-36>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구축과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 비교	106
<표 III-37> 해외홍보 통합 홍보물과 전통예술텍스트번역 비교	106
<표 III-38>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 비율	108
<표 III-3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사업 변화(2010-2015)	109
<표 III-40> 2015년 사회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 확산사업	109
<표 III-41>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와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 비교	110
<표 III-4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세부사업 및 예산(2014-2015)	111
<표 III-43> 미술관-박물관연계프로그램과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 비교	112
<표 III-44>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과 문예진흥기금 향유사업 비교	113
<표 III-45> 문화예술 명예교사 분야별 현황(2014)	114
<표 III-46> ‘문화예술 명예교사’ 와 ‘소외계층문화순회’ 비교	115
<표 III-47>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 운영현황	116
<표 III-4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예산(2013-2015)	117
<표 III-49> 2014년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개요(최초 계획)	119
<표 III-50>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비교	122
<표 III-51> 서울문화재단 예산총괄표(2014-2015)	123
<표 III-52>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성화 예산(2014-2015)	124
<표 III-53>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별 지원사업 현황	124
<표 III-54> 서울문화재단 문화도시 생활예술활성화 예산(2014-2015)	125
<표 III-55>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사업과 ‘문학창작활동지원’ 비교	127
<표 III-56> ‘서울메세나지원’ 과 ‘기업과 예술의 만남’ 비교	130

<표 III-57> ‘문학창작활동지원’ 과 ‘차세대예술인력육성지원AYAF-문학’ 비교	131
<표 III-58>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과 ‘차세대예술인력육성지원AYAF-공연예술’ 비교	131
<표 III-59> 문예진흥기금 ‘예술창작역량강화’ 사업 지원분야	132
<표 III-60> 문예진흥기금 주요 보조사업자 시행사업	133
<표 III-61> 문예진흥기금 ‘인력파견형’ 사업	135
<표 III-62> 문예진흥기금 ‘인력파견형’ 사업 분류	136
<표 III-63> 문예진흥기금 ‘교육형’ 사업 분류	136
<표 III-64> 문예진흥기금 ‘교육형’ 사업 내용	137
<표 III-65>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분류	138
<표 III-66>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레지던스 프로그램 비교	138
<표 III-67> 문예진흥기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사랑티켓’ 사업비교	140
<표 III-68> 문예진흥기금 ‘소외계층문화순회’ 와 ‘방방곡곡문화공감’ 비교	141
<표 III-69> 2014년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과 시각예술행사지원 유사단체	142
<표 III-70> 2014년 분야별 주요 협회 유사수혜사업	142
<표 III-71> 시각예술창작지원분야 미술관 수혜 현황	143
<표 III-72> 2014년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유사지원 포기내역	145
<표 III-7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유사사업 비교	147
<표 III-74> 문예진흥기금 내부사업별-중앙기관별 유사사업	152
<표 IV-1> 조사대상의 특성	156
<표 IV-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58
<표 IV-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해당 분야 발전 기여도에 대한 인식	160
<표 IV-4>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 적은 사업 존재에 대한 인식	161
<표 IV-5>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타기관 지원 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	162
<표 IV-6>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타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4
<표 IV-7> 수혜의 실질적 혜택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165
<표 IV-8> 창작과 향유 지원의 비중에 대한 인식	167
<표 IV-9> 시각예술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68
<표 IV-10>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71

<표 IV-11> 국제교류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75
<표 IV-12> 예술인력육성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77
<표 IV-13> 문학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79
<표 IV-14> 공연예술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182

그림차례

[그림 II-1]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	7
[그림 II-2]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 구조	10
[그림 II-3] 1990년대 문예진흥기금사업 구조	13
[그림 II-4] 2000-2005년 시기,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	15
[그림 II-5] 2006-2013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예산점유율	18
[그림 II-6] 2006-2014년 창작지원, 향유지원, 환경조성의 변화추이	19
[그림 II-7] 1973-2003년 간 문예진흥기금 조성비율	21
[그림 II-8] 1973-2013년간 문화기금 적립금 누계현황	22
[그림 II-9] 2004-2014년 문예진흥기금 재원조성 분포도	22
[그림 II-10] 2004-2014년 문예진흥기금 VS 복권기금 사업예산 비중	24
[그림 II-11]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체계	24
[그림 II-12] 문화예술위원회 직접지원(공모사업) 사업추진절차 예시	25
[그림 II-13] 문화예술위원회 간접지원(보조사업자선정:비공모사업) 사업추진절차 예시	26
[그림 II-14] 문예진흥기금 간접지원(지역협력형) 사업추진체계	27
[그림 II-15] 2014년 문예진흥기금 간접지원(지방비매칭) 사업추진체계 예시	28
[그림 II-16]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비중변화추이(1973-2015)	31
[그림 II-17] 2011-2014년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비중변화	33
[그림 II-18] 영국(잉글랜드) 예술지원 체계	40
[그림 II-19]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미션 및 5개 전략목표: 인포그래픽 (2010-2020)	43
[그림 II-20]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 예술지원사업 사업추진체계	47
[그림 II-21] 캐나다 예술지원 체계	48
[그림 II-22] 캐나다 예술위원회(CCA)의 새로운 펀딩모델 6개 영역	51
[그림 II-23]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사업구조	51
[그림 II-24]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예술보조금사업(Grants Program) 사업추진체계	55
[그림 II-25] 호주 예술지원체계 (2015년 상반기 기준)	56

[그림 II-26] 호주 예술지원 체계 (2015년 하반기 이후)	57
[그림 II-27] 호주예술위원회(ACA) 사업영역별 예산변동 추이 (2009-2014)	60
[그림 II-28] 호주예술위원회(ACA) 예술지원사업 추진체계	63
[그림 III-1] 2014년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 추진체계	89
[그림 III-2] 사랑티켓사업 추진체계	90
[그림 III-3] 미술관연계-미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추진체계	111
[그림 III-4] 2014년 서울문화재단의 종합적인 예술지원 구성	126
[그림 IV-1] 해당분야 종사 기간	156
[그림 IV-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57
[그림 IV-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	159
[그림 IV-4]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지원 필요성 적은 사업 유무	160
[그림 IV-5]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타 기관 유사 사업 유무	162
[그림 IV-6]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타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필요성	163
[그림 IV-7] 수혜자 수보다 수혜의 실질적 혜택 강화 필요성	165
[그림 IV-8] 창작과 향유 지원의 비중에 대한 의견	166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설립되면서, 동년 7월부터 공연장, 전시장과 고적, 사적지 등 입장료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모집되기 시작한 문예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은 2015년 현재까지 41년여간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사업 첫 해인 1974년 8억 6,200만원에 불과하던 연간 사업비 규모는 40년이 지난 2014년 1,740억 4,300만 원으로 202배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예술전문인력들의 창작 활동에서부터 일반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지원을 제공해 왔음
-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오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음. 곧,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문화재단들과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 설립 등은 그동안 문화예술분야 지원에서 유일한 공공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되었던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위상에 변화를 초래하였음
- 다른 한편으로, 공공분야에 대한 성과평가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문화예술분야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필요성도 부각되었음.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는 2005년 기존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던 시기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실시되었음
- 이렇게 시작된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는 2015년 현재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국무총리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평가 등 중요한 평가로만 세 번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복권기금 평가 등 기타 평가를 포함하면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여 왔음

- 이와 같이 복수의 평가가 이루어지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가, 기관의 계량적 운영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재정사업 평가나 기관경영 평가와는 다른 특별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복 평가라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 평가와의 유사성, 평가결과의 활용도 등 차원에서 기존 평가 방식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대두됨
- 이러한 현실과 함께, 기존 평가가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개별 사업’의 적절성과 성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전체’를 조망하고 ‘종합적으로’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진단, 분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사업에 대한 평가가 단위 사업의 운영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관계로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이에 따른 지원사업 내용 및 방향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음
- 이러한 상황은 문예진흥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사업 운영방식과 같은 포괄적 분야에 대한 점검하는 검토 필요성과 함께 기존 평가 방식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제기함
- 이 연구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역사와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전과 달리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여러 공공지원기관이 활동하는 환경 속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 방향을 재설정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함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의 지원 사업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예진흥기금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사업 지원 방향을 새롭게 모색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지원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타당성 및 의미 분석
 - 기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분석

- 문예진흥기금 사업 구조 분석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 체계 및 내용 분석
 - 문화예술 지원의 공공재원 구조와 운영현황, 특징 분석
 - 문예진흥기금사업 구조 및 내용에 대한 역사적 분석

-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현황 및 실태 분석
 -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구조 및 내용 분석
 - 2014년 타 기관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구조 및 내용 분석
 - 문예진흥기금사업 내부사업간, 외부기관과의 유사사업 진단

- 문예진흥기금 사업 평가 및 수요 조사
 - 예술가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 지원 수혜 및 미수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심층면접조사(FGI)
 - 기 지원에 대한 평가 및 수요 파악

- 종합 진단 및 시사점 도출
 - 문예진흥기금 사업 적정성, 지원 필요성, 정책 타당성, 수요분석을 통한 사업구조 개선방향 제시
 - 정책적 타당성, 문예기금사업 분석 및 진단을 통한 중장기 발전방향 도출

2.2. 연구방법

- 문헌 분석: 기존에 생산된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 심층 면접(FGI) 조사
 - 총 18명 (예술인, 예술단체 관계자, 정책 담당자 등)
 - 지원사업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실효성 및 효과 분석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회의: 사업유형, 대상, 지원방식 등에 대한 비교 검토, 기금지원사업 평가,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자문

II.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1.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역사¹⁾

1.1.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시작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1972년 8월 14일 우리나라 문예진흥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2337호)이 제정됨으로써 지원의 계기가 마련되었음. 이 법에 근거하여 1973년 처음으로 문예진흥기금이 모금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1974년 처음으로 문예진흥기금에 의한 첫 지원사업이 실시됨
 - 당시의 기금사업은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주체성의 확립이 강조되고 있던 시대 상황에 따라 국학 연구, 전통예술 및 문화재 보호, 예술창조 활동에 대한 지원이 주류를 이룸
 - 1974년부터 시작된 ‘문예진흥5개년계획’ 기간 동안 총 485억 4,24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정부 예산이 78.3%,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한 민간자본이 21.7%를 차지하였고, 부문별로는 문화재·전통예능·국학 등 민족사관 정립 영역에 전체 사업비의 70.2%가 지출되었음

1.2. 문예진흥기금 규모 확대 및 문화환경 기초 조성

- 초기 공연장, 전시장과 고적, 사적지 등 입장료에 부가하는 방식으로 모집되기 시작한 문예진흥기금은 1980년대에 그 규모를 크게 확장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공익자금이라 불린 ‘방송발전기금’이 문예진흥기금 안으로 대규모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뿐만 아니라 국고 예산, 문예진흥기금과 더불어 공익자금(방송발전기금), 기업의 기부금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되게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재원(財源)이 크게 확충되었음
-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動力化)’라는 정책 기조아래 민족문화의 주체성 강화와 문화시설 확충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됨. 이에 따라 무형문화재 보존은 물론, 주요 문화재 보수정비 및 국학진흥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의 종합문예회관 건립과 문화시설 개·보수에 있어서도 큰 진전을 이룸
 - 종합문예회관 건립과 문화시설 개·보수에는 문예진흥기금 850억여원('84~'96, '97년부터 국고지원으로 일원화)이 투입되는 등 집중적 노력이 기울여짐.
 -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과 지방문화 육성이라는 주제 또한 이 시기에 크게 강조되었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문예진흥 40년 지원정책 연구(40년사)를 참조하여 재작성

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문예진흥기금 창설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예산 139억 2,500만원이 이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기도 하였음

1.3. 기업 참여와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 1990년대를 전후하여 대기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기업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1994년 4월 정부와의 협력 아래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현 한국메세나협회) 출범
- 1998년 IMF 재정위기로 인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원 인력의 35%가 감축(130 → 85명)되고 기구가 축소되는 등 지원사업을 위축시키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김영삼 정부 아래서 등장한 ‘문화복지’ 개념은 정부의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의 하나로 정착되는 계기가 됨
- 경제적 위기상황은 문화예술지원 분야에도 문화예술과 경제와의 연계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따라 문화산업 영역이 문화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되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됨. 이러한 맥락에서 문예진흥기금은 영화, 출판 등 문화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대규모로 지원함
 - 1977년부터 2001년까지 25년 동안 영화계에 1,643억원, 1998년 IMF 재정위기를 맞아 출판계에 200억원의 용자를 지원하는 등 문화산업 분야에 총 1,843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됨

1.4. 지원기관 다원화와 지원방식의 변화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분야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음. 사회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것과 함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공공지원도 크게 증가하였음
- 공공지원 규모의 증가는 한편으로 지원기관의 다원화와 다른 한편으로 지원 영역의 세분화에 영향을 받음.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1997년 7월 경기문화재단이 출범한 이래 기초문화재단이 경쟁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함. 그 결과 2014년 5월 현재, 13개의 광역문화재단과 46개의 기초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음
- 기존의 창작 지원과 향수 지원이라는 양분적 틀을 넘어 문화예술교육 부분이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매개’ 영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지원구조를 갖추었으며, 2006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을 통하여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영활동

지원 영역 또한 세분화되었음

- 이 시기에는 지역의 문화활동 및 문화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확대되어 1999년부터 지역배분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심의해 오던 소규모 지역성 사업 9개가 하나로 통합되어 해당 예산을 각 시·도에 배분하는 변화가 이루어짐.²⁾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방식도 크게 변화되었는데, 문예진흥원(문화예술위원회)은 2002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사업구조와 예산체제를 전면 개편함. 뿐만 아니라, 문예진흥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자체 심사평가(평가·감리)제도를 도입하고 환류 기능을 강화함
 - 기존의 장르별, 사업유형별 지원체계를 기금 사업의 4대 성과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14개 핵심역량사업으로 사업의 구조와 방식을 전면 개편
 - 특징은 예술창조활동에 대한 집중형 지원의 확대, 문화향수층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보급확산형 지원 추진, 문화예술계 지원 체감효과의 제고, 창조자와 향수자간 균형 발전 도모 등으로 나타남
- 이명박 정부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방향을 새롭게 조정하여, 지역협력형 사업의 확대와 함께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확대 등과 같은 문화예술분야 지원 방향을 제시
 - 기존의 지역배분형 사업을 2009년 확대 개편한 지역협력형 사업은 지역 매칭제도를 도입하여 지방 문화재정을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됨³⁾
- 기존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합의제 유형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한 것 또한 이 시기 임
 - 2005년 8월 26일 상임원장 독립체제였던 문예진흥원은 합의제 구조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됨.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적인 배분과 함께 기금 지원의 현장 대응성과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기능별·장르별 불균형의 해소, 예술창작환경 개선, 매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구조의 개편을 추진함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2003년 536억원에 이르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2003년 12월 말로 폐지된 것임. 대체재원으로 2004년부터 복권기

2)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사업 규모를 늘려 지역협력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개편됨

3) 비수도권에 대한 배분 비율을 점차 높였으며, 2014년부터는 지역의 자율성 확대 요구를 대폭 수용한 '지역문화특화사업'으로 사업 내용과 방식이 전면 개편함

금(연평균 409억 원 수준)이, 그리고 2010년부터는 경륜경정 수익금 중 일부(매년 250억 원 수준)가 전입되기 시작하여 문예진흥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고 있으나, 원금은 지속적으로 손실되어 2017년경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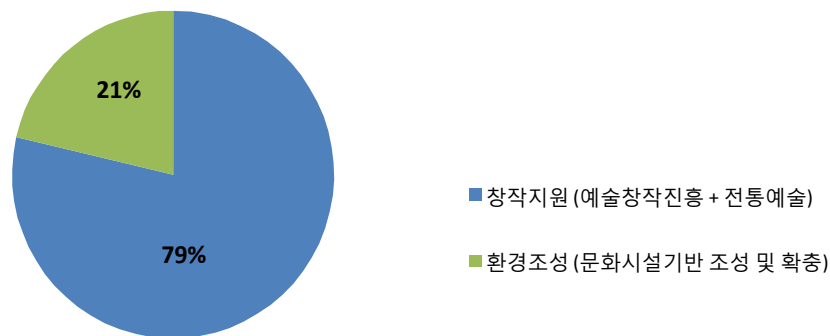
- 복권기금은 재원조성 방식의 역진성 때문에 취약계층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입금 전액을 문화나눔사업에 투자하게 됨. 그 결과 복권기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복지사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됨

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구조와 변화

2.1. 사업 영역 변화

2.1.1. ‘문예중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예술창작 중심 지원(1970년대)

-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추진된 <제1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은 민족문화창달과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정책기조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민족문화의 체계를 정립하고 민족의 위대성을 선양하는 예술창작을 중점지원”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문예중흥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었음.⁴⁾ 이를 바탕으로 70년대 사업영역은 창작지원과 환경조성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그림 II-1]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⁵⁾

- 문예중흥5개년계획 기간(1974-1978) 중에 추진된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영역별 지원내역과 비중을 살펴보면, 창작영역은 예술창작진흥(58.09%)과 전통예술계승 및 보존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pp.44-45

5)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p. 45에서 제시된 [표2-3] ‘문예중흥5개년 계획기간(1974-1978)중 분야별 진흥사업 투자실적 총괄’ 에서 제시된 사업내역 및 비중을 재구성하였음.

(20.59%) 영역에 총 78.68%의 지원이 이뤄졌으며, 문화시설기반조성 및 확충을 위한 여건조성으로는 21.32%가 지원되었음

〈표 II-1〉 문예진흥5개년계획 기간(1974-1978) 중,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세부지원내역 및 비중

(단위:천원)											
사업영역 대분류	사업성격	구분	1974	1975	1976	1977	1978	총계	비중 (%)	분야별 비중(%)	영역별 비중(%)
창작지원	예술창작진흥	문학지원	61,264	81,958	113,126	137,113	212,145	605,606	14.35	58.09	78.68
		미술지원	120,113	47,881	60,183	38,864	82,695	349,736	8.29		
		음악지원	60,492	70,338	72,668	39,912	115,936	359,346	8.51		
		연극지원	53,142	43,838	52,915	28,121	47,528	225,544	5.34		
		무용지원	19,870	23,394	20,668	19,800	13,583	97,315	2.31		
		영화지원	0	0	0	200,000	200,000	400,000	9.48		
		출판지원	119,584	74,869	70,500	73,514	75,768	414,235	9.81		
	전통예술계승 및 보존	국학개발	121,442	109,120	101,199	124,532	39,891	496,184	11.76	20.59	
		전통예술	60,336	47,514	38,705	24,878	66,725	238,158	5.64		
		문화재보호	2,000	27,003	45,000	17,600	43,089	134,692	3.19		
향유지원	-	-	0	0	0	0	0	0.00	0.00	0.00	
환경조성	문화시설기반 조성 및 확충	여건조성	96,886	155,607	134,825	267,093	245,342	899,753	21.32	21.32	21.32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총계			715,129	681,522	709,789	971,427	1,142,702	4,220,569	100.00	100.00	100.00

* 위의 수치는 문예진흥5개년계획 기간(1974-1978) 중의 분야별 진흥사업 투자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p. 45에서 제시된 [표2-3] '문예진흥5개년 계획기간(1974-1978)중 분야별 진흥사업 투자실적 총괄' 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6)

- 세부사업 별로 살펴보면, 예술분야 창작진흥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문화향수, 국제교류, 조사발간, 시설운영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각 장르별 지원분과 하위과제로 포함되어 산발적으로 지원되기도 하였으나,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전반적으로 예술창작과 환경조성 지원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아래 〈표 II-4〉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1979년도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에는 문예교양강좌실시, 중앙극단지방순회공연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향유지원 성격의 사업이 전혀 부재했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당시 이들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체사업비 대비 미비하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향유”에 관한 명확한 정책인식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음. 이는 1970년대 당시 아직까지 국내 문화예술창작 및 향유를 위한 전반적인 기반시설 구축이 총체적으로 미비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문예진흥을 위한 창작지원 및 이와 관련된 환경조성에 집중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6) 원문에서 제시된 표에는 몇 개의 수치오류가 있어 정정하였음. 원문에서는 해당 자료의 출처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79.12)로 밝히고 있음.

〈표 II-2〉 1979년도 기준,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영역 및 세부내역

(단위: 천원)

문예진흥을 위한 여건조성(2,447,088)	
문예단체활동지원(216,700)	지방문화원및문화원연합회지원, 예총운영지원, 뽕물립한국본부지원, 한국도서잡지문리위원회지원
문화예술행사지원(25,000)	문화예술행사(세미나, 심포지엄 등)지원, 문화의날행사개최, 문예교양강좌실시
문예진흥기반조성지원(342,000)	문예인해의연수지원, 예술장학기금운영및징학금지급, 문예관계조사·연구·발간사업, 문화예술자료관 설치운영
종합문예회관건립(1,863,378)	전시장(미술회관)관공, 공연장(연극회관)건립
전통문화계발 지원(217,070)	
국학지원(132,800)	고전자료조사연구지원, 국학연구발간지원, 한술단체연구지원
전통예능지원(54,200)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지원, 향토문화제행사및전통예능보존단체지원, 인간문화재공예작품전시지원
문화재보호지원(30,070)	한국미술5천년사정립연구지원, 박물관특설강좌지원, 고고학술지발간지원
예술진흥지원(607,100)	
문학지원(315,100)	문예지원고교지원및발간비지원, 우수문학작품집발간및구입지원, 민족문화대계(조선조시대편)발간, 어린이문학지원 아동용문예진흥문고발간, 문학상시상(반공·홍·아동문학상)
미술지원(68,200)	우수미술작품구입및각종전시지원, 민족기록화제작지원, 어린이미술지원, 미술전문지발간지원, 미술회관기획전개최
음악지원(99,000)	제4회대한민국음악제개최, 제3회대한민국작곡상시상, 창작및공연지원, 악보집발간지원, 국악연구지원
연극지원(77,000)	제3회대한민국연극제개최, 중앙극단지방순회공연및지방극단공연지원, 연극연구활동지원, 희곡집발간지원, 연극전문지발간지원
무용지원(47,800)	제1회대한민국무용제개최, 무용공연지원, 전통무용발굴기록보존, 무용지도자강습회지원, 무용전문지발간지원
대중문화향달(329,900)	영화진흥공사영화현상시설현대회지원(300,000), 우수도서출판및구입지원(21,600), 건전가요보급지원(8,300)
국제문화교류지원(165,650)	해외한국학연구기관에대한자료지원, 국학(한국문학)번역보급사업추진, 해외예술인초청지도, 국제회의및예술행사참가지원, 국제도서박람회참가지원
계 3,766,808	
이월사업(982,341)	문예회관건립, 고전자료개발(현대문화사대계발간)지원, 민족기록화제작및 우수미술작품구입지원, 건전가요제작보급지원, 악기구입용자지원

※ 자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년」(한국문화예술진흥원, '79.12)을 참고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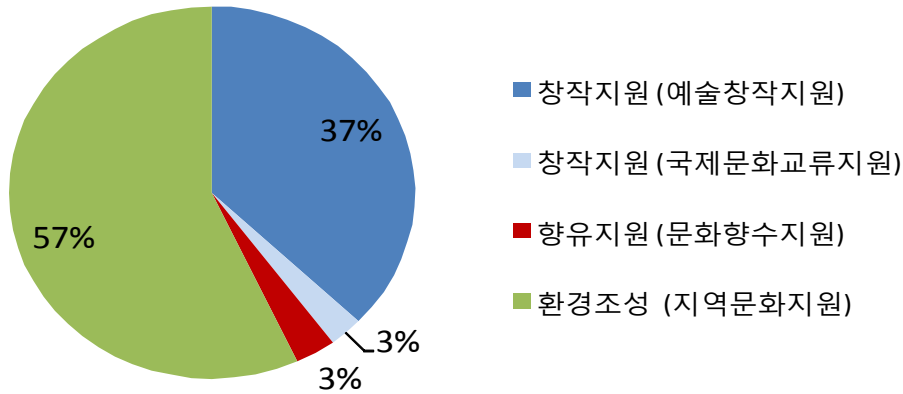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p.46. [표2-4] '1979년도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내역' 에서 재인용.

2.1.2.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환경 기반 조성(1980년대)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원금의 규모는 79년 지원액 기준 37억 6,680만원에서, 평균 262억 6,957만원으로 대략 6.9배 이상 큰 폭의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문예진흥원의 역할이 본격화된 시기라 할 수 있음⁷⁾
-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는 여전히 1970년대와 유사하게 창작지원과 환경조성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94-95)

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응집되고 있으나,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이 나타남



[그림 II-2]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 구조⁸⁾

<표 II-3>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분야별 세부지원현황

(단위: 천원, 건)

구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예술창작 지원	1,245,949 (352)	1,343,142 (394)	1,138,124 (454)	1,476,520 (399)	1,343,907 (394)	1,843,243 (394)	3,992,877 (390)	3,079,374 (245)	5,470,251 (325)	5,336,189 (383)	26,269,576 (3,668)
문화향수 지원	-	-	-	150	333,795	446,364	384,052	401,276	347,782	358,667	2,272,086
지역문화 지원	273,000 (146)	250,670 (148)	230,700 (169)	276,478 (189)	4,961,570 (216)	4,950,463 (230)	6,525,924 (237)	6,561,944 (246)	3,976,276 (252)	12,246,421 (95)	40,253,446 (1,928)
국제문화교류 지원	65,008	478,014	104,641	135,241	97,536	154,019	156,414	202,391	170,643	355,015	1,918,922
계	1,583,957 (498)	2,071,826 (542)	1,473,465 (623)	1,888,389 (588)	6,736,808 (610)	7,394,089 (624)	11,059,267 (627)	10,244,985 (491)	9,964,952 (577)	18,296,292 (478)	70,714,030 (5,596)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p.94. [표3-3]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분야별 지원현황' 재인용.

○ 첫째, “지역문화지원”이 주요사업영역으로 격상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지역문화지원에 있어 지원액의 60.9%가 지역문화시설 확충에 집중되었다는 점,⁹⁾ 그리고 그 외 사업들의 경우, 지역소재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지역별 행사 및 축제지원으로 구성되어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증흥을 위한 환경조성

8) 각 사업영역별 예산수치는 <표 II-3> 및 <표 II-4>을 참조.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130-131) [표 3-16] '1980년대 지역문화 진흥 지원사업 총괄' 참조할 것. 80년대 지역 문화진흥을 위해 지원된 총액은 402억 5,344만 6천원이며, '지역문화시설확충지원을 위해 투입된 지원액은 총 245억 550만원에 이룸. 이는 총액대비 60.9%에 해당하는 비중임.

사업성격과 지역소재 예술기관에 대한 창작지원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I-4〉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내역 및 사업영역별 비중¹⁰⁾

(단위: 천원)

사업영역 (대분류)	문예진흥기금 사업분류*	지원액	비중(%)
창작지원	예술창작지원	26,269,576	37.15
	국제문화교류지원	1,918,922	2.71
향유지원	문화향수지원	2,272,086	3.21
환경조성	지역문화지원	40,253,446	56.92
문예진흥기금사업 사업비 총계		70,714,030	100.00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p.94. [표3-3]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분야별 지원현황’ 에서 제시된 지원총액을 기준으로 재구성.

- 둘째, 향유적 측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인식이 세부사업 영역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임
 - 1983년 처음 시작된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개최 사업을 비롯하여, 공연예술순회활동 및 순회전시지원, 문예강좌지원, 청소년대상 문예활동 및 공연지원 등 향유지원(교육지원, 연구지원, 예술참여활동의 독려)이 시도되었음(아래 〈표 II-5〉 참조할 것)
 - 그러나, 이 시기의 문화향수에 대한 지원은 전체 문예진흥기금 사업총액 대비 3.21% 수준에 머물렀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전히 창작지원은 37.15%, 환경조성에 대한 지원은 56.92%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향유영역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조직화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10) 사업분류는 본문 내 <표 II-3>에서 제시된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분야별 지원현황에서의 사업분류를 따랐으며, 원문에서 제시된 지원총액을 기준으로 사업영역별 비중을 환산한 것임.

〈표 II-5〉 198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 지원내역

구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개최	150	473	1,510	800	1,940	2,676	2,922	7,549
공연예술순회활동및순회전시지원	-	-	-	16,193	30,000	93,330	170,666	139,523
문화예술사회교육활동지원	-	-	-	-	40,000	18,976	19,259	58,976
청소년 문학 지원	문예강좌지원	-	52,320	52,407	104,634	107,588	94,820	521,008
	문예활동및공연지원	-	168,150	196,656	125,515	156,217	105,000	803,538
	청소년연구지원	-	112,852	195,791	136,910	65,531	18,561	548,645
	소계	-	333,322	444,854	367,059	329,336	232,800	1,658,200
합계	150	333,795	446,364	384,052	401,276	347,782	358,667	2,272,086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126), [표 3-15] '1980년대 문화향수 지원사업 총괄' 재인용

2.1.3. 이분적 영역에서 다원적 영역으로 지원 확대(1990년대)

○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창작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그 영역이 다변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그러나 여전히 사업구조상으로 창작지원 및 환경조성이 기금사업의 절대적인 양 대축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향유지원이 조금씩 성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II-6〉 1990년대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 내역 및 비중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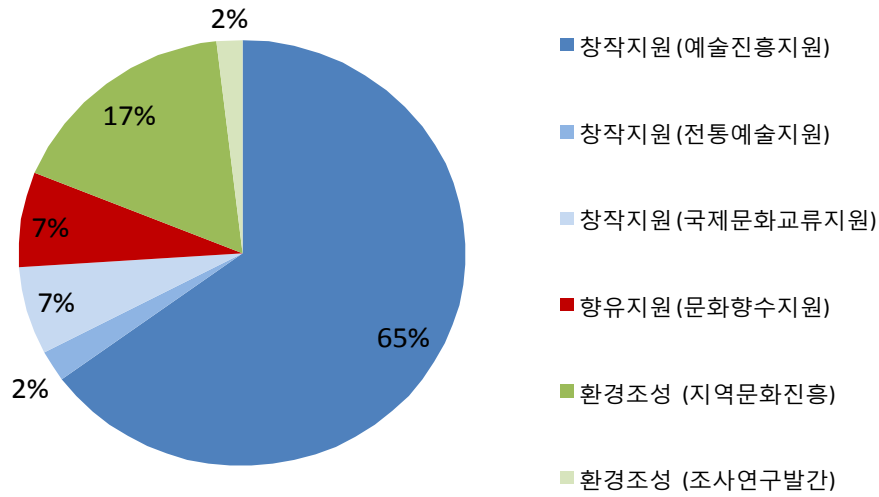
(단위: 천원, %)

사업영역 (대분류)	문예진흥기금 사업분류	지원액	사업별 비중 (%)	영역별 비중 (%)
창작지원	예술진흥지원 ¹²⁾	138,653,291	64.89	73.90
	전통예술지원	5,115,053	2.39	
	국제문화교류지원	14,141,500	6.62	
향유지원	문화향수지원	15,393,906	7.20	7.20
환경조성	지역문화진흥	36,405,325	17.04	18.89
	조사연구발간	3,962,288	1.85	
문예진흥기금 사업비총계		213,671,363	100.0	100.0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170-171)에서 서술·제시된 1990년대 지원총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환산한 것임. 위 수치중 '지역문화진흥' 사업의 경우 90년대 지원총액은 원문에 오류가 있어 수정하였음.

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에는 타 연대와 달리 1990년대의 문예진흥기금사업 사업비 총액 및 사업영역별 내역이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원문에서 서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치를 재구성하였음.

12) 1990년대 예술진흥지원에 투입된 사업비 총액 138,653,291,000원은 다음의 내역을 합산하여 나온 것임: 문학분야 4,287,410,000원, 미술분야 3,490,320,000원, 공연예술통합분야사업 5,327,320,000원, 전통예술분야 5,115,050,000원, 문화예술일반분야 116,453,250,000원. 이중 문화예술일반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은 전체 예술진흥지원사업분야에 있어 총 83.9%에 달함.



[그림 II-3] 199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

○ 창작지원 부문의 주요사업 분야는 예술진흥지원, 전통예술지원, 국제교류 지원으로 나타남.

- 창작지원(예술진흥지원)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1980년대까지 예술장르별 지원에 천착해왔던 것에 비해 “공연예술통합분야”라는 세부사업부문을 신설되어 음악, 연극, 무용분야에 걸친 창작활성화 및 기획공연 중심의 집중형 지원사업 비중이 늘어났음.
- 또한 “문화예술일반분야”의 신설을 통해 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의 해’ 행사지원 등 총 15개의 지원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지원하게 된, ‘정책성’ 사업들이 포함되어 지원규모가 큰 편이었음.¹³⁾
-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창작지원은 점유율은 총 73.90%에 달하게 되며, 창작지원 내에는 예술진흥분야 64.89%, 전통예술지원 2.39%, 국제문화교류지원 6.62%이 포함됨
- 창작지원의 폭발적인 증가는 상대적으로 환경조성 영역에서의 지원감소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이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문화시설 및 인프라 확충이 어느 정도 완결되었고,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지역별 문화시설 건립의 부담이 지자체로 이양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음

○ 향유지원의 경우, 1990년대를 통틀어 총 154억여원이 투입되어 지원총액 대비 7.2%를

1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196). <표 4-10> ‘1990년대 문화예술일반분야 주요지원사업 총괄’ 을 참조할 것. 문화예술일반 분야로 지원된 15개 사업 중 ‘영화진흥지원’에 대한 비중이 74.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170)는 그 이유를 문예진흥기금 모금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제시하고 있음.

차지함. 이는 1980년대의 3.21%에 비해 두 배 이상이 증감된 것임

- 그러나, 여전히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있어서 향유지원이 본격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고 할 수 있음
- 1990년대 향유지원과 관련하여, 예술진흥지원 하의 공연예술통합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관객개발지원(일명, 사랑티켓)”사업이 주목할 만함. 이는 향수사업으로 편제되어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극단의 수익증대와 더불어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예술향유 활동을 독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 사랑티켓 사업은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총 19억 810만 7천원이 지원되었음

2.1.4. 향유 영역의 확대(2000년대)

- 200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문예진흥기금 모금사업이 중단이 된 이후, 2004년부터 복권기금이 출연되기 시작함으로써 기존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2000년대 전반기 사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이 비로소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양 대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것에 있음. 이는 직접적으로는 2004년 복권기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부터임. 복권기금의 용도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기 보다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향유부문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음

〈표 II-7〉 2000-2005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주요내역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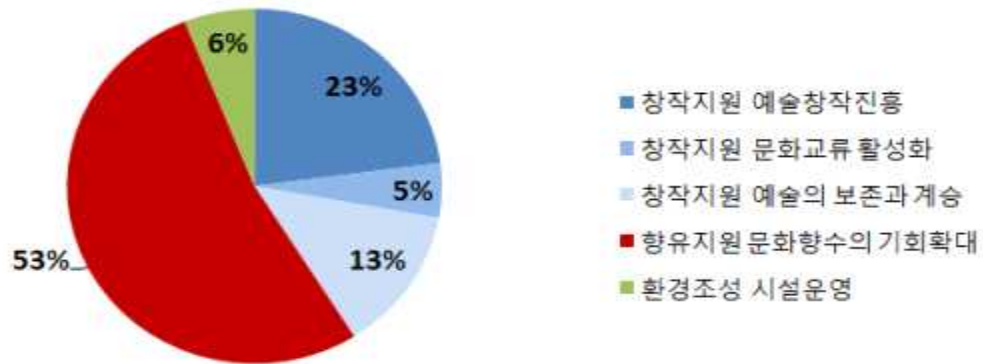
사업영역 (대분류)	문예진흥기금 사업분야	총계	비중(%)	사업영역별 지원소계	사업영역별 비중 (%)
창작지원	예술창작진흥 ¹⁴⁾	55,166,832	22.91	98,866,725	41.06
	문화교류활성화	11,968,498	4.97		
	예술의보존과계승	31,731,395	13.18		
향유지원	문화향수의기회확대 ¹⁵⁾	127,314,054	52.87	127,314,054	52.87
환경조성	시설운영	14,612,647	6.07	14,612,647	6.07
문예진흥기금사업비총계		240,793,426	100.00	240,793,426	100.0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로 흐르는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5장: 2000년대 문화의 세기

14) “예술창작진흥” 하에 추진된 총 5개의 사업은 다음과 같음: 창의적 예술지원, 창작공연활성화지원, 다원적 예술지원, 신진예술가지원, 예술창작기반조성.

15) “문화향수의 기회확대” 하에 추진된 5개 사업은 다음과 같음: 관객개발지원, 찾아가는 예술지원, 예술참여체험지원, 함께하는 문화복지지원, 지역문화활성화지원.

예술창의력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분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II-4] 2000-2005년 시기,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

- 창작지원의 경우, 세부사업영역이 예술활동의 창작진흥을 위해 더욱 세분화되고 다각화 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창작지원 하에, “예술창작진흥”, “문화교류활성화”, “예술의 보존과 계승”(이전까지의 전통예술지원성격) 등 3개 분야가 편제되었고, 해당시기 창작지원은 사업비대비 총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유지원의 경우는 “문화향수기회의 확대”라는 사업으로 단일하게 대변되는데, 해당시기 향유지원규모는 전체 사업비 대비 53%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창작지원보다 향유지원의 규모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그 이유는 첫째, 2004년을 기준으로 복권기금의 유입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지역문화활성화지원’이 “문화향수기회의 확대”라는 사업하에 편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문화활성화지원’ 사업은 <지역문예진흥사업지원>과 <지역문화활성화지원복권기금사업>등 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이중 후자인 <지역문화활성화지원 복권기금사업>의 경우는 2004년 복권기금 유입을 계기로 신설된 사업으로 지방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 문화의집 계층별 특별공연프로그램, 지방문화원 중심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민들의 문화향유기회확대를 도모하려는 사업들이 중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음

〈표 II-8〉 2000-2005년 지역문화활성화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3	2003	2004	2005	계
지역문예진흥 사업지원	3,810	3,810	3,810	3,810	3,815.7	3,817.5	22,873
지역문화활성화 지원복권기금사업	-	-	-	-	22,864	18,672	41,536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267), [표5-16] '지역문화활성화 지원 총괄(2000-2005)'을 수정, 재구성하였음.

- 환경조성지원의 경우, 예술창작인들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하에 추진된 것으로, 해당시기 전체 사업비대비 6%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설로는 예술극장, 마로니에 미술관, 예술자료관, 문화예술연수원 등이 있음
-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문예진흥기금의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시하는 성과목표를 토대로 사업단위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왔음.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2002-2005년 동안 추진되었던 4대성과목표가, 2005-2006년에는 5대 성과목표로 개편되면서, 창작지원 하에 추진되던 ‘예술의 보존과 계승’이 ‘문화예술매개활동 확대’로 편입, 변경되었고,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의 세부목표로 편제되었던 ‘지역문화활성화지원’이 ‘지역문화활성화’라는 독립적 단위의 성과목표로서 독립하였음
- 그러나 이후 2007년-2010년에는 8대전략목표로 확장되었다가, 2010-2012년에는 다시 5대 전략목표로 재편되었고, 2013년 이후 4대 전략목표로 재편됨으로써, 점차 단순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II-9〉와 같음
- 그러나, 2006년 이후,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은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응집, 강화되고 있다는 점임(아래 〈표 II-9〉 참조)

〈표 II-9〉 2006-2014년 문예진흥기금 성과목표별 사업영역의 변화

2002-2004	2005-2006	2007	2008	2009	2010-2012	2013 - 2015
예술창작진흥	예술창조역량강화	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가의 창작역량강화	예술가의 창작역량 강화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예술의 국제협력증진				
(시설운영)	문화예술매개활동확대 (시설운영)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문화예술 공간운영	
문화예술향수 기회확대 (지역문화활 성화지원)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예술의 생활화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지역문화활성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예술진흥
예술의 보존과 계승	문화예술매개활동 확대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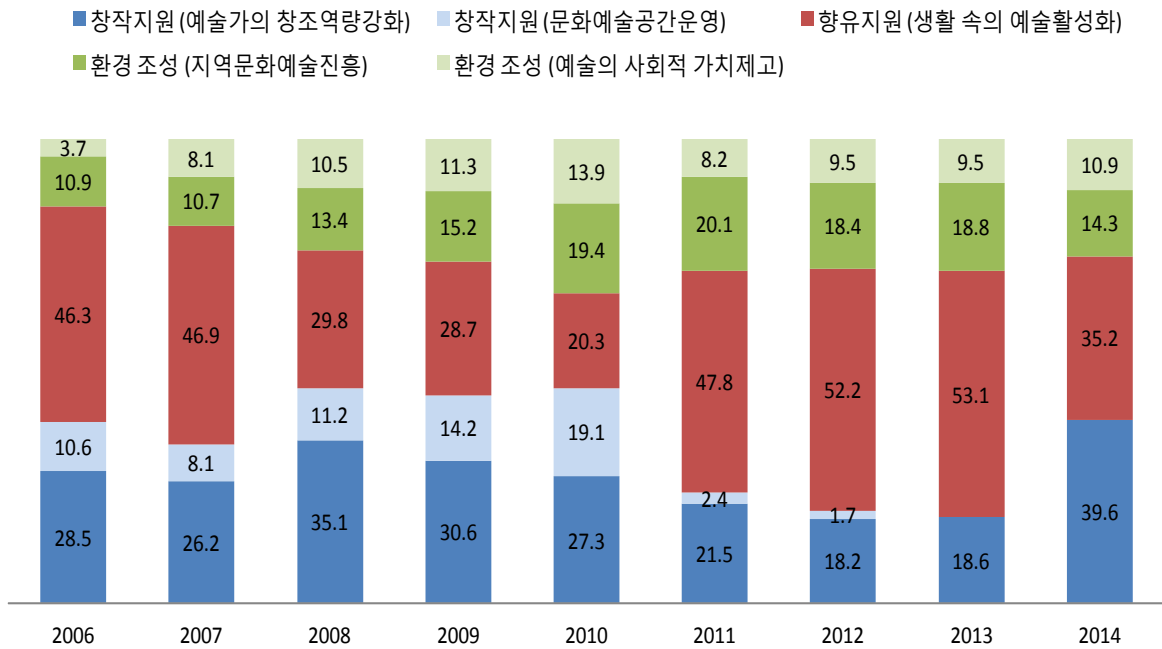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318), [표6-3] '문예진흥기금 사업체계 및 예산편제의 변화'를 수정, 재구성하였음.

〈표 II-10〉 2006-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세부내역 및 예산

대분류	세부영역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창작 지원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31,678	27,116	29,236	23,247	31,777	21,649	19,995	19,326	68,948
	문화예술 공간운영	11,816	8,443	9,355	10,763	22,301	2,365	1,822	1,632	-
향유 지원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51,505	48,627	24,800	21,800	23,700	48,000	57,400	58,121	61,300
환경 조성 지원	지역문화예 술진흥	12,097	11,090	11,148	11,598	22,650	20,250	20,250	20,560	24,820
	예술의사회 적가치제고	4,140	8,346	8,712	8,599	16,180	8,256	10,402	9,802	18,975
사업비 예산액 합계		111,236	103,622	83,251	76,007	116,608	100,520	109,869	109,441	174,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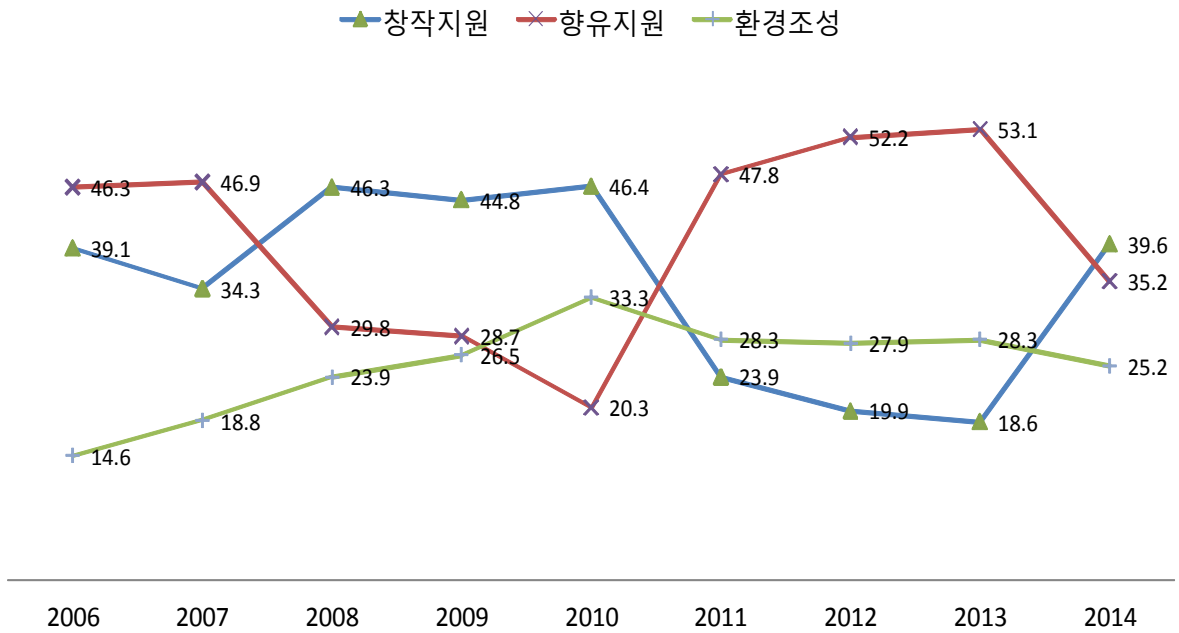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318), [표6-4] '문예진흥기금사업 예산추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중, 4.수입/지출계획 총괄표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은 4대 성과목표인 ①예술가의 창조역량강화, ②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③지역문화예술진흥, ④예술의 사회적 가치제고를 중심으로 세부사업 분야가 재편되었음. 각 사업분야의 연도별 총 사업비 대비 각 사업분야의 점유율을 환산하면 아래 [그림 II-5]와 같음



[그림 II-5] 2006-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예산점유율(%)

- [그림 II-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을 중심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응집되고 있음이 확인되나, 2008-2010년 3년간 다소 특이할 만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창작지원의 경우, 2006년 39.1%였으나 이후 2008-2010년 시기를 거치면서 46.4%까지 점유율이 성장하였다가 2010년-2013년 시기 최하 18.6%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향유지원의 경우는 창작지원과 반대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음. 2006년 기준 46.3%의 점유율이던 향유지원은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최저 20.3%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010-2013 시기 최고 53.1%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007-2010년 동안 향유지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복권기금 전입금이 급격히 줄어든 것과 상관관계가 있음. 해당시기 전체 사업비 예산이 위축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창작지원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II-6] 2006-2014년 창작지원, 향유지원, 환경조성의 변화추이¹⁶⁾

- 2014년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대비 창작지원은 39.6%, 향유지원은 35.2%, 환경조성은 25.2%를 나타내고 있음. 2015년 예산을 고려한다면, 창작지원은 점유율이 향상가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향유지원 점유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됨. 반면 한때, 기금사업의 50%이상을 차지했던 향유지원은 향후 조금씩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음

16) 본문에서 제시된 [그림 II-5]를 바탕으로, 연도별 점유율 증감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꺾은선 그래프로 재구성하였음.

2.2. 사업 재원 변화

- 2014년 현재 문예진흥기금 재원은 ① 복권기금 전입금 ② 경륜경정전입금 ③ 기부금 ④ 이자수입 ⑤ 사업수입 및 기타 등으로 되어 있음
- 문예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개원 이전인 1973년 6월 22일 문화공보부 장관의 모금 승인 이후, 같은 해 7월 22일부터 전국 627개 극장에서 모금이 시작되어 1975년 고궁, 1976년 박물관, 1983년 능·사적지·미술관, 1994년 국가지정문화재로 모금 대상처를 계속 확대시켜 왔음. 이후, 정부의 준조세정비 방침에 따라 2001년 12월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2004년 1월1일부터 기금모금이 중단됨
-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국고출연금은 1989년부터 국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출연하였으나, 2001년부터 지원이 중단되었음
- 공익자금 중,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 수수료 중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금으로 방송발전기금이 1983년부터 지원되었으나, 2005년을 끝으로 중단되었음.¹⁷⁾ 해당기간 동안의 방송발전기금의 투입 총액은 1672억 9천만원에 달함¹⁸⁾
- 복권기금은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제 폐지 이후, 대체자원으로서 유입되기 시작함. 이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수익금 사용용도인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을 근거로 함. 그러나 전입된 복권기금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기 보다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에만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복권기금은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영역 중 향유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 경륜경정수익전입금은 「경륜·경정법」 제18조(2009년 개정)에 의거하여,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위한 대체자원으로 2010년부터 전입되기 시작하였음

17) 1983년이라는 근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92) [표3-1] ‘1980년대 문예진흥기금 조성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당시 공익자금으로 명명되었으나 이후 방송발전기금으로 명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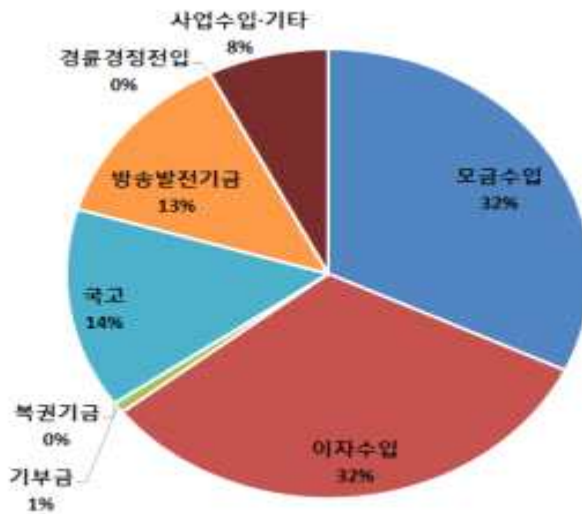
18) 해당수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464)에서 제시된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조성 및 운용내역(1973-20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표 II-11〉 1973-2014년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조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1973~2003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원총계
모금수입	410,252	70	31	0	0	0	0	418,591
이자수입	413,914	25,972	20,069	14,402	10,793	10,559	17,529	647,952
기부금	9,906	9,057	13,497	14,275	14,725	6,701	10,695	118,873
복권기금	-	53,770	23,700	48,000	57,400	58,121	61,300	487,408
국고	184,722	-	-	-	-	-	-	184,722
방송발전기금	164,490	-	-	-	-	-	-	167,290
경륜경정전입금	-	-	24,264	25,387	27,712	29,098	29,244	135,705
사업수입·기타	95,799	9,540	6,554	6,483	6,080	13,362	4,347	184,968
총수입	1,279,083	98,409	88,115	108,547	116,710	117,841	123,115	2,345,509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464)에서 제시된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조성 및 운용내역(1973-2013)」을 기반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보완·재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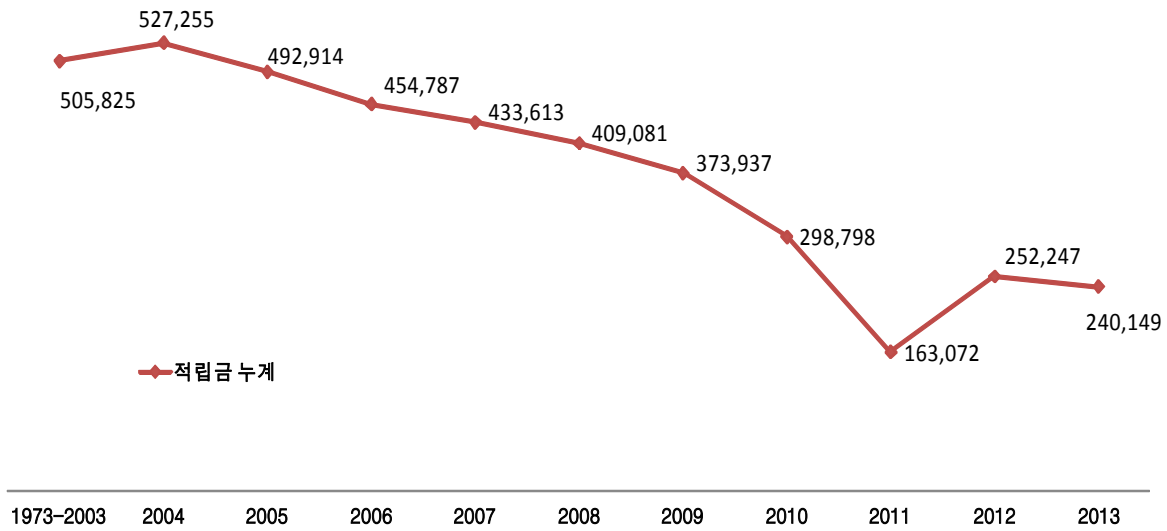


[그림 II-7] 1973-2003년 간 문예진흥기금 조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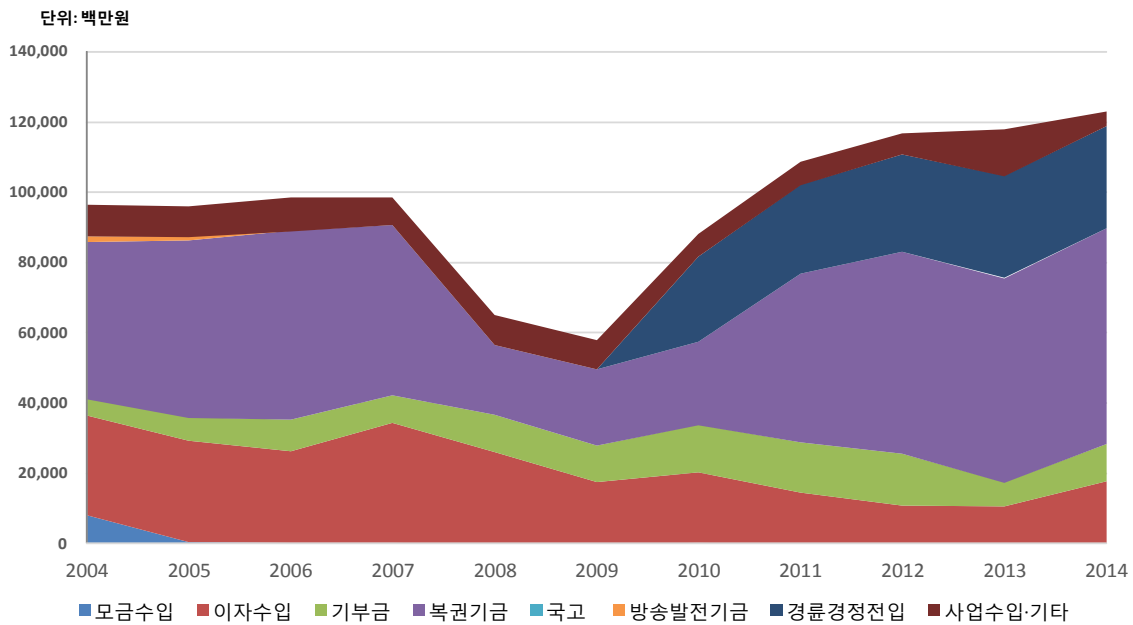
- 1973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문예진흥기금의 조성비율은 평균적으로 모금수입 32%과 이자수입32%이 총 64%에 달하여 가장 큰 재원이었으며, 그 외에도 국고출연금 14%와 방송발전기금(공익자금) 등이 13%, 기타 사업수입이 8%를 점유했음

○ 그러나, 2004년 모금제가 폐지되면서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액은 같은 해 5,272억원을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말 기준 2,401억원으로 모금폐지 이전에 비해 반 이상 감소하였음

(단위: 백만원)



[그림 II-8] 1973-2013년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누계현황¹⁹⁾



[그림 II-9] 2004-2014년 문예진흥기금 재원조성 분포도

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464)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조성 및 운용내역」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2004년 전입되기 시작한 이후, 복권기금은 문예진흥기금 재정의 주요재원으로서 기능해 오고 있으며, 2014년 기준으로 총 수입 1,231억원에 있어 복권기금이 613억원으로 49.8%를 차지하여 가장 큰 재원으로 자리매김하였음. 또한 경륜경정전입금이 292억 4천4백만원으로 23.8%를, 이자수입이 175억원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음. 그 외에도 기부금(민간출연금)이 106억 9천5백만원으로 8.7%, 사업수입이 43억 4천7백만원으로 3.5%를 차지하였음
- 2004년 이후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권기금과 경륜경정전입금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남

〈표 II-12〉 2004-2014년 사업비 기준, 문예진흥기금사업 및 복권기금사업 예산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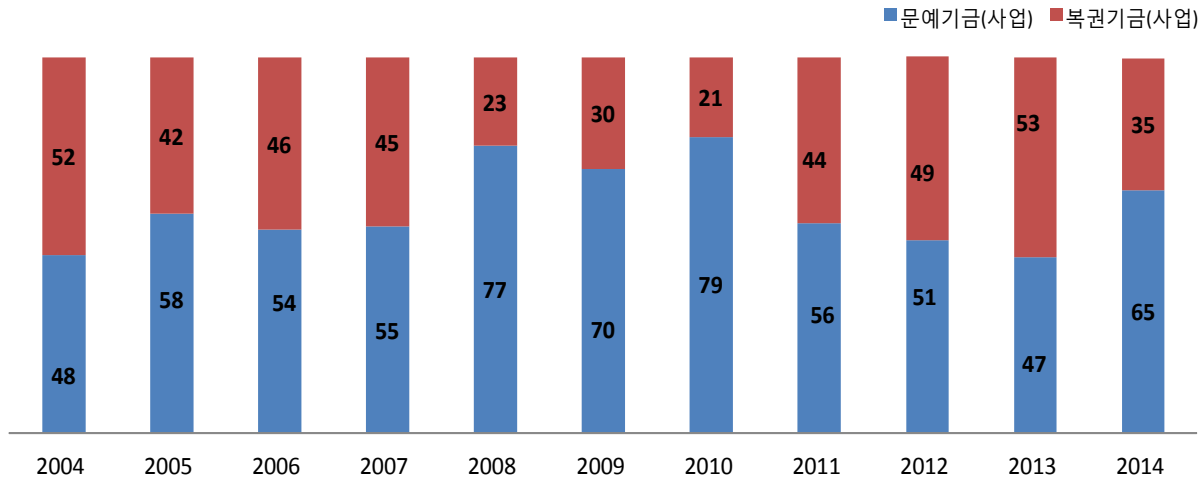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문예진흥기금 (사업)	40,331	69,762	63,330	59,452	65,369	52,006	89,266	60,959	60,626	51,320	112,743
복권기금 (사업)	44,491	49,790	53,744	48,553	19,800	21,800	23,700	48,000	57,155	58,121	61,300
사업비 총계	84,822	119,552	117,074	108,005	85,169	73,806	112,966	108,959	117,781	109,441	174,043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494)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조성 및 운용내역」중 일부를 재인용, 수정하여 재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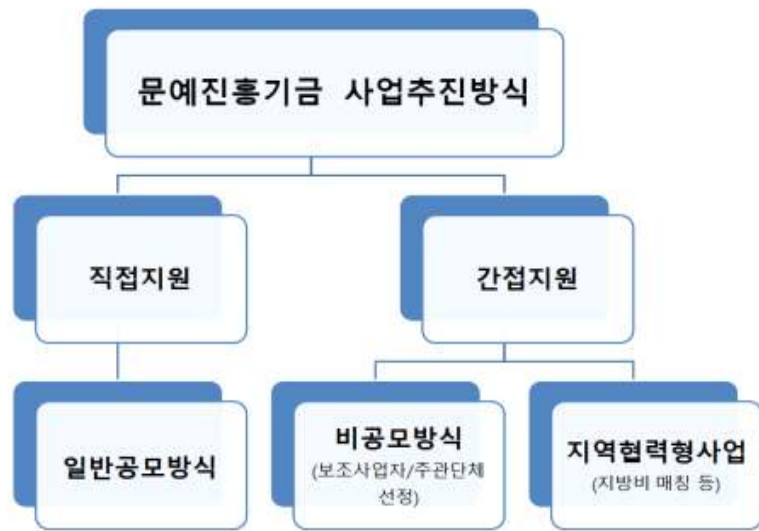
- 〈표 II-12〉에서 나타난 문예진흥기금 및 복권기금 별 사업예산 비중을 환산하면 아래 [그림 II-10]와 같음
 - 예산을 기준으로, 2004년도에 복권기금사업이 52%를 점유한 이래 조금씩 줄어들어 40%대를 유지하다가 2008년-2010년 사이 3년간 전입금 자체가 줄어들어 따라 최저 21%정도까지 줄어들었음. 이는 복권기금사업이 향유지원에 대한 주된 재원임을 감안할 때 해당시기 향유지원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기금사업을 중심으로한 창작지원이 늘어났음을 의미함
 - 그러나 2011년 이후, 기금전입금이 이전수준으로 조금씩 회복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 대비 복권기금(향유지원)사업이 다시 확대되었음
 - 2014년 사업비예산을 기준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이 65%, 복권기금사업이 35%로 나타나 복권기금사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 이는 기실 사업비 자체가 전년 대비 60%이상 늘어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2013년대비 복권기금사업에

산은 581억 2천1백만원에서 2014년 613억으로 5.5% 증감하였음



[그림 II-10] 2004-2014년 문예진흥기금 VS 복권기금 사업예산 비중(%)

2.3. 사업추진체계 변화



[그림 II-11]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체계

-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추진체계는 지원방식에 따라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뉨
 - 직접지원의 대표적인 사업추진방식은 ‘일반공모형’으로, 예술인 및 예술단체로부터 작품창작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선정대상에게

지원금을 교부하여 사업수행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행사 등에 관한 지원은 대부분 일반공모에 따른 직접지원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세부사업으로는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등이 있음. 직접지원 방식의 세부적인 사업추진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II-12] 문화예술위원회 직접지원(공모사업) 사업추진절차 예시 -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²⁰⁾

- 간접지원방식은 ①주관단체(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거나, ②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함
- 주관단체(보조사업자)지정을 통해 추진되는 간접지원방식은 일반적으로 전국단위의 행사성 사업이나 축제 등을 들 수 있음. 2014년 현재,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보조사업자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포함하여 총 38개 기관이 있음.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들은 대부분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한국오페라축제, 한국창작음악제 등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사업들의 주관 및 사업실행을 관장하고 있음. 예술장르별로 보면, 분야별 협회가 사업시행주체를 담당하고, 문화예술위원회와의 공동주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은 대개 비공모사업으로 일컬어짐. 일례로, 창작지원의 대표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 문예진흥기금 실적보고서-공연예술창작지원』, p.13에서 제시된 사업추진절차 도표를 재인용.

적인 사업인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지원으로도 추진되지만, 비공모절차를 통해 주관사업자를 선정, 간접지원으로 추진되며 2014년 기준으로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 내 비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된 사업들은 모두 9건에 이룸.²¹⁾ 이들 사업들의 세부적인 추진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II-13] 문화예술위원회 간접지원(보조사업자선정:비공모사업) 사업추진절차 예시 - ‘공연예술행사지원’²²⁾

-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초기에는 직접지원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문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중앙-지역 간 협력 강화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간접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특히 2003년 이후 문예진흥기금 모집이 중단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지방비 매칭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정책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최근에는 문예진흥기금 사업 내 중앙-지역 간 매칭을 강조하는 지방비매칭사업이 지속적으로 강조,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1) 전국연극제(한국연극협회), 전국무용제(한국무용협회), 한국오페라축제(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한국발레축제(대한민국발레축제조직위원회), 신년음악회(예술의전당), 세계합창대회(세계합창연맹), 서울국제무용콩쿠르(서울국제문화교류회), 하모니카페스티벌(한국하모니카교육협회) 등을 포함함.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 문예진흥기금 실적보고서-공연예술창작지원』, p.13에서 제시된 사업추진절차도표를 재인용.

- 일례로, 1999년 당시 문예진흥원은 이전까지 공모 및 심의과정을 거쳐 직접 지원해오던 소규모 지역성 사업 9개를 통합하여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묶어 서울시를 제외한 시·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지역문화재단)로 이관하였으며, 해당사업은 2009년 “지역협력형”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개편, 확대되기에 이룸
- 물론, 이전에도 전국적 단위의 사업들의 경우 지역주관처 등을 지정하여 사업실행을 추진하는 간접지원방식은 부수적으로 존재했었음. 그러나 1997년 이후 각 시·도 소재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지역별 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중앙-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체계에 있어 간접지원방식의 확대를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²³⁾



[그림 II-14] 문예진흥기금 간접지원(지역협력형) 사업추진체계 ²⁴⁾

- 더불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기조가 향유지원을 강조하고, 문예진흥기금 사업 내에서 역시 향유지원 성격의 사업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도 간접지원방식이 활성화된 주요한 배경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음. 특히, 향유지

23) 이러한 배경에서 2007년 10월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가 설립되고 이후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라는 이름으로 중앙-지역 간 문예진흥기금사업과 관련된 중앙-지방 네트워크 매개 및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역보조사업 자로서 기능해오고 있음. 한지협은 문화예술위원회 관내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

24)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2) 『2013년도 지역협력형 사업 세부지침』, p.3. ‘2.사업추진 기본체계’에서 제시된 그림을 재인용.

원이 전국적 단위의 소외계층을 특정화한 사업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 및 실행을 위해서 지역별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간접지원방식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향유지원 사업인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내, 통합문화이용권 및 사랑티켓 사업들은 모두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사업비 교부가 이뤄지고, 지역문화재단이 지역별 사업추진체로 기능하는 간접지원방식에 따르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업(지방비매칭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가령, 사랑티켓 사업은 50:50 의 중앙-지방재원 매칭을 기반으로 각 시도별 광역문화재단들이 사업실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경우 중앙-지방비 매칭 비율은 70:30임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비 매칭, 사업비 교부 • 지역별사업총괄, 지역주관처 선정·관리·감독 • 카드발급 및 이용 홍보, 기획사업 협력
문화예술위원회	지역주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운영계획 수립, 사업운영 총괄 • 기금 교부 및 시스템 운영·관리 • 콜센터 운영, 통합 홍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집행·정산, 실적 보고 • 지역별 기획사업 운영, 카드사업비 지불 • 지역 홍보, 프로그램 및 가맹점 발굴

[그림 II-15] 2014 문예진흥기금 간접지원(지방비매칭)사업추진체계 예시: 통합문화이용권사업²⁵⁾

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문예진흥기금사업 실적보고서-통합문화이용권, p.13에서 제시된 표를 재인용.

2.4. 종합 분석

2.4.1. 사업 내용

- 종합하자면, 1973년부터 1991년까지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는 창작지원과 환경조성지원을 중심으로 응집되어 있었으며,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향유지원이 주요 사업영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문예진흥기금 사업구조가 본격적으로 창작지원과 향유지원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을 기점으로 기금모금제가 폐지되고 대체자원으로서의 복권기금 유입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부터 향유지원이 문예진흥기금사업의 핵심사업영역으로서 명실공히 자리매김하기 시작하였음
-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창작지원 하에 전통예술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원 등이 편제되었음을 고려한다면,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문예진흥기금 사업 구조상 이들 영역을 포함한 전체 창작지원 분야는 평균 35% 대를 점유한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기금사업 초기시절인 70년대 전체사업비 대비 창작지원 점유율이 평균 79%였던 것과 큰 대조를 보이는 것임
 - 이후 창작지원은 80년대 평균 43%로 낮아졌으며,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30~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기준으로 현재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4개 사업목표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으나, 전체사업비 대비 점유율을 고려하면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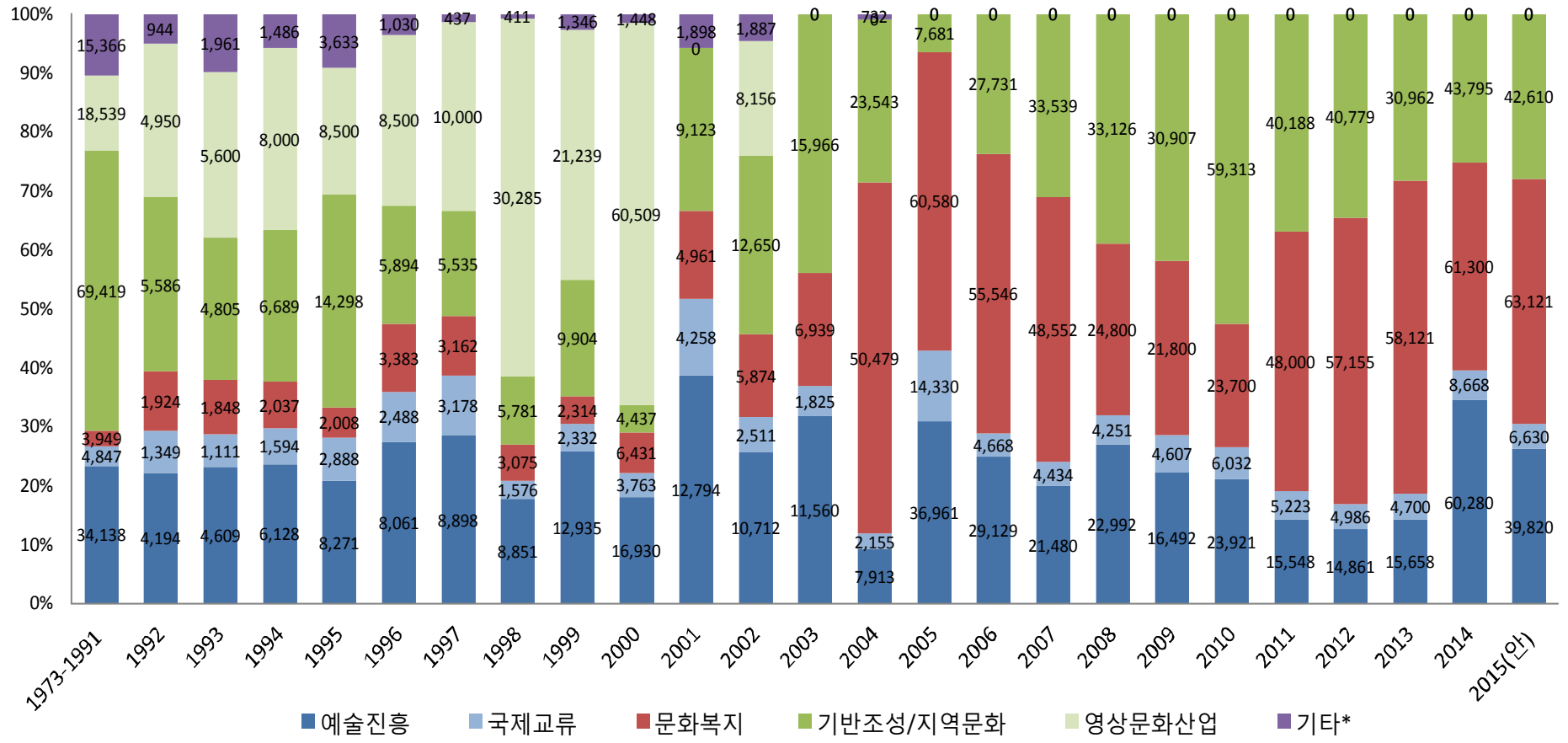
〈표 II-13〉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예산변동 내역²⁶⁾

대분류	창작지원		향유지원	환경조성		기타*	사업비 합계
	예술진흥	국제교류	문화향수	기반조성 / 지역문화	영상문화 산업		
1992	4,194	1,349	1,924	5,586	4,950	944	18,947
1995	8,271	2,888	2,008	14,298	8,500	3,633	39,598
1998	8,851	1,576	3,075	5,781	30,285	411	49,979
2001	12,794	4,258	4,961	9,123	0	1,898	33,034
2004	7,913	2,155	50,479	23,543	0	732	84,822
2005	36,961	14,330	60,580	7,681	0	0	119,552
2008	22,992	4,251	24,800	33,126	0	0	85,169
2011	15,548	5,223	48,000	40,188	0	0	108,959
2014	60,280	8,668	61,300	43,795	0	0	174,043
총계	453,136	104,404	621,059	584,261	184,278	32,579	1,979,717

기타: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466) 「문예진흥기금 사업 예산추이」에서 제시된 것을 수정, 재구성하였음

26) 2014-15년의 경우, 각 영역별 사업비 예산은 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및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를 모두 참조하였으며, 예술진흥예산은 창작지원과 예술인력육성분야를 합한 것이며, 기반조성 및 지역문화예산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의 사회적 가치확산 분야를 합한 수치임.



[그림 II-16] 문예진흥기금 사업영역별 비중변화추이(1973-2015)²⁷⁾

27) 앞의 <표 II-13>을 도표화 한 것임.

2.4.2 사업 재원

- 1973년 설립된 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 문화예술위원회 재원은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이뤄졌음. 그러나 2001년을 기점으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2003년 기금모금의 폐지가 결정된 이후 2004년부터 복권기금이 대체자원으로서 유입되기 시작하였음. 이로 인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복권기금은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핵심재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 2014년을 기준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주된 재원은 ① 복권기금 적립금 ② 경륜경정전입금 ③ 기부금 ④ 이자수입 ⑤ 사업수입 및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가장 큰 재원은 복권기금(50%)과 경륜경정전입금(24%)이며, 이자수입(14%)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표 II-14〉 2011-2014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재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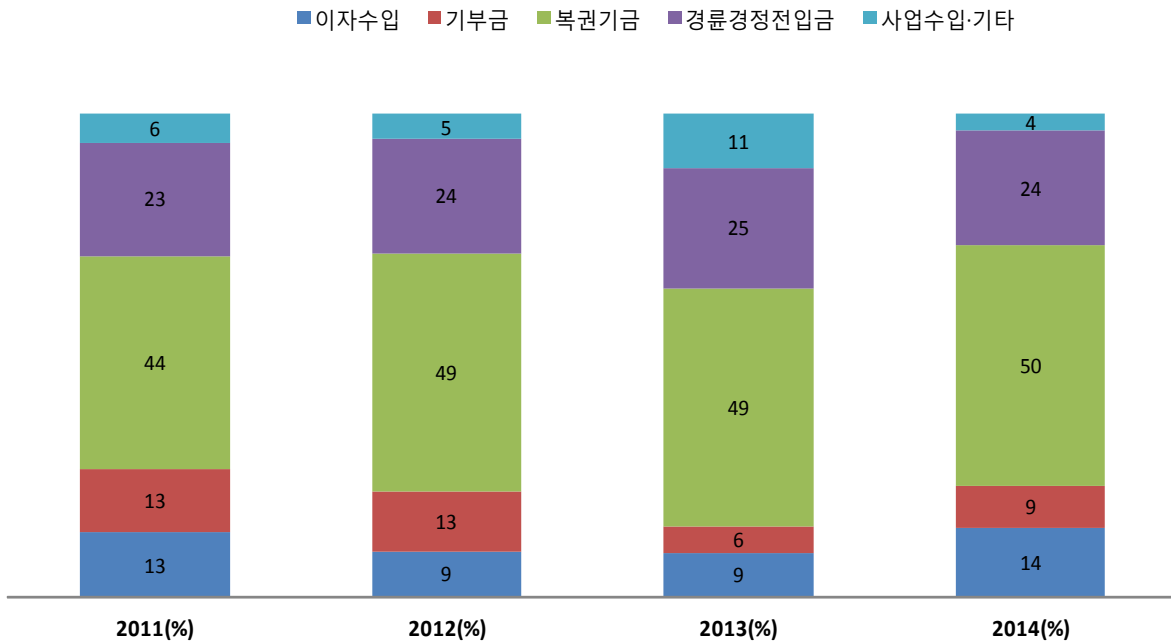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이자수입	14,402	13	10,793	9	10,559	9	17,529	14
기부금	14,275	13	14,725	13	6,701	6	10,695	9
복권기금	48,000	44	57,400	49	58,121	49	61,300	50
경륜경정전입금	25,387	23	27,712	24	29,098	25	29,244	24
사업수입·기타	6,483	6	6,080	5	13,362	11	4,347	4
총수입	108,547	100	116,710	100	117,841	100	123,115	100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464)에서 제시된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조성 및 운용내역」 및 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 2011~2014년까지 지난 4년간 재원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복권기금은 전체재원의 절반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해왔음(아래 그림 참조). 유입된 복권기금은 그 활용도가 제도적으로 제약되어 있어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향유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주로 충당되는 상황임

- 경륜경정전입금은 2010년부터 문예진흥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 4년간(2011-2014) 문예진흥기금사업 전체 재원구성에 있어 평균 25%를 담당함으로써 복권기금 다음으로 주요한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림 II-17] 2011-2014년 문예진흥기금 재원별 비중변화

2.4.3 사업추진체계

- 1970년대 문예진흥기금 사업초기에는 직접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음. 직접지원은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예술가 및 예술기관, 단체)이 공모형식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사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수혜대상에서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여 지원하는 방식임. 1980년대~1990년대 초반에 걸쳐 지역별 문화예술지원에 있어서도 직접지원 사업추진체계는 일반적으로 활용되었음
-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문예진흥기금 사업추진체계는 간접지원방식이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함.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문화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이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중앙-지역 간 협력 강화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간접지원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배경을 반영하고 있음. 특히, 1999년 문화예술위원회가 지역배분형 사업으로 추진하던 9개의 소규모 지역성 사업들

을 통합한 이후, 해당 사업들이 2009년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확장·개편되기 시작하면서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간접지원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변화는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광역 시·도에 위치한 재단들의 경우 지역문화진흥의 광역주체로서 기능하게 되면서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지역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 시작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2000년대 중반이후 기금모집이 중단된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지방비를 통해 보완, 지속적인 지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적 인식의 강화 역시 간접지원이 활성화된 또 다른 촉진기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지역문화예술지원 및 향유지원 사업들의 경우 중앙-지방 간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대부분 추진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3. 성과와 과제

3.1. 성과

3.1.1. 안정적 문화예술환경 조성

- 1973년 문예진흥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문화예술과 관련된 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음. 1974년 첫 해 사업비 규모가 8억여원이었던데 비해 40년이 지난 2014년에는 그 규모가 1,740억으로 200배 넘게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창작, 향유, 교육, 경영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크게 성장하였음
-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국민들의 문화향유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술인 및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창작발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창작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음
- 이와 같은 안정적 문화예술환경 조성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힘입은 바 크며, 현재에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에서 중추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음
 - 현재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조성은 초기 단계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된 바 있으며, 지역문화진흥, 국제문화교류 사업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초기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에서부터 출발하였음

3.1.2. 예술창조 역량 강화

-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영역으로, 우리사회의 예술창조 역량 강화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음
- 오늘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기관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예술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은 현재에도 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40여년을 지속해 온 이와 같은 예술창작영역에 대한 지원은 국제적 수준의 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역량을 평가하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음

3.1.3. 사회적 가치 확산

-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성과는 우리사회에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음
- 오늘날과 같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이전인 1970년대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시작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은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독보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한국메세나협회와 같은 기업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공식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또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및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사안들이 정책적 이슈로 제기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게 하는 역할도 담당하였음
- 이러한 역할은 우리사회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선진국에 진입하게 하는 중요한 유, 무형의 자원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음

3.1.4. 문화 지원 세분화 유도

-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시작된 초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은 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이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분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예술창작과 문화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문화향유환경 조성이라는 차원에 지원 사업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남
- 이처럼 문예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은 1990년대 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시작하고, 2000년대 이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중앙 정부차원의 공공지원기관이 설립됨으로써 확대, 다양화, 세분화되기 시작하였음

- 오늘날 문화복지, 문화산업, 문화예술교육, 예술경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이처럼 우리사회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원 시스템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2. 과제

3.2.1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목적

-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 문화예술진흥법은 제1조에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전체적인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내용과 불일치를 보이고 있음
 - 법 제18조는 문예진흥기금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금 용도와 법 목적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음

3.2.2 사업의 유사성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문예진흥기금에 주로 의존했던 1970-80년대와 달리 현재는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지원기관 다원화는 비록 처음에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부터 비롯된 측면이 있으나 최근에는 각 기관마다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업간 유사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는 국고와 기금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간 차별성의 문제로도 이어져 공공지원기관간, 문예진흥기금과 국고간 지원사업의 특성화 및 차별화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지원기관 사업간 유사 문제는 단순히 사업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로까지 확장되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기관들간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을 이룸
- 이러한 상황에서 문예진흥기금은 다른 지원 기관들과의 역할, 성격을 차별화하고 이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지원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3.2.3 기금 고갈

-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되고, 이자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던 기금이 점차 고갈되는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따라 복권기금, 토토기금 등을 대체 재원으로 투입하고 있으나 문예진흥기금 자체는 여전히 고갈되고 있고, 향후 2-3년 안에 완전히 고갈될 상황에 있음
- 이 경우, 지원사업 재원을 문예진흥기금에서 다른 기금 또는 국고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문화예술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원 자체는 지속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목적 기금이 사라지면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년 수립되는 정책 방향계획이나 정책적, 사회적 환경 변화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함
- 현재 고갈 위기에 처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향후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재원 측면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규모, 범위, 내용 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검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3.2.4 추진 방식의 문제

- 문예진흥기금은 초기 지원시기 주로 공모사업을 통한 직접 지원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였음.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향유 지원 사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보조기관을 통한 지원 방식 비중 또한 크게 확대되었음
- 보조기관을 통한 지원방식은 주로 한국문예회관연합회나 지방문화원연합회, 각종 문화예술협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중앙단위의 지원기관을 1차 보조사업자, 이 기관들에 의해 지원받는 2차 보조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하에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이처럼 직접 지원과 보조사업자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사업들의 추진에 있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문제나 타 기관의 보조사업자와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자가 중복되는 경향, 직접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행정적 부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사업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음
- 사업추진방식은 한편으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혜단체들로 하여금 지원 체계에 대한 인식 혼선을 일으켜 효과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위원회 내 직접 및 간접지원 사업과, 타 지원기관의 지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지역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3.2.5 지원 방식 문제

-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그동안 주로 장르별 지원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곧 문화예술 개별 장르를 중심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각 장르가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식은 다른 한편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주제 영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 어렵게 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의 지원 분야와 성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일정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장르별지원의 경우, 유사한 지원 사업을 각 장르별로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장르별 소외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집중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고려가 취약할 수 있는 반면, 주제 영역별 지원은 소외되는 장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어느 한 방향으로 지원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르별 지원과 주제영역별 지원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조율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의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필요함

4. 해외 사례

4.1.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의 전신은 대영제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in Great Britain(대영제국 예술위원회)로 1946년 설립되었음. 이후, 1994-95년에 걸쳐 지방분권화에 따라 예술지원 전담기구가 대영제국을 구성하는 4개 지역인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별로 분화되었으며, 이후 각 지역별로 Arts Council England,

Arts Council Wales, Arts Council Northern Ireland, Arts Council Scotland이 예술지원전담기구로서 기능해왔음

- 1997년 신노동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문화예산을 전담하는 국가차원의 중앙부처인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이하, DCMS)가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됨으로써, 전 국가적 차원의 문화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술가 및 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은 기존대로 각 지역별 예술위원회가 관장하되, DCMS를 통해 중앙예산을 전달받도록 예산전달체계가 조정되었음



[그림 II-18] 영국(잉글랜드) 예술지원 체계

- 이들 중,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이하 ACE)는 DCMS와 업무협약 (Service Delivery Agreement)를 체결하고, DCMS의 문화정책 기조에 따른 예술지원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음. DCMS가 설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ACE는 잉글랜드지역 내 예술지원 단독기구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6개 예술장르(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융합예술)를 중심으로 한 예술가 및 예술기관 지원을 전담해왔음
- 창조경제를 국가발전비전으로 제시하고, 문화예술을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토대로 지목했던 신노동당 정권시기(1997-2010) 폭발적인 문화예산의 증가로 문화예술의 황금기를 누렸던 영국 문화예술계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한 내수경제 침체,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의 출범, 2015년 보수당 정권 재집권 등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정부지원 삭감 및 재정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이러한 변화는 2010년

보수·자민당 연합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음

- 2010년 집권한 보수·자민당 연합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정부재정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거의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예산지원을 30%이상 축소하였음. 이로 인해, DCMS 및 ACE의 재정역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ACE의 사업영역이 다소 조정되었음
- DCMS의 30% 정부예산지원 감축은 결과적으로 ACE의 재정축소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ACE는 조직자체의 행정운영비용 50%감축 및 자체인력을 21% 감원을 단행하였음.²⁸⁾ 아울러 그간 9개 권역에서 운영해왔던 ACE 지역예술위원회(권역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지역사무소: ACE Regional Offices)를 4개 도시(런던, 버밍엄, 맨체스터, 브리스톨)를 중심으로 축소, 개편하였음. 또한, 예술지원 예산규모 역시 30% 삭감되었음
-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ACE의 사업영역 역시 조정되었음. 2011년 10월 이후 ACE는 기존 6개 예술장르영역 외에도, 박물관 및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게 되었음²⁹⁾
- 보수·자민당 연합정부 집권기였던 지난 4년간(2011-2015) ACE가 문화예술분야에 할애한 예산은 총 £1.4 billion의 중앙정부지원금 및 £1billion의 복권기금 등 총 £2.4billion에 이룸. 이들 예산의 배분은 2010년 ACE가 발표한 예술지원 전략비전서 『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2010-2010』에 기반을 둠³⁰⁾
 - 해당문서에 따르면, ACE의 예술지원정책은 다음의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5개 핵심 목표로 요약될 수 있음

28) 자세한 내용은 ACE(2012) 『Arts Council England announces Details of Its New Structure』 (201210.3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9) 가령,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지원은 본래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 진흥협의회(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s)가 담당해왔으나 2010년 정부예산감축을 계기로 폐지되어, 박물관 및 도서관 지원은 ACE로, 아카이브 지원은 국가기록원(The National Archive)으로 이관되었음.

30) ACE는 2010년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의 성취(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라는 제목의 전략비전서를 발표하여, 향후 10년간의 전략계획을 제시하였음. 해당문서에서 제시된 전략비전들은 2013년 발간된 “모두를 위한 위대한 예술과 문화-10개년 전략프레임워크 2010-2020(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 10-year Strategic Framework 2010-2020)”을 통해 재확인되었음.

〈표 II-15〉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 전략목표 2010-2010

구분	5개 전략목표	내용	핵심키워드
Goal 1	Talents and artistic excellence are thriving and celebrated	예술적 재능 및 탁월한 예술창작에 대한 지원강화	Excellence
Goal 2	More people experience and are inspired by the arts	탁월한 예술에 대한 전 국민의 향유기회 확대	Everyone
Goal 3	The arts are sustainable, resilient and innovative	예술생태계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국가차원의 연구지원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Goal 4	The arts leadership and workforce are diverse and highly skilled	다원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술분야 리더 및 인력육성	Diversity and Skills
Goal 5	Every child and young person has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richness of the arts	어린이, 청소년들의 예술경험 기회의 확대를 통한 예술저변의 확대	Children and Young People

* 출처: ACE(2010) 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및 ACE (2013)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 10-year Strategic Framework 2010-2020)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 상기 5개의 전략목표는 2013년 ACE가 발간한 10개년 전략계획서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 10-Year Strategic Framework 2010-2010』에도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후자에는 예술분야 외에 새롭게 지원영역으로 편제된 박물관 도서관 분야에 대한 언급이 부가되었음. 이를 바탕으로 ACE는 미션과 전략계획을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 홍보하고 있음



[그림 II-19]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미션 및 5개 전략목표: 인포그래픽 (2010-2020) 31)

31) ACE (2015a) 웹사이트, What We Do (Explore Our Infographic)에서 제시된 인포그래픽을 재인용.
<http://www.artscouncil.org.uk/what-we-do/mission/> (2015.07.15. 최종접근)

4.1.1. 사업영역 및 구조

- ACE 예술지원관련 사업영역은 크게 예술분야, 박물관 분야, 도서관 분야로 나눌 수 있음. 예술분야는 ACE가 전통적으로 지원해온 6개 예술장르인 문학,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융합예술을 중심으로 하며, 박물관 및 도서관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11년 연합정부 출범 이후 편제된 것임³²⁾
 - 2013/14년 기준으로 박물관, 도서관 지원을 위한 사업비 비중은 총 사업비 대비, 각각 6.4%, 0.5% 정도로 ACE 전체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볼 수 없음

- 2013/14년 기준으로 ACE 예술지원 사업영역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II-16〉 ACE 예술지원사업 사업영역 및 구조 (2013/2014년 기준)

(단위: £million, 1백만 파운드, %)

구분	사업비 규모	비중 (%)
국가포트폴리오 기관 지원사업 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s	311.2	46.38
전략적 펀딩 지원사업 ³³⁾ Strategic Funding Programmes	118.9	17.72
예술보조금 지원사업 Grants for the Arts	69.9	10.42
뮤직에듀케이션 사업 Music Education Hubs	63.2	9.42
문화교육 지원사업 Cultural Education	5.3	0.79
박물관 지원 Museums	43	6.41
도서관 지원 Libraries	3	0.45
행정지원 비용 ³⁴⁾ Support Costs	33	4.92
기타 Others	23.5	3.50
총 지출규모³⁵⁾	671	100.00

* 출처: ACE(2014) Arts Council England Grant-in-Aid and Lottery Distribution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3/14, pp.4-5에서 제시된 인포그래픽스를 재구성하였음.

32) 영국 내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업무는 1차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ACE의 도서관 지원은 공공도서관의 대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발전전략 프로젝트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2015년 현재 13개의 사업이 지원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것.

<http://www.artscouncil.org.uk/what-we-do/supporting-libraries/other-links/libraries-development-initiative/>
(2013.07.15. 최종접근)

33) 전략적 펀딩 지원사업은 예술기관의 재개발 및 재생프로젝트 등을 비롯하여, 2010년 ACE 비전에서 제시된 예술생태계의 보존 및 진흥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포함함. NPOs를 통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특수목적용 가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임.

34) 정보기술 인프라(IT) 및 부지제공 지원 등

35) 여기서의 총 지출규모는 2013/24년 기준 ACE의 총 재원규모(£694.622 million)에서 사업비의 합계(£671 million)를 의미함.

- 국가포트폴리오기관 지원사업(NPOs)을 통해, 2012-2015년 기준 696개 기관이 지원되었으며, ACE의 예술분야 지원에 있어서 총 지출규모 대비 연간 평균 46%를 상회하여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바 ACE의 핵심사업으로 볼 수 있음³⁶⁾ ACE는 향후 3년간 (2015-2018년) 6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1billion을 지원할 계획임³⁷⁾
- 예술보조금 지원사업(Grants for the Arts)은 개별 예술가 및 단체들에 대한 지원으로 신진/독립예술가 및 단체들의 창작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ACE는 향후 3년간 (2015-2018년) 총 £210million, 연간 평균 £70million 의 예산지원을 투자할 예정임³⁸⁾
 - 2010년 이전까지 예술보조금 지원사업은 국가보조금(Grant-in-Aid)를 통해 재원이 충당되었음. 그러나 2010년 연합정부 출범 이후 DCMS와 ACE가 모두 예산감축을 겪게 되면서 예술보조금 지원사업에 복권기금 유입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고, 현재까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작년 말 ACE는 향후 2015-2018년도 예술보조금 지원사업을 전액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공표한 바 있음
- 예술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문화교육 지원사업, 무직에듀케이션 지원사업은 각각 총지출대비 9.4%, 0.8%를 차지하고 있음. 이들 사업에 대한 재원은 국가보조금이나, 재원이 교육부(DfE)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신노동당 정권기 예술교육 관련 예산인 거의 전적으로 DCMS에 의존했던 것과 크게 대조된다고 할 수 있음

4.1.2. 재원구조 및 출처

- ACE의 재원구조는 중앙차원의 정부지원금(국고보조금: Grant-in-Aid)과 복권기금(National Lottery Distribution Fund)에 기반을 둔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국고보조금(Grant-in-Aid)의 경우, 기존에는 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금액이 주로 DCMS 예산을 통해 지원되었으나, 2011년 이후 교육부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전담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일부 교육부를 통한 지원이 포함되고 있음³⁹⁾

36) 상기 제시된 기관 수 및 수치는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ACE 웹사이트 상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our-investment/> (2015.07.15. 최종접근)

37) 상기 제시된 기관 수 및 수치는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ACE 웹사이트의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임.

<http://www.artscouncil.org.uk/funding/our-investment-2015-18/> (2015.07.23. 최종접근)

38) 위의 자료 참고

39) 교육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문화예술교육관련 사업은 ①문화교육(Cultural Education)지원사업과 ②뮤직 에

- DCMS를 통해 받는 국고보조금은 3년단위의 계약을 통해 전달되며, ACE의 국가보조금 운용은 DCMS와 ACE가 체결하는 운영협약서(Management Agreement)에 의거하고 있음
- ACE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복권기금이 유입된 것은 1992년 존 메이저 정부 시기 복권기금이 설립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기금수익이 사회, 교육, 예술 등 공공분야 사업의 보조재원(일명, 보조성의 원칙(additionality principle))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명시된 복권기금 법안에 의거함
- 현재 ACE 재원구조상의 국고보조금 대 복권기금의 비중은 65% : 35% 선으로, 국고보조금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이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술지원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어온 반면, 박물관/도서관 등 사업영역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예술지원에 있어서 복권기금의 중요성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5년 7월 현재, ACE의 재원구성 규모는 총 £724 million 에 이르며,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Grant-in-Aid) £449 million, 복권기금 £273 million, 기금이자 £1million, 그 외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됨

〈표 II-17〉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 재원구조 및 규모 (2014/15년 기준)

(단위: in thousands of £, 영국 파운드 £'000 기준)

구분	2014/15	비율	2013/14	비율
국고지원금 (Grant-in-Aid)	449,371	62.00%	460,721	66.32%
복권기금 (The National Lottery Distribution Fund)	273,289	37.70%	230,800	33.22%
기금이자수입 (Investment Returns)	1,101	0.15%	1,083	0.16%
기타(기부금 등)	1,083	0.15%	2,058	0.30%
총 재원규모	724,844	100%	694,662	100%

* 출처: ACE(2015b) Arts Council England Grant-in-Aid and Lottery Distribution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4/15, p.55, Strategic Report에서 제시된 표를 재구성하였음.

듀케이션 허브사업(Music Education Hubs)이며, 전자는 국립청소년무용아카데미(National Youth Dance Academy), 소외계층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동지원사업(In Harmony) 등 세부사업들을 포함함.

4.1.3. 사업추진체계

- ACE 예술지원 사업에 있어 핵심을 차지하는 국가포트폴리오 지원사업(National Portfolio Organizations)를 비롯하여, 개별예술가 및 예술단체 지원사업(Grants for the Arts)은 공모방식을 통한 직접지원 체계를 따르고 있음



[그림 II-20]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 예술지원사업 사업추진체계

4.2. 캐나다 예술위원회 (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 캐나다 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이하 CCA)는 1957년 “캐나다 예술위원회 법안(Canada Council for the Arts Act)”에 의거하여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팔길이 원칙에 의거한 독립적인 예술지원기구로서 기능해오고 있음
- 캐나다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1992년 설립된 캐나다 유산부(Ministry of Canadian Heritage)이나, 그 이전부터 예술지원을 담당해오던 CCA는 팔길이 원칙에 의거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독자적 예술지원 기구로서의 위상을 보유해왔으며, 전국가차원의 문화예술지원 정책 추진의 핵심기구로서의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



[그림 II-21] 캐나다 예술지원 체계

- 위의 그림과 같이, 캐나다 의회가 매년 결정하는 예술분야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캐나다 유산부(Ministry of Canadian Heritage)를 통해 CCA가 전달받고, CCA는 예술분야 지원을 전담하는 단독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음
- 캐나다 예술위원회 법안에 따르면, CCA의 설립목적은 “예술을 진흥하고, 예술에 관한 연구 및 향유 및 작품생산을 촉진하는 하는 것”에 있으며, 이는 1957년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CCA가 추진하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근본적인 원칙이자 미션으로 강조되고 있음.⁴⁰⁾ 이를 기반으로, CCA는 자신들의 핵심역할을 다음의 2가지 영역, 즉 ①예술(예술가/단체)에 대한 지원, ② 연구지원 등을 통한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로 규정, 제시하고 있음⁴¹⁾
- CCA는 또한 예술지원정책에 있어 그들이 추구하는 9개의 근본가치(fundamental values)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이들 가치가 개별적인 지원정책사업들을 통해 구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40) 캐나다 예술위원회 법안(Canada Council for the Arts Act) 전문은 캐나다 법무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2/> (2015.07.15 최종접근)

41) <http://canadacouncil.ca/council/overview-of-the-canada-council> (2015.07.15. 최종접근)

〈표 II-18〉 캐나다 예술위원회 예술지원정책의 근본가치

The Canada Council's Fundamental Values		
1	팔길이 원칙	(an arm's length relationship from government)
2.	표현의 자유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3.	공공재로서의 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믿음	(belief in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arts as a public good)
4.	예술의 수월성	(artistic excellence as the primary criterion)
5.	예술의 가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믿음	(the value of a national perspective of the arts)
6.	원주민들의 역사, 전통, 언어 및 예술활동에 대한 존중	(Aboriginal peoples)
7.	공용어로서 프랑스어와 영어에 대한 존중	(official language)
8.	지역별 다양성에 대한 존중	(regional diversity)
9.	문화 및 인종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술가 및 예술기관에 대한 존중	(diverse cultural and racial backgrounds)

*출처: 캐나다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The Canada Council's Fundamental Values」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구성하였음⁴²⁾

- 위의 9가지 기본가치 중 4개의 가치가 문화다양성의 다원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CCA의 예술지원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문화다양성 및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의 문화적 자산의 존중과 보호를 강조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특성은 캐나다가 이민자들을 통해 구성된 국가라는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2007년 CCA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 규모의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CCA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위원회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문서 『Moving Forward Strategic Plan 2008-2011』를 발간하였음 (CCA, 2007)

42) 캐나다 예술위원회(CCA)는 홈페이지를 통해 CCA 예술지원 정책이 추구하는 근본가치를 비디오 및 문서자료를 통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조할 것
<http://canadacouncil.ca/council/about-the-council/the-canada-councils-fundamental-values> (2015.07.15. 최종접근)

〈표 II-19〉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5개 핵심전략

전략 키워드		전략내용
1	Individual Artists (개인예술가)	캐나다의 예술적 실천의 핵심토대(core)이자, 단독 혹은 협업을 통해 활동하는 개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2	Arts Organizations (예술기관·단체)	예술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 캐나다의 전 지역에서 예술적 실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CCA의 지원을 확대할 것
3	Equity (공정성·형평성)	캐나다의 예술적 열망을 성취함에 있어 무엇보다 공정성과 형평성(equity)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CA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할 것
4	Partnerships (파트너십)	CCA활동에 있어 타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핵심요소가 되도록 할 것
5	Organizational Development (조직개발)	CCA 자체의 조직구조, 인력관리 및 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예술지원 기구로서의 CCA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에 필수적인 변화를 실행할 것

* 출처: CCA (2010a) Canada Council for the Arts releases Five Year Strategic Plan. (2010.10.20.일자 보도자료)

- 『Moving Forward Strategic Plan 2008-2011』에서 제시된 5개의 전략방향은 예술가, 예술기관/단체, 공정성(형평성), 파트너십, 조직개발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이들 전략은 2010년 발간된 CCA의 전략비전서 『Strengthening Connections: Strategic Plan 2011-2016』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현재 CCA가 추진하는 모든 예술지원의 핵심원칙으로서 기능하고 있음(CCA, 2010b)
- 설립이후 현재까지 장르별 접근을 통해 예술가 및 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왔던 CCA는 2017년부터 6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예술지원 보조금사업 모델을 도입할 것을 최근 발표하였음(CCA, 2015)
 - 새로운 펀딩모델(“New Funding Model”)을 통해 CCA는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예술가-중심의 보조금 지원프로세스(a simpler, more artists-centred application process)”를 추진하는 한편, “변화하는 예술계의 트렌드 및 핵심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술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예술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모든 자국민에게 수혜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더불어 여전히 CCA가 주도하는 예술지원의 핵심원칙은 “예술의 수월성(artistic excellence)”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⁴³⁾ 2015년 7월 현재, 아직 새 펀딩모델 관련 세부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향후 CCA의 펀딩모델은 아래그림과 같이 6개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될 예정임(CCA,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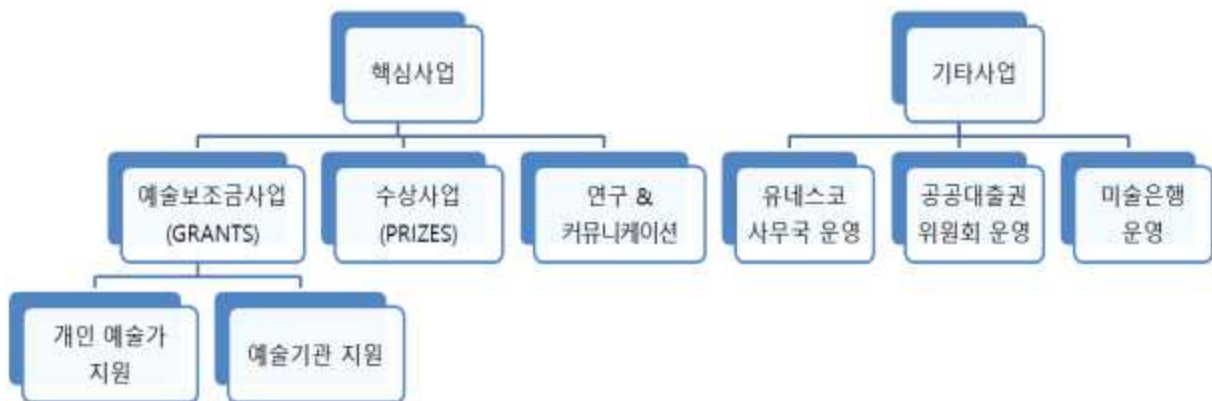
43) 그러나 2017년 도입예정인 새 펀딩모델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까지 세부적인 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림 II-22] 캐나다 예술위원회(CCA)의 새로운 펀딩모델 6개 영역

4.2.1. 사업영역 및 구조⁴⁴⁾

- CCA의 주요사업영역은 핵심사업과 기타사업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핵심사업으로는 예술보조금 지원사업(Grants Programs)과 수상사업(Prizes),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Research & Communication) 등 세 개의 영역이 있음



[그림 II-23]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사업구조

- 핵심사업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술보조금사업 (Grants Programs)은 지원대상(applicant types)을 기준으로 크게 예술가(Individual Artists)와 예술기관(Arts Organizations)에 대한 지원으로 양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영역으로는 무용, 미디어아트, 음악, 연극, 시각예술, 문학/출판, 원주민예술 등 7개 장르를 아우르고 있음
 - 예술보조금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유형은 작품창작 및 제작, 전문성 개발, 레지던

44) 2017년도입 예정인 새 펀딩모델(New Funding Model)의 세부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CCA 사업영역에 대한 분석은 2015년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시, 공연 및 전시 투어, 예술가/지역사회 협력 프로그램 등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지원(Artists & Community Collaboration Program: ACCP) 등이 포함됨
- 2015년 7월 현재, 예술보조금사업 하에 지원중인 세부사업들은 총 147개에 달함
- 수상(Prizes Program)사업은 무용, 미디어 아트, 음악, 연극, 시각예술, 문학/출판, 원주민예술 등 7개 분야에 걸쳐 각 장르에서 탁월한 창작 및 예술관련 연구성과 등을 이룬 예술가, 학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표창과 펠로우십을 수여하고 있음
 -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사업은 CCA가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활동으로, CCA 사업에 대한 통계작성과 분석을 기본적 임무로 삼고 있으며, 예술인력, 예술조직, 재원조성, 원주민 및 장애인 예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게는 경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대중에게는 예술의 가치 및 예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예술분야와 관련된 공적 참여(public engagement in the arts)를 제고하는데 있음
 - 정리하자면, 현재 CCA가 추진하고 있는 5개 정책전략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인예술가(individual artists)” “예술기관(arts organizations)”에 대한 지원은 “예술보조금사업(Grants Program)”을 통해 가장 명시적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예술보조금 사업이 개인예술가와 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양분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공정성(equity)”, “파트너십(partnerships)” 등의 전략이 각 세부사업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되고 있음
 - 이러한 접근을 통해 예술가 및 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문화다양성, 원주민 예술가 및 예술단체 지원, 장애예술가 지원 등 소수그룹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추진되고 있음
 - 그 외 “조직개발(organizational development)”과 관련된 정책전략은 연구 및 커뮤니케이션 사업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CCA가 수행하는 기타사업으로는 공공대출권 위원회(Public Lending Right Commission)운영과 미술은행(The Canada Council Art Bank) 운영, 유네스코 사무국 운영(Canadian Commission for UNESCO) 등이 있음
 - 공공대출권 위원회(Public Lending Right Commission)는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책의 작가들(authors)에게 매년 해당도서관의 공공대출과 관련된 사용료 분배를 담당하는 기구이며, CCA는 예술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대출권프로그램(Public Lending

Right Program)을 시행하여 작가들에게 공공도서대출과 관련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2013/14년 기준으로 총 9,770,000 달러의 사용료가 18,668명의 작가들에게 지급되었음⁴⁵⁾

- CCA가 운영하는 미술은행(The Canada Council Art Bank)은 총 18,000여개의 예술작품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 혹은 민간영역으로의 작품대여사업을 하고 있음⁴⁶⁾

○ CCA의 사업영역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가장 뚜렷한 특성은 예술보조금사업(Grants Program)자체를 “예술가 및 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창작지원”을 중심으로 CCA 사업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임

○ 2013-2014년을 기준으로 예술보조금사업(Grants Program)의 총 지출규모는 \$142.1 million으로, 예술가들에게는 전체 예술보조금 사업비의 15%인 \$21.4million이 지원되었고, 예술기관들에게는 전체 예술보조금 사업비의 85%인 \$120.6million이 지원되었음

〈표 II-20〉 2013/2014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예술보조금사업 지출규모

구분	지원금액	비율	지원금 사업수
예술가 지원 (individual artists)	\$ 21.4 million	15%	2,171 grants
예술기관 지원 (arts organizations)	\$ 120.6 million	85%	3,640 grants
예술보조금사업 지출 총계	\$ 142.1 million	100%	5,811 grants

※ 출처: CCA(2014a) National Overview: Canada Council for the Arts Funding to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2013-2014, pp.1-3.

○ 그 외, 수상사업(Prizes)과 기타사업 중 작가들에게 지급되는 공공대출권 프로그램(Public Lending Right Program) 사업비를 합하여 전체 예술지원규모를 파악하면, 2013-2014년 기준으로 총 지원액은 \$153.6million에 달하며, 이는 CCA에 지원된 정부지원금 \$182.0 million의 84.4%를 차지함

45) CCA (2014a) National Overview: Canaca Council for the Arts: Funding to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2013-14. 공공대출권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사용료지급을 받은 작가 수치는 p.1, 총 지급금액은 p.6의 「Canada Council at a Glan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공공대출권 프로그램(Public Lending Rights Program)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참조할 것. <http://plr-dpp.ca/> (2015.07.15. 최종접근).

46) CCA가 운영하는 미술은행(Canada Council Art Bank)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음 <http://artbank.ca/home> (2015.07.15. 최종접근)

〈표 II-21〉 2013/2014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예술지원사업 전체규모

정부지원금 (Parliamentary Appropriation)		\$182.0 million
사업영역	예술보조금사업(Grants)	\$142.0 million
	수상사업(Prizes)	\$ 1.8 million
	공공대출권 사용료지급액(Payments)	\$ 9.8 million
예술지원금 총계 (Total Funding of the CCA)		\$ 153.6 million

* 출처: CCA(2014a) National Overview: Canada Council for the Arts Funding to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2013-2014, p.35에서 제시된 Table 7: Five year Breakdown of Grants by Discipline을 재구성하였음.

4.2.2. 재원구조 및 출처

- CCA의 재원구조 분석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이 전체예산규모의 평균 93~95%정도를 차지하므로, 캐나다의 예술지원은 거의 전액 국고를 통해 충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국고지원금은 매년 의회에 의해 결정되어 캐나다유산부(Ministry of Canadian Heritage)를 통해 전달되며, 그 외 CCA 재원으로는 기금수입(endowment income) 및 기부금 (donations) 등이 있으나 그 규모가 극히 작음
 - 2013-2014년 기준으로 총 재원규모는 \$191 million 정도이며, 이중 정부지원금이 95%로 약 \$182million를 차지함

〈표 II-22〉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재원구조 및 규모

(단위: in thousands of dollars, 캐나다 달러 \$'000 기준)

구분	2014	비율	2013	비율
정부지원금(국고) Parliamentary Appropriations	181,974	95%	181,180	93%
투자수입 Net Investment Income	7,347	4%	10,700	6%
기타(기부금 등)	1,671	1%	1,734	1%
총 재원규모⁴⁷⁾	190,992	100%	193,614	100%

* 출처: CCA (2014b) Canada Council for the Arts Annual Report 2013-2014, p.24. Summary Statement of operations for the years Ended March 31, 2015년 7월 15일 현재, 캐나다 달러(CAD) 1\$는 한화로 900원 정도임.

47) 총 재원규모는 CCA (2014b: 24)에서 제시된 Operations 관련 내용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이며, 표에서 제시된 수치 중 2013년도 재원규모는 수정된 실제 예산액(Restated Actual 2013), 2014년도 역시 실제예산액(Actual 2014)을 반영한 것임.

4.2.3. 사업추진체계

- CCA의 예술지원 추진체계는 직접지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
 - CCA 핵심사업인 예술보조금사업(Grants)은 공모형식으로 추진되며, 예술가 및 예술기관이 공모지원을 신청하고, 이후 수혜자선정 - 보조금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그림 II-24] 캐나다 예술위원회(CCA) 예술보조금사업(Grants Program) 사업추진체계

- 2013-2014년을 기준으로, 총 5,811개의 예술보조금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지원되었음. 총 5,810개 사업 중 2,171개가 개인예술가지원으로, 3,640개 사업이 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남. 예술보조금 사업에 제출되었던 신청서는 총 14,901개로 개인예술가들 지원신청서가 8,677개, 예술기관 신청서가 6,224개였음(CCA 2014a: 3)
 - 이에 따라 2013/14년도 예술보조금 사업 선정비율은 개인예술가의 경우 25.0%, 예술기관은 58.5%로 파악되어, 개인예술가 지원은 평균 1:4 정도의 경쟁율로 나타남

4.3. 호주 예술위원회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 호주 예술위원회(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이하 ACA)는 1973년 예술지원관련 임시기구로 설립되었다가, 2년 뒤인 1975년 호주 예술위원회 법안(Australia Council Act)이 의회를 통과된 이래로 중앙정부 차원의 예술지원 및 자문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그 법적 지위와 위상을 구축하여 왔으며, ‘팔길이 원칙’에 의거한 자율성 및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음.⁴⁸⁾ 2015년 7월 (상반기 기준) 현재, ACA는 호주 내 예술지원

과 관련된 단독기구로서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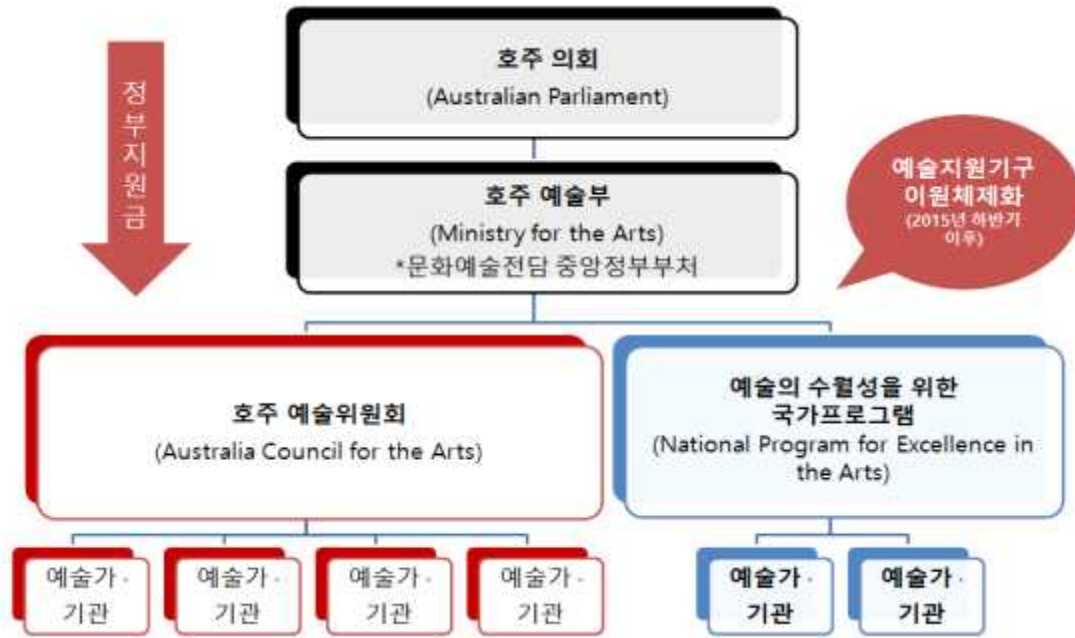
[그림 II-25] 호주 예술지원체계 (2015년 상반기 기준)

- 그러나 ACA의 단독위상은 2015년 하반기부터 조금 변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2015년 5월, 호주정부는 ACA외에 새로운 예술지원기관인 ‘The National Program for Excellence in the Arts(이하, NPEA)’를 설립, 향후 4년간 총 \$104.7million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정부발표에 따르면, ACA가 예술의 수월성을 강조하고, 호주의 핵심예술기관 및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 고급예술에 방점을 두는 등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 NPEA는 예술기관의 민간파트너십 및 스폰서십을 독려하는 제도적 지원 및 대중의 보다 다양한 취향과 선호를 고려한 예술지원에 집중하게 될 계획임
 - 이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이후부터 호주의 예술지원은 ACA 와 NPEA의 이원체제로 구조화될 것으로 보임

- 호주정부는 NPEA의 설립으로 ACA의 정부지원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아니며, ACA에 대한 연간 정부지원규모(대략 \$185million)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이라 밝히고 있음(Owens, 2015). 그러나 두 기관의 예술지원사업영역을 배분, 조정함에 있어 ACA의 사업영역과 범위가 이전보다 좁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예술계로부터 표명되고 있으며, 실제로 ACA가 관장하던 일부 사업들이 NPEA로 이관됨에 따라 ACA의 전체

48) 호주 예술위원회 법안은 최근 2013년 개정되었으며, 관련 전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australiacouncil.adcorpdev.net/symphony/extension/richtext_redactor/getfile/?name=26d416ea040fd24c3e0feb9a921f73b3.pdf (2015.07.15. 최종접근)

정부지원 예산규모가 일부 축소될 예정임



[그림 II-26] 호주 예술지원 체계 (2015년 하반기 이후)

- ACA는 예술보조금 사업을 통해 작품창작, 협업, 투어, 제작, 전시, 공연, 출판, 기록, 홍보, 시장개발 및 관객개발을 지원함. 매년 1년 단위의 예술지원 외에도, 예술기관의 창작활동을 장기적 차원에서 촉진하고자 4년 주기에 따른 보조금지원을 실행하고 있음
- 2014년 8월, ACA(2014a)는 『문화적으로 야심찬 국가: 전략계획 2014-2019 (A Culturally Ambitious Nation: Strategic Plan 2014-2019)』를 통해 향후 5년간에 걸친 중장기 전략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이에 따른 예술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향후 5년간 ACA가 추구할 4가지 핵심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II-23〉 호주 예술위원회(ACA) 2014-2019 5개년 계획, 4대 전략목표

4대 전략목표		내 용	전략추진 키워드
Goal 1	Australian Arts are without Borders	호주 예술가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호주의 위대한 예술이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국제교류와 관련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함	Exploration, Reciprocity, Stimulation, Expansion
Goal 2	Australia is Known for Its Great Art and Artists	예술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예술창작을 촉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작 개발을 독려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확대함	Strength, Adventure, Excellence, Diversity
Goal 3	The Arts Enrich Daily Life for All	모든 국민들이 예술창작 및 향유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예술에 대한 감상기회 확대를 통해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예술의 변혁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Abundance, Inclusion, New Generation, Leverage
Goal 4	Australians Cherish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Arts & Cultures	원주민예술 및 Torres Strait Islander의 문화가 호주 예술의 일부로서 그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원주민 예술 및 문화적 전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 호주국민들의 이들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원주민 및 Torres Strait 후손들이 그들의 문화적 전통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함	Enrichment, Brilliance, Belonging, Journey

* 출처: ACA(2014a) A Culturally Ambitious Nation: Strategic Plan 2014-2019 에서 제시된 내용을 표로 재구성하였음.

4.3.1. 사업영역 및 구조⁴⁹⁾

- ACA의 사업영역은, 앞서 살펴본 잉글랜드 및 캐나다 예술위원회와는 달리, 독특하게 구조화되어 있음
 - 예술위 사업영역 분류의 기준으로 흔히 활용되는 예술진흥 접근의 유형(한국, ex. 창작, 향유)이나 예술장르별 지원체계(캐나다)가 아니라, 호주를 대표하는 공연예술기관들에 대한 지원(고급예술중심), “개인예술가/단체에 대한 지원”, 시의성과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정부주도 프로젝트”, “중소규모의 예술기관 성장을 위한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세분화되어있음
 - 상기 사업영역 분류는 ACA의 연차보고서에서도 동일한 틀로 활용되며, 연차보고서

49) 2015년 7월 기준으로, 아직까지 NPEA 운영이 공식화되지 않았으므로, 해당기관에 대한 분석은 본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음. NPEA의 향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호주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015년 7월 현재, 호주 정부는 NPEA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임시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피드백을 7/31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7/31일 이후 대중의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음. <http://arts.gov.au/nationalexcellenceprogram> (2015.07.27. 최종접근)

내용의 구성 역시 이들 4개 영역의 성과 및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음

<표 II-24> 2013/2014년도 호주예술위원회(ACA) 예술지원사업 영역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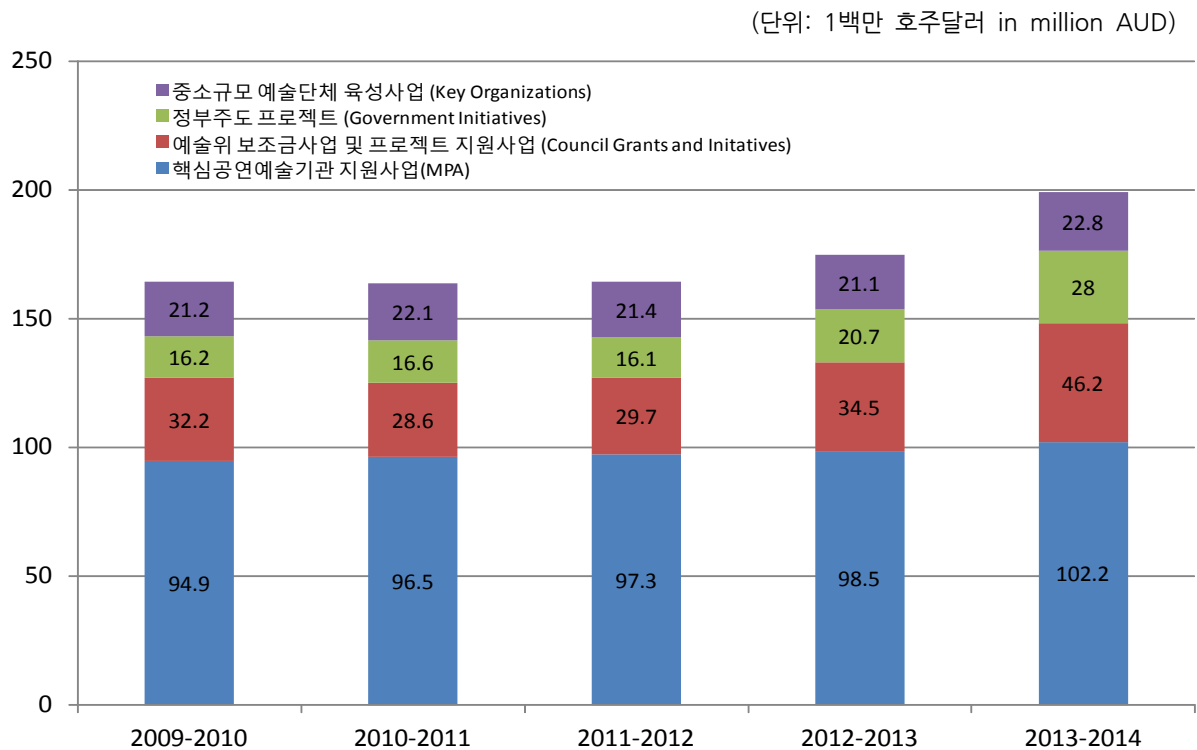
(단위: 1백만 호주달러)

사업영역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비율)
핵심공연예술 지원사업 (Major Performing Arts, M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14년기준, 총 28개의 공연예술기관에 대한 집중지원 · 장르별로는 무용, 연극, 서커스, 오페라, 클래식음악(오케스트라, 실내악단) 등 5개 분야를 아우름 ·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기관들은 The Australian Ballet, Opera Australia 등 호주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연예술기관들이며, MPA로 통칭됨 	102.2 (51%)
예술위 보조금 및 프로젝트 지원사업 Council grants and initia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예술가 및 기관 대상 예술보조금(Grants) 지원사업으로, 영역은 예술 전 장르를 망라함 · 무용, 음악, 문학, 연극, 시각예술, 실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 그 외 예술가들의 커리어개발 지원사업, 시장/관객개발 지원사업, 지역파트너십 지원사업, MPA와 Key Orgs로 지원받는 기관들의 특별프로젝트를 (집중)지원하는 부가적 사업인 Grants and Initiative Funding for Arts Orgs 등이 포함됨 	46.2 (23%)
정부주도 프로젝트 지원사업 Government Initiat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기준 총 9개의 프로젝트 지원되었음 · Artist in Residence, ArtStart(예술전공자 창업지원), Australian Fellowships(펠로우쉽), New Work & Presentation Initiative(신작개발, 발표지원), Creative Communities Partnership Initiative(지역별 예술향유 증진을 위한 지원), Major Festivals Initiatives(공연예술작품 페스티벌 지원), National Regional Programs(공연/전시 지역순회공연 및 투어 지원), Get Reading!(독서캠페인), Sounds Australia(호주음악 해외수출 지원), Visual Arts & Crafts Strategy(시각예술,공예 창작 및 전시지원) · 상기 9개 중,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받은 사업은 National Regional Programs(지역순회공연 및 투어지원)로 총 \$11.4 million이 지원되었음. 	28.0 (14%)
중소규모 예술단체 육성사업 (Key Organiz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예술기관을 선정, 이들의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년간의 예산(multi-year funding)을 지원함. · 지원대상으로 두 개의 Torres Strait 지역 오케스트라 기관이 포함됨 · 원래 6년 주기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2015년 이후 4년 주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22.8 (12%)
사업비 총액	199.2 (100%)	

* 출처: ACA(2014b)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nnual Report 2013-2014, pp.16-29 내용 바탕으로 재구성

○ 지난 5년간 상기 네 영역의 사업비 변화추이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핵심공연예술기관 지원사업(MPA)’이, 전체사업비의 51%~60%정도 선을 차지하여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뒤이어 “예술위 보조금 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사업(Council Grants and Initiatives)”이 평균 19-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두 영역이 ACA사업의 핵심 영역이라고 파악할 수 있음

- 연도별 추이를 기준으로 ‘핵심공연예술기관 지원사업’은 전체 ACA 사업비 대비 2009/10년 57.6%, 2010/11년 58.9%, 2011/12년 59.1% 등 지속적으로 증가 선에 있다가, 2012/13년 56.3%, 2013/2014년 51.3%로 상대적인 하향추세에 있음
- 반면,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시각예술을 포함한 전 장르에 걸친 예술가, 예술단체 및 기관들을 지원하는 ‘예술위 보조금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비중은 특히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으며, ‘정부주도 프로젝트 지원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그림 II-27] 호주예술위원회(ACA) 사업영역별 예산변동 추이 (2009-2014)⁵⁰⁾

50) ACA (2014b) Annual Report 2013-2014, p.16에서 제시된 ‘Figure .1-Grants & Program Funding Overview’를 재구성하였음.

〈표 II-25〉 호주예술위원회(ACA) 사업영역별 사업비 비중변화 (2009-2014)

(단위: 1백만 호주달러(in millions AUD), %)

구분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사업비	%
핵심공연예술기관지원사업(MPA)	94.9	57.6%	96.5	58.9%	97.3	59.1%	98.5	56.3%	102.2	51.3%
예술위 보조금사업 및 프로젝트지원사업 (Council Grants and Initiatives)	32.2	19.5%	28.6	17.4%	29.7	18.0%	34.5	19.7%	46.2	23.1%
정부주도 프로젝트 (Government Initiatives)	16.2	9.8%	16.6	10.1%	16.1	9.7%	20.7	11.8%	28	14%
중소규모 예술단체 육성사업 (Key Organizations)	21.2	12.8%	22.1	13.4%	21.4	13.0%	21.1	12.0%	22.8	11.4%
예술지원 사업비총액	164.5	(100)	163.8	(100)	164.5	(100)	174.8	(100)	199.2	(100)

*출처: ACA (2014b) Annual Report 2013-2014, p.16에서 제시된 'Figure .1-Grants & Program Funding Overview'를 재구성하였음.

- ACA의 예술지원은 기본적으로는 창작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 예술장르별 지원비중을 분석하면, 고급예술이면서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오페라, 발레, 클래식음악, 연극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CA는 2015년 9월 1일 이후, 새로운 펀딩모델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는 앞서 설명한 NPEA 설립으로 인한 호주 예술지원체계의 이원적 구조화에 따른 변화임. 핵심공연예술기관 지원사업(MPA) 및 중소규모 예술단체 육성사업(Key Organizations) 등은 ACA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NPEA와의 사업영역 조정은 현재 “정부주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해당 영역 중 일부가 NPEA로 이관될 예정임(ACA, 2015)

-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CA는 고급예술 중심의 전통적인 예술지원 접근방식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NPEA는 보다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예술창작과 제작을 지원하고 예술기관과 민간영역 간 활발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4.3.2. 재원구조 및 규모

- ACA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예산의 평균 96~97%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술지원과 관련된 모든 재원이 정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다고 볼 수 있음. 그 외 일부 투자수입 및 공간대여 수입 등이 있으나 전체 예산구조 상에서 극히 일부인 3~4% 정도를 차지함

〈표 II-26〉 호주 예술위원회(ACA) 재원구조 및 규모

(단위: in thousands of australian dollars 호주달러 \$'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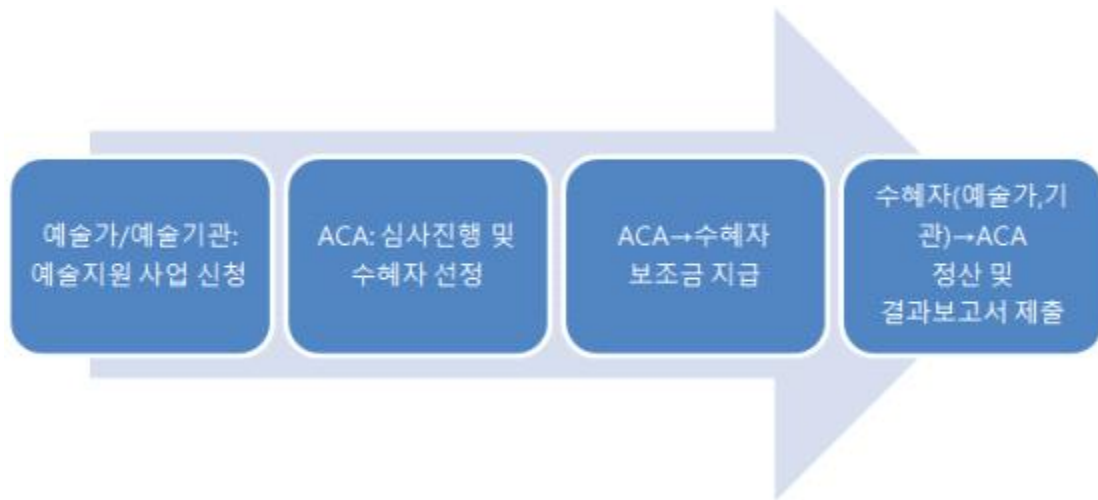
구분	2014	비율	2013	비율
정부지원금(국고) Income from the Government	220,664	96.7%	191,450	95.8%
이자수입 Interest	3,147	1.4%	2,971	1.5%
기타 Other	4,416	1.9%	5,375	2.7%
총 재원규모⁵¹⁾	228,227	100%	199,796	100%

* 출처: ACA (2014b)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nnual Report 2013-2014, pp.108에서 제시된 표를 재구성

4.3.3. 사업추진체계

- 전술한 바와 같이 ACA의 경우 사업영역 범주화가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예술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공모형식의 직접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 예술가 및 예술기관이 공모지원을 신청하고, 이후 수혜자선정 - 보조금지급 - 결과 보고서 제출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51) ACA (2014b: 108) 'NOTE 17: Reporting of Outcomes'에서 제시된 실제 변동내역이 반영된 최종수치임.



[그림 II-28] 호주예술위원회(ACA) 예술지원사업 추진체계

4.4 해외사례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잉글랜드), 캐나다, 호주 예술위원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해외 예술위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세 국가에서 모두 예술위원회는 전 국가적 차원의 예술지원 관련 독자적인 위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팔길이 원칙에 의거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예술지원 전담기구로 기능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최근 NPEA의 설립으로 인해 예술지원관련 이원체제로 변화할 예정이나, ACA는 여전히 전통적인 예술지원과 관련된 독자적 위상을 유지할 것을 보이며, NPEA는 ACA의 기능을 보조하는 한편 보다 대중적인 예술창작과 예술분야의 민간 파트너십 독려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어 당분간 ACA의 예술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둘째, 세 국가의 예술위원회 사업영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모두 예술창작지원에 방점을 두고 지원사업 및 사업영역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지점임
 - 향유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영국(잉글랜드)·캐나다·호주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기관들의 핵심미션을 ‘예술의 수월성 진작’과 ‘예술가 및 예술기관의 창작 및 제작지원’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예술지원 사업영역 역시 이를 기반으로 응집되어 있다는 지점임

- 이들 중, 현재 영국(잉글랜드)의 경우, ACE의 전략적 목표로 예술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국가보조금(Grant-in-Aid)은 문화전담 중앙정부부처인 DCMS가 아닌 교육부(DfE)를 통해 지원받고 있음. 이는 영국의 현 문화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2010년 정부예산삭감 이후 ACE의 예술정책 지향이 예술의 수월성, 창작지원 중심으로 선회한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역시 최근 예술지원 펀딩모델을 새롭게 제시하고 변화를 꾀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창작지원을 중심으로 한 예술지원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셋째, 영국(잉글랜드)·캐나다·호주 예술위원회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국고지원에 기반을 두고 이뤄져 있으며,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예술정책 집행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임
- 세 국가 중, 캐나다와 호주는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거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영국(잉글랜드)는 이들과 달리 국고보조금과 복권기금으로 구성된 이중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과 복권기금의 비중이 6.5:3.5로 되어 있어 정부의 직접지원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영국(잉글랜드) 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현재 경제위기로 인한 내수경제 악화와 지속적인 정부예산 감축으로 인해 향후 3년 동안(2015-2018) 복권기금이 개별 예술가 및 단체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보조금 사업(Grants for the Arts)”의 주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는 것임. 이는 이전까지 예술보조금 사업의 주재원이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되었던 것과 대조됨. ACE가 복권기금 전입을 통해 예술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작년 말 발표된 이후, 영국 예술계는 이러한 정부계획이 원칙적으로 복권기금의 보조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며, 기존 예술지원 재원구조의 불안정을 야기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의 의지가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영국정부는 복권기금 전입을 통한 예술보조금사업 지원이 정부 재정위기 상황에서의 임시적 방편이라고 반박한 바 있음
 -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영국(잉글랜드) 내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조금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넷째, 사업추진체계에 있어 영국(잉글랜드)·캐나다·호주 예술위원회는 모두 공통적으로 공모를 통한 직접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예술가 및 예술기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 영국(잉글랜드)의 경우, 일부 예술교육 관련 사업에 있어 간접지원 방식을 활용하기도 하나, 예술위의 핵심사업인 예술가/예술기관 지원사업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직접지원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표 II-27> 잉글랜드-캐나다-호주 예술위원회 사업영역, 재원구성 및 사업추진체계 비교도표

구분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Arts Council England)	캐나다 예술위원회 (Canada Council for the Arts)	호주 예술위원회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예술위의 기능 및 위상	팔길이 원칙에 의거,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되는 예술지원 관련 전담기구 (1946 설립)	팔길이 원칙에 의거,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되는 예술지원 관련 전담기구 (1957 설립)	팔길이 원칙에 의거,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되는 예술지원 관련 전담기구 (1973 설립)
사업영역 및 구조	이중구조 국고보조금 사업 + 복권기금사업	핵심사업: 예술보조금사업(Grants+ 수상사업(Prizes) 기타사업:	① 핵심공연예술기관 지원사업(MPA) ② 예술보조금 및 프로젝트 지원사업 ③ 정부주도 프로젝트 지원사업 ④ 중소규모 예술단체 집중지원사업
	창작지원 중심 (예술가·예술기관 중심)	창작지원 중심 (예술가·예술기관 중심)	창작지원 중심 (예술가·예술기관 중심)
재원구조 및 출처	이중구조 (국고보조금 + 복권기금)	단일구조 (국고보조금 중심)	단일구조 (국고보조금 중심)
	국고보조금과 복권기금 = 65%:35% 비율	전체 재원의 95~96%가 정부의 국고지원으로 구성	전체 재원의 95~97%가 정부의 국고지원으로 구성
사업추진체계	· 직접지원방식 공모형식을 통한 예술가/단체/기관으로의 보조금(Grants) 지급 · 일부 예술교육 사업의 경우 간접지원의 방식을 취함 (Music Education Hubs, 등)	직접지원방식 공모형식을 통해 예술가/단체, 예술기관으로의 보조금(Grants) 지급	직접지원방식 공모형식을 통해 예술가/단체, 예술기관으로의 보조금(Grants) 지급

Ⅲ. 문예진흥기금 사업 현황 및 실태

1.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구조 및 내용 분석⁵²⁾

1.1.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구조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크게 ‘예술창작역량강화’, ‘생활속예술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 예산은 2013년 대비 229%, ‘생활속예술활성화’사업은 5.5%,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20.7%,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사업은 93.6% 증가함
 -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 중에서도 ‘예술창작지원’사업은 267%, ‘예술인력육성’사업은 297.2%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84.4% 증가했음
-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은 39.6%, 생활속예술활성화 사업은 35.2%,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14.3%,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은 10.9%을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대비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의 비중은 19.2%에서 39.6% 증가한 반면 ‘생활속예술활성화’사업은 전년대비 17.9% 감소함
 -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 중에서 ‘예술창작지원’사업은 30%, ‘예술인력육성’사업은 4.7%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5.0%의 비중을 차지함

52) ‘1.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구조 및 내용 분석’ 본문과 표의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도별 사업설명자료(2014년, 2015년)와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재구성하였음

〈표 III-1〉 문예진흥기금 분야별 사업비 비중(2013-2015)

(단위 : 백만원, %)

	2013예산	비율	2014예산	비율	2015예산	비율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109,441	100.0%	174,043	100.0%	152,181	100.0%
예술창작역량강화	20,958	19.2%	68,948	39.6%	46,450	30.5%
예술창작지원	14,214	13.0%	52,162	30.0%	31,702	20.8%
예술인력육성	2,044	1.9%	8,118	4.7%	8,118	5.3%
국제예술교류지원	4,700	4.3%	8,668	5.0%	6,630	4.4%
생활속예술활성화	58,121	53.1%	61,300	35.2%	63,121	41.5%
지역문화예술진흥	20,560	18.8%	24,820	14.3%	24,820	16.3%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9,802	9.0%	18,975	10.9%	17,790	11.7%

1.1.1. 예술창작역량강화

-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예술창작·표현활동 지원, 신진예술가의 육성 및 예술국제교류 활동 증진을 목표로 함
 - 세부사업은 다시 ‘예술창작지원’사업, ‘예술인력육성’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예술창작지원’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융복합예술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함

1) 예술창작지원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목적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및 융복합예술 장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창작여건 조성임
 - 법령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임
 - 197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개시 이후, 예술창작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사업분야임
- 2014년 예술창작지원 총 사업비는 52,162백만원으로 2013년 대비 37,948백만원 급증

〈표 III-2〉 2014년 예술창작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건)

사업명	'13 예산 (국고)	'14 계획	증감	예산비율	지원건수
예술창작지원	14,214 (17,532)	52,162	37,948	100%	
문학창작지원	2,550	3,200	650	6.1%	180
시각예술창작지원	2,550 (1,033)	4,633	2,083	8.9%	62
공연예술창작지원	7,000 (16,499)	42,099	35,099	80.7%	346
융복합예술창작지원	2,114	2,230	116	4.3%	38

- 2014년에는 국고사업의 대규모 이관으로 공연예술창작지원 분야 예산비율이 전체 예술창작지원 예산의 80.7%를 차지하게 됨
 - 공연예술창작지원은 창작뮤지컬지원과 전통예술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2014년 '문학창작지원'사업 예산은 3,2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50백만원 증가했음
 - '문학행사및연구지원'사업 예산은 4배 증가했으며, 각 기초사업별로 예산이 소폭 상승함
 - 2013년까지 진행된 '작고문인선집발간지원사업'은 2014년 종료되었음
 -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의 경우 총 93건 중 55건이 선정되어 59.1%의 높은 선정비율을 보임
 - '문학행사및연구지원'사업도 신청건수의 절반 이상이 선정됨(55.0%)

〈표 III-3〉 2014년 문학창작지원사업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건)

기초사업명	주요내용	예산	신청	선정	선정비율
문학창작활동지원	등단 5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만 36세 이상) 우수작가 지원	1,000	99	954	10.4%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우수 문예지 및 문학 분야 우수 기관지의 발간을 지원	1,000	55	93	59.1%
사이버문학광장운영	온라인 기반 플랫폼(사이버 문학광장) 운영	500	-	-	-
문학집필공간 운영지원	전국단위 창작집필공간 2년간 지원	500	-	4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민간단체 문학행사, 조사 연구 활동 등	200	40	22	55.0%
계		3,200			

- 2014년 ‘시각예술창작지원’사업 예산은 4,63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83백만원 증가했음
 - ‘사립미술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 사업은 2013년까지는 국고 사업이었으나 2014년부터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이관되었고,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신설됨
 -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사업의 경우 총 31건 중 사립미술관은 12건(443,000,000원), 대안공간은 19건(807,000,000원)으로 대안공간이 61.2%를 차지함
 - ‘시각예술행사지원’사업에 선정된 총9개 단체 중 3개(33.3%)는 전시공간지원에도 선정된 단체(기관)임
 -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사업을 통해서는 등록 사립미술관 45개관에 큐레이터 62명, 48개관에 에듀케이터 48명을 파견, 110명의 전문 인력 일자리를 창출함
 -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작가 소개 콘텐츠의 활용도가 높으며, 이는 해외 전시 기회와 진출에 발판이 되고 있음

〈표 III-4〉 2014년 시각예술창작지원사업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건)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백만원)	신청	선정	선정비율
시각예술창작및 전시공간지원	민간에서 운영 중인 사립미술관, 대안공간, 창작스튜디오 등 다년(2년)지원	1,250	32	31	(2년차)
시각예술행사지원	대규모 시각예술 전시 및 기획행사 지원	500	79	9	11.4%
시각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	최근 3년 이상 활동을 해오고 있는 비평가 개인과 단체의 학술행사, 발간 연구 활동 지원	150	41	16	39%
사립미술관 네트워크 활성화	국내 국·공·사립 미술관 간의 정보 교류 활성화 - 시행주체: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 온라인미술관소식지 Art Museum 운영 및 뉴스레터 발행	121	-	-	-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	등록사립미술관의 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인건비 지원 - 시행주체: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1,240	-	-	-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지원	한국현대미술작가들의 해외홍보를 위한 사이트 운영(한국어, 영어) 및 온라인 전시추진	200	-	-	-
합계		3,461			

- ‘공연예술창작지원’분야는 2014년도부터 사업을 세분화하여 사업성격에 따라 재원과 관리기관을 분리하면서, 신규 및 폐지, 국고사업으로의 이관 등 변화가 많았음⁵³⁾

- 2013년까지 진행되었던 ‘공연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은 기초공연활성화사업으로 통합하고 ‘공연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사업은 토토기금으로 추진하게 됨
 - 폐지사업(3개): 공연예술브랜드화사업, 공연예술활성화글로벌역량강화, 우수공연예술단체대관지원
 - 신규사업(3개): 기초공연예술활성화지원, 공연연습공간조성·운영지원, 시민참여형예술프로젝트
 - 국고이관사업(8개): 공연예술활동지원, 신년음악회, 세계합창대회, 계기별전통예술행사 지원(이관 후 통합), 창작뮤지컬육성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공연예술활성화 기반조성,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 국고에서 이관된 ‘창작뮤지컬육성지원’사업의 경우 단계별 지원을 통해 21편의 신규 창작뮤지컬이 발굴되고 10편이 초연되는 성과를 거둠
 - 전통분야의 경우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사업이 국고에서 이관되어, 2,779백만원의 예산으로 별도의 사업이 운영됨

53) 참고로 2015년 공연예술행사지원, 전통공연예술지원사업은 관광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공연연습장조성운영지원사업과 공연예술활성화기반조성지원의 일부사업(안전지원센터운영)은 일반회계(국고)로 이관되었음

〈표 III-5〉 2014년 공연예술창작 지원사업 주요내용

구분	예산(백만원)	주요내용
공연예술행사 지원	6,100	- 비공모사업 : 한국오페라축제 등 9건 3,870백만원 - 공모사업 :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등 29건 2,230백만원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	340	- 공모사업 : 한국연극협회 등 27건 340백만원
창작뮤지컬육성 지원사업	5,000	- 공모사업 : 60건 3,210백만원 - 인력육성지원 : 78명 신청 / 24명 선정 지원 - 연구용역사업 : 3건 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5,000	- 연극창작산실 : 58건 지원 2,000백만원 - 무용창작산실 : 33건 지원 1,400백만원 - 오페라창작산실 : 9건 지원 1,000백만원 - 음악창작산실 : 8건 지원 600백만원
공연예술활성화 기반조성	1,580	- 공연예술실태조사 : 2건 1,000백만원 - 공연장안전센터운영지원 : 120개소 4,800백만원 - 공연예술분야 경연대회 및 지원사업평가 : 공연예술 23, 전통예술 59개 대회 3,000백만원 - 문예회관 공연유통활성화 및 기반조성 : 700백만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문예회관 종합컨설팅 지원 · 문예회관 아카데미 · 문예회관 운영 현황조사 · 제주 해비치아트 페스티벌
기초공연활성화 지원	10,800	- 대관료지원사업 : 410개 단체 6,700백만원 -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 79개 공연장 100명 배치 2,000백만원 - 공연예술기획 및 경영인력지원 : 83개 단체 132명지원 2,000백만원 - 미등록공연장 지원사업 : 27개 공연장 지원 100백만원
공연연습공간조성 및 운영지원	10,000	- 공연연습장 조성지원 : 서울, 부산, 대구, 춘천, 청주 등 5개소 시설 신설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2,779	- 한국민속예술축제 : 문예진흥기금 782백만원(지방비 1:1 매칭) - 전통풍물활성화상설공연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10개 신진단체 400백만원 - 전통예술산업콘텐츠개발 :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개발 250백만원 -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7개 단체 285백만원 - 전통연희 활성화 : 창작공모 7개 작품, 창작연희상설공연, 페스티벌 662백만원 - 국악창작곡개발 : 국악방송, 7개팀 200백만원 - 신진국악실험무대 : 2개 공연장 200백만원 천차만별콘서트(북촌창우극장), 별의별 춤(성균소극장)
계		41,599

- ‘융복합예술창작지원’사업은 ‘융복합예술 창작지원공간 운영(아르코미술관운영)’, ‘융복합 예술창작지원’사업, ‘창작매개활동지원(예술가의집운영)’사업으로 구성됨
- 2014년 ‘예술창작지원’사업 분야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기초예술창작지원 예산을 확대하였음

- 문학, 시각, 공연예술 등 분야별 특성화 프로그램, 창작단계별 지원 시스템 운영
- 지원금 직접 지원 사업보다 간접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 공연장대관료지원 등 기초공연예술활성화 지원, 공연연습장 조성·운영(3개소)
- 지원 작가, 단체, 작품의 수준을 높여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다년지원사업의 경우 모니터링제도를 통해 현장 점검과 평가를 강화해 사업수준이 낮거나 변경이 많을 경우 지원을 중단함
 - 지원금의 비중이 높은 사업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반환 조치
 - 멘토링제도, 워크숍, 현장인력 재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으로 예술가와 작품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 ‘융복합예술’의 경우 기성 장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실험적인 예술 및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을 별도로 지원해 왔으나, 장르간, 타 분야간 융합이 보편화되면서 통합을 고려해야할 시점임

2) 예술인력육성

- ‘예술인력육성’사업을 통해서는 예술현장의 성장동력 확충과 창작활성화를 위해 신진예술인력, 문화예술매개인력, 무대예술인력 등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문화예술분야 연수를 통해 실무능력 배양과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법령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 제30조(문화예술위원회의 직무)
- 2014년 사업 예산은 8,118백만원으로 3개 사업의 국고 이관으로 2013년 대비 6,074백만원 증가함
 - 국고에서 이관된 3개의 사업은 전국무용수센터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임

〈표 III-6〉 2014년 ‘예술인력육성’ 사업내용

사업명	예산(백만원)	주요내용	비고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1,500		
▪ 문학	250	연4회 단계별지원	사이버문학광장활용
▪ 시각예술	300	신진기획자 인큐베이팅	인사미술공간활용
▪ 공연예술	950	창작자(만35세이하)지원 실연자(만24세이하)지원	예술인력개발원
○예술인력재교육	6,618		
▪ 예술인력개발원운영	500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개발원운영	
▪ 무대예술전문교육	248	국·공립 및 민간 공연장 종사자, 공연업(프로덕션) 종사자 등 무대예술전문인	예술인력개발원
▪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252	무대예술전문인 대상 국제워크숍 4회, 일반인 대상 초청강연 4회	예술인력개발원
▪ 전국무용수센터지원	1,000	‘상해재활 및 예방’, ‘국내 댄서스 잡마켓’, ‘직업개발(무용재활트레이너양성지원), ‘한마음축제 및 심포지엄’ 등	(재)전문무용수지원 센터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4,568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의 인턴, 국·공립 예술단체 연수단원 운영 지원	16개 주관단체 지정
▪ 전통예술기획자양성 프로젝트	50	전통공연예술분야 기획, 제작 등 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 (30명 이내, 참가비 5만원)	(재)전통공연예술진 흥재단
총계		8,118	

-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3개 분야 모두 만 3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예술인력육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지원방식은 분야별 예술창작지원사업과 유사함
- ‘예술인력재교육’분야에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과 같은 신규 인력파견형 사업과 전국무용수센터지원과 같은 기관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2014년에는 예술인력 교육지원을 통한 신규 기획인력 육성과 청년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확대함

3) 국제예술교류지원

-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목적은 각종 국제 문화예술행사 참가 예술인·단체 지원 및 해외 우수 기관 교류를 통한 국내 문화예술단체 글로벌 역량 강화, 해외 예술창작 거점 확보임

- 순수예술분야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국외진출사업을 확대하여 한류 기반을 조성하고 확산을 도모
 - 향후 국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장기적, 집중적 관점의 지원
- ‘한국문화예술세계화’분야의 사업은 해외 우수 문화예술기관 및 인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예술교류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가들의 창작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히, 민간영역에서 접근하기 힘든 국제 문화예술 우수 기관들과 협력하여 예술가들의 국제문화예술 교류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술가들의 자생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분야 대륙별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지역 51%를 차지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진출과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7〉 2014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 대륙별 선정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유럽	북미	아시아	기타	계
결정건수 (국가/총 결정건수비율)	105(51%)	30(15%)	51(25%)	19(9%)	205
결정금액	2,388,180	725,000	818,600	508,600	4,440,380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실적보고서, p.515.

- 분야별 지원결정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시각예술(36.4%), 무용(15.2%), 전통예술(14.4%), 연극(12.1%)순서로, 시각예술분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8〉 2014년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 분야별 지원결정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문학	시각예술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계
결정건수 (분야/총 결정건수비율)	15(5.7%)	96(36.4%)	40(15.2%)	32(12.1%)	26(9.8%)	38(14.4%)	17(6.4%)	264
결정금액	359,080 (4.9%)	2,860,400 (39.2%)	481,600 (6.6%)	1,038,300 (14.2%)	1,300,000 (17.8%)	1,032,800 (14.2%)	225,800 (3.1%)	7,297,980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실적보고서, p.514.

- 2014년에는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아리랑세계화, 전통예술텍스트번역 및 해외전통예술보급 3개 사업의 국고 이관으로 전체 사업규모가 증가함⁵⁴⁾
 - ‘아리랑세계화’사업 중 일부사업은 국제교류보다는 국내공연행사지원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와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아트마켓 팸스 초이스(PAMS Choice) 선정작품의 해외진출 공연을 지원하는 ‘아르코-팸스(ARKO-PAMS) 협력사업지원’사업을 신설함

〈표 III-9〉 2014년 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내용

구분	예산(백만원)	주요내용
문화예술교류및협력	4,059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2,000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 지원
국제교류 중기기획 프로젝트지원	100	리서치, 조사연구, 네트워킹, 제작·발표 전 단계 활동
ARKO-PAMS 협력사업지원	400	2005년~2013년 팸스 초이스 선정 작품의 해외초청 공연 지원
국제음악기획 프로젝트지원	1,000	2014 통영국제음악제 및 2014 DMZ 피스 프로젝트 사업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559	- IFACCA, 홍콩예술발전국,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몽골예술위원회, 등 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 사업 - 해외 예술인 초빙 사업 총 25회 18개국 102명 교류
한국문화예술세계화	4,609	
한국예술주간행사	300	2014 벨기에 한국예술특집행사, 2014 시티오브런던 페스티벌 ‘서울 인더 시티’개최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	2,000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노마딕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민속음악축제파견 등),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한국문학세계화, 서울아트마켓지원사업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1,280	2014 코리안아트쇼, 아트에디션 2014 홍콩 등 11개 사업 참가 지원
아리랑세계화	729	지역아리랑활성화, 융복합아리랑공연, 아리랑 페스티벌, 아리랑글로벌 콘텐츠제작, 지역아리랑 음반제작
전통예술텍스트번역 및 해외전통예술보급	300	청소년 전통예술단 연수 및 공연, 해외국악문화학교 사업 (국립국악원 연계), 국제국악연수(국립국악원 연계),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지원
총계		8,668

- ‘국제교류지원’사업의 강화로 작가들이 세계로 진출하며 한국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

54) 2015년에는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중 한국예술주간행사지원은 통합되었으며,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사업 내의 ‘한국문학세계화’는 폐지, 아리랑세계화는 일반회계(국고)로 재이관되었음

를 거두고 있음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사업은 총 156,431명(일 평균 1,036명) 관람, 황금사자상 수상 성과
- 문학, 전통예술, 시각예술 등의 분야별 지원을 통한 예술 한류 기반 구축
- 저명예술인의 해외 진출을 집중 지원하여 한국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

1.1.2. 생활속예술활성화

- ‘생활속예술활성화’사업은 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및 문화충돌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향유’목적의 사업으로 구성
 - 법령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제4호 ‘문화예술진흥사업’
 - 세부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공연나눔(소외계층문화순회, 사랑티켓, 방방곡곡 문화공감), 창작나눔(생활문화공동체지원)으로 구성되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함
 - 2003년 12월부터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폐지되면서 복권기금은 기존의 문화향수사업에 대한 대체 재원의 성격을 갖게 됨

〈표 III-10〉 2014년 ‘생활속예술활성화’ 사업내용

사업명	예산(백만원)	비고
통합문화이용권	40,866	-카드사업: 전용 카드발급(연간 가구당 10만원, 청소년 5만원 추가) -기획사업: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 위해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소외계층문화순회	10,000	-공모사업 및 기타시설 순회사업: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임대주택, 군부대, 교정시설, 산업단지공단 등 -기획사업: 문화향유 사각지대를 세부 타겟별로 구분하여 추진
사랑티켓	1,251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공연·전시관람료 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7,983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문예회관과 국립예술단체 공동제작 지원 -문화가 있는 날 특별프로그램 지원
생활문화공동체지원	1,200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단지,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의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활동 지원
총계		61,300

- 2013년까지 진행된 ‘문학나눔’, ‘전시나눔’사업과 창작나눔 중 장애인사업은 국고로 이

관됨

- '문학나눔'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전시나눔'은 '토요문화학교'사업과의 유사성이 지적되었음
- 2014년에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도입으로 향유대상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음
 - 기존 3개 이용권(문화/여행/스포츠관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분야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함
 - 통합이용권 분야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영화가 41.2%로 가장 많으며, 도서 33.9%, 문화일반 14.4%순으로 나타남
 - 카드이용률은 2013년 92.6%에서 2014년 94.7%로 전년대비 2.3% 상승함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2014년부터 사업 주관기관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하였음
 - 문화소외지역 집중순회를 위한 '아르코 문화나눔 순회사업단'을 발족하여 쪽방촌, 섬마을 등 격오지 소외지역순회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
 - 초연 작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창작지원사업과 차별화
 - 2014년에는 총 1,419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285개 단체(20.1%)가 선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202개의 예술단체가 총 2,001회의 순회공연을 실시함
 - 주 공연지역은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임대주택, 군부대, 교정시설, 쪽방촌, 산업단지공단 등임
- 2014년 '사랑티켓'사업의 예산은 총 23.4억으로 2011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 대비 48.4%이상 감소하였음
 - 수혜대상은 어르신(65세 이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이며, 지자체와 1:1매칭으로 시행
 - 2014년 선정된 참가작품수는 2,531개이며 선정작품의 분야는 아동극이 4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연극 28.8%, 뮤지컬 12.5%순 임
- 2014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사랑티켓'사업의 지역주관처를 지역문화재단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개 사업의 지역주관처가 민간단체인 경우 현행 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시도)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일원화하도록 함
 - 2014년 일원화 지역: 광주, 강원
 - 2015년 일원화 지역: 부산, 인천, 대전, 전남, 경남, 충남
 - 2016년 일원화 예정 지역: 서울, 경기

〈표 Ⅲ-11〉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및 사랑티켓 지역주관처 현황

시도명	문화이용권	사랑티켓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좋은공연만들기협의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사랑티켓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재단	대구문화재단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한국예총 광주광역시연합회
대전광역시	대전문화재단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울산광역시	울산문화바우처협의회	한국예총 울산광역시연합회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한국예총 춘천시지부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한국예총 충남연합회
전라북도	(사)문화연구 창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전라남도	전남문화예술재단	한국예총 전남연합회
경상북도	성주금수문화예술마을	한국예총 경북연합회
경상남도	경남문화재단	한국예총 경남연합회
제주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2014년부터 국고에서 이관되어 문예진흥기금으로 추진되었으며, ‘지방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과 ‘국립예술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함
 -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전액 국고지원이었으나 2014년부터 매칭으로 전환함
 - 2014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재정자립도 40% 이하 광역시 소재 문예회관도 포함시킴(서울제외)
 - 전체 수혜자 412,733명 중 소외계층은 119,327명(28.92%)으로 의무초청 비율 25%를 초과 달성함

-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은 문화적(임대아파트, 서민 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경제적(영세민, 노인 등) 소외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 3년 동안 연속지원함
 - 2014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로 사업 주관처 이관
 - 2014년에는 31개 단체를 지원했으며 사업지속성을 위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체계 마련(춘천 낭만골목추진위원회, 안산 감골주민회)과 자치단체 혹은 타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경북 칠곡 예술마당 숲, 부산 영도문화원)의 성과를 거둠

1.1.3. 지역문화예술진흥

-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격차 해소를 기본방향으로 함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예진흥기금의 용도), 제36조(협의체의 구성)

〈표 III-12〉 2014년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내용

사업명	예산(백만원)	주요내용
○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24,590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6,190	-17개 광역시도 지역 예술창작활성화 -지역간 예술 교류·협력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8,400	-공연예술 전 분야(음악,연극,무용,전통,다원예술) 상주공연장 작품제작 공연 -지역주민을 위한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문화나눔 등) -상주단체 간 상호교류 프로그램
○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운영	230	
▪ 지역문화협의체운영	170	17개 광역시도와 문화재단 간 지역문화예술 지원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및평가	60	17개 시도 및 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
총계	24,820	

- 2014년에는 지역문화예술의 균형발전과 특성화를 위해 지역문화예술지원규모 확대
 - 2013년 206억원에서 2014년 248억원으로 20.7%증가(지방비 매칭 별도)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자율적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의 기반 구축
 - 2009년부터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세부사업)이 16개 시·도로 이관되었음
 - 2013년까지는 지역이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시한 세부사업과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2014년부터는 포괄적으로 제시한 사업 유형 범위 내에서 각 광역시도가 자체적으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함
 - 지역에서 사업 선택 및 예산 배정 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후평가하도록 함
 - 지역문화예술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집중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 창작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공모사업’ 운영

〈표 III-13〉 2014년 17개 광역시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선정 결과

(단위: 건, 백만원(지방비 매칭예산 포함))

세부사업명		지원건수	지원결정총액	건당 지원액
일반공모사업(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4,287	23,163	5.4
집중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58	3,090	53.3
	우수기획지원	150	3,796	25.3
	우리가락우리마당지원	10	1,350	135.0
	소계	218	8,236	37.8
총계		4,505	31,399	7.0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실적보고서, p.739.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2014년도 신규 공모 시 2년간(2014~2015년) 지원대상 선정
 - 2014년에는 16개 시도의 120개 공연장, 총 170개 상주단체 지원
 - 상주단체의 해외진출과 중앙(서울 및 수도권) 진출, 공연 관련 수상 등 성과

-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운영’사업을 통해서 지역문화협의체인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평가를 위탁함

〈표 III-14〉 2014년도 17개 광역시도 문예진흥기금 배분(안)

(단위 : 백만원)

시도명	사업명	문예진흥기금	지방비	계
1 서울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2,367	3,337	5,70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1,634	1,634	3,268
	소계	4,001	4,971	8,972
2 부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943	2,706	3,64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83	207	690
	소계	1,426	2,913	4,339
3 대구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663	2,590	4,253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39	261	700
	소계	2,102	2,851	4,953
4 인천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746	746	1,49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73	473	946
	소계	1,219	1,219	2,438
5 광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609	775	1,38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83	317	800
	소계	1,092	1,092	2,184
6 대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659	838	1,49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344	147	491
	소계	1,003	985	1,988
7 울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568	629	1,19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303	135	438
	소계	871	764	1,635
8 세종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00	106	20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0	0	0
	소계	100	106	206
9 경기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228	1,228	2,456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800	800	1,600
	소계	2,028	2,028	4,056
10 강원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941	941	1,88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90	210	700
	소계	1,431	1,151	2,582
11 충북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674	774	1,44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366	157	523
	소계	1,040	931	1,971
12 충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729	745.5	1,474.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383	164	547
	소계	1,112	909.5	2,021.5
13 전북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954	2,293	3,247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53	194	647
	소계	1,407	2,487	3,894
14 전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831	1,131	1,962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16	237	653
	소계	1,247	1,368	2,615
15 경북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750	750	1,5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19	179	598
	소계	1,169	929	2,098
16 경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899	899	1,79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474	203	677
	소계	1,373	1,102	2,475
17 제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629	629	1,258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280	120	400
	소계	909	749	1,658
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5,290	21,117.5	36,407.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8,240	5,438	13,678
	소계	23,530	26,555.5	50,085.5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10), 2014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설명자료. p.233.

1.1.3.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은 민간 예술기부 확대 등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가치 확산 및 예술지원정책의 지식 기반 구축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함. 여기에는 ‘예술정책 실행력 제고’사업과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포함됨
 - 법령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제1항(문예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기금의 용도),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2014년 ‘문화로인사합시다’와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사업은 국고에서 이관됨

〈표 III-15〉 2014년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내용

사업명	예산(백만원)	주요내용
○ 예술정책실행력제고	1,700	
▪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발간	700	-기관정책과 문예진흥기금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 -문예연감, 한국현대예술소개시리즈, 아르코웹진 등 발간
▪ 기초예술정책연구조사	500	기관 경영활동 및 예술현장에 관한 정책연구조사 및 정책연구 성과 확산활동
▪ 예술가종합지원실운영	100	공모사업·일자리·해외진출 등 예술가 상담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안내)
▪ 예술정책실행력제고(평가)	400	지원사업평가, 모니터링, 성과확산활동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15,533	
▪ 기부금사업	9,695	기부관리시스템 고도화(조건부기부, 순수기부)
▪ 문화예술기부활성화	5,400	-후원활성화활동지원: 예술나무운동 -기업과예술의 만남활성화: 기업-예술단체 매칭펀드지원
▪ 원로문예인복지지원	238	원로문예인 대상 연금식 지원(일몰제)
▪ 문화로인사합시다	200	중소기업중앙회 위탁: 문화예술교육, 찾아가는 공연
○ 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1,742	- 인건비, 운영비 - 사업비(한국미술 글로벌 플랫폼 구축,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운영, 미술시장 실태조사,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총계	18,975	

- ‘예술가종합지원실운영’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예술가에게 공모사업, 일자리, 해외진출 등 상담 지원

-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을 통해서는 전 사회적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 대국민 캠페인 ‘예술나무운동’ 등 모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기업과예술과의 만남’ 사업은 한국메세나협회에 위탁하여 기업과 예술단체간의 결연을 통한 매칭펀드 조성
 - 기부금 사업을 통해 2014년 총 5,900건, 216억원의 모금 실적 달성
 - 예술지원 매칭펀드 총액이 증가하면서(8억원->18억원) 참여기업도 90개에서 165개로 늘어남

- ‘원로문예인복지지원’은 1990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원로문예인들에게 매월 일60만원을 연금식으로 지급해 오던 사업으로, 2005년 이후 일몰제 사업으로 전환하여 신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있음

- ‘문화로인사합시다’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중소기업 예술교육 사업 지원, 중소기업 CEO문화경영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공연지원, 중소기업 예술참여 인식제고 등 세부사업을 진행함

1.2.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 재원 구조

1.2.1. 문예진흥기금 운용규모

- 2014년 문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2013년 445,095백만원에서 2014년 614,724백만원으로 38.1% 증가함
-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재정의 19.6% 총 재정의 10.9%를 차지하며, 이는 2013년 기금 재정과 총 재정에서 각각 2.5%와 2% 증가한 수치임

〈표 III-16〉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예산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예산기금 (A)	'14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5,016,296	5,645,613	629,317	12.5
《 예 산 》	2,386,402	2,506,899	120,497	5.0
○ 일반회계	1,599,711	1,658,883	59,172	3.7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50,430	666,938	16,508	2.5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36,261	181,078	44,817	32.9
《 기 금 》	2,629,894	3,138,714	508,820	19.3
○ 문예진흥기금	445,095	614,724	169,629	38.1
○ 영화발전기금	352,955	365,277	12,322	3.5
○ 지역신문발전기금	16,421	13,118	△3,303	△20.1
○ 언론문예진흥기금	58,079	51,233	△6,846	△11.8
○ 관광진흥개발기금	777,463	893,038	115,575	14.9
○ 국민체육문예진흥기금	979,881	1,201,324	221,443	22.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01). 201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p.16.

-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는 174,043백만원으로 2013년 109,441백만원 대비 59%증가함

〈표 III-17〉 2014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계획 (A)	'14계획 (B)	증감 (B-A)	
				%
합 계	445,095	614,724	169,629	38.1
사 업 비	109,441 (30,587)	174,043	64,602	59.0
기금운영비	12,895	12,721	△174	△1.3
내부거래	5,335	129,500	124,165	2,327.4
여유자금운용	317,424	298,460	△18,964	△6.0

1.2.2.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예산 구조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과 국고나 토토기금 등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4년 운영한 사업은 총 89건으로 지원금액은 2,100억원 규모임. 이 가운데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된 규모는 1,740억여원(82.8%)이며, 수탁사업으로 360억여원(17.2%)이 지원됨

〈표 III-18〉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및 지원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건수	사업금액	비율(%)
문예진흥기금 사업	58	174,043	82.8%
수탁사업	소계	36,051	17.2%
	국고	11,050	5.3%
	토토기금	12,950	6.2%
	관광기금	10,225	4.9%
	경륜경정적립금	700	0.3%
	고용보험기금	1,126	0.5%
총계	89	210,094	100.0%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수탁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 중 국고 규모는 110억원이며, 4종류의 기금 중 가장 큰 지원규모를 보이는 토토기금은 129억원으로 전체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3%, 6.2%를 보임
- 수탁사업 각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고사업(4):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건립 리모델링 사업,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 문화예술인 패스
 - 토토기금사업(8):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 소외계층지원, 주요정책사업 지원,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문화자원봉사활성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문화융성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지원
 - 관광기금사업(1): 통합문화이용권(여행)
 - 경륜경정공익적립금사업(1):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
 - 고용보험기금(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 특정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였다가 국고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고, 국고로 지

- 원하였다가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음. 2014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국고)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이관된 사업 예산 규모는 총36,234백만원(9건)임
-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지원, 공연예술활성화(보조), 공연예술산업 육성,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예술창작활동 지원(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미술관 운영지원, 전통공연예술 활동지원사업
 - 2013년에는 총예산 7,587백만원(국고 2,883백만원, 기금 4,704백만원)으로 운영되었던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국고 2,883백만원은 2014년 모두 기금으로 이관됨(2014년 총예산 7,983백만원)

〈표 III-19〉 2014년 기금-국고 사업 이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13재정 (A)	'14재정 (B)	증 감 (B-A)
예산 → 기금		31,087	25,601	△5,486
일반→문예진흥 기금	○공연예술활성화(보조)	10,930	8,230	△2,700
	○공연예술산업 육성	722	722	-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200	200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4,568	4,568	-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2,883	-	△2,883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3,500	5,000	1,500
	○예술창작활동 지원	2,702	1,800	△902
	○미술관 운영지원	1,033	1,033	-
기금 → 일반(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5,805	6,000	195
문예진흥기금→ 일반	문학나눔	3,930	4,000	70
	전시나눔	787	800	13
	창작나눔	1,068	1,200	132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4.01). 201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p.152.를 바탕으로 재구성

- 반면 2013년 문예진흥기금으로 진행되었던 사업 중에서 일반회계(국고)로 이관된 사업은 문학나눔(4,000백만원), 전시나눔(800백만원), 창작나눔(1,200백만원)으로 총 3개(6,000백만원)임
- 2013년 총2,268백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 ‘생활속예술활성화’의 창작나눔사업은 ‘장애인창작활동지원(1,068백만원 감)’사업의 국고 기관으로 ‘생활문화공동체’(1,200백만원) 지원사업만 남음

〈표 III-20〉 2013년 문예진흥기금으로 이관된 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13년(기금)	'14년(국고)	이관사업('14년 예산)
계	5,805	6,000	
문학나눔	3,930	4,000	우수도서 선정 및 보급(14,204)
전시나눔	787	800	토요문화학교 운영(20,687)
창작나눔	1,068	1,200	함께누리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 및 향유지원(5,500)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2014년도 국회확정값 기준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중앙재원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세부 사업은 6개로 매칭된 지방비는 총 50,109백만원임
 - 이는 전체 문예진흥기금 사업비(174,043백만원)와 지방비를 더하면 총 사업비는 224,152백만원 규모가 됨
- 중앙재원과 지방비 매칭 비율은 '통합문화이용권'은 70:30, '사랑티켓'은 50:50,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은 50:50~33:67로 이뤄지고 있음

〈표 III-21〉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매칭비율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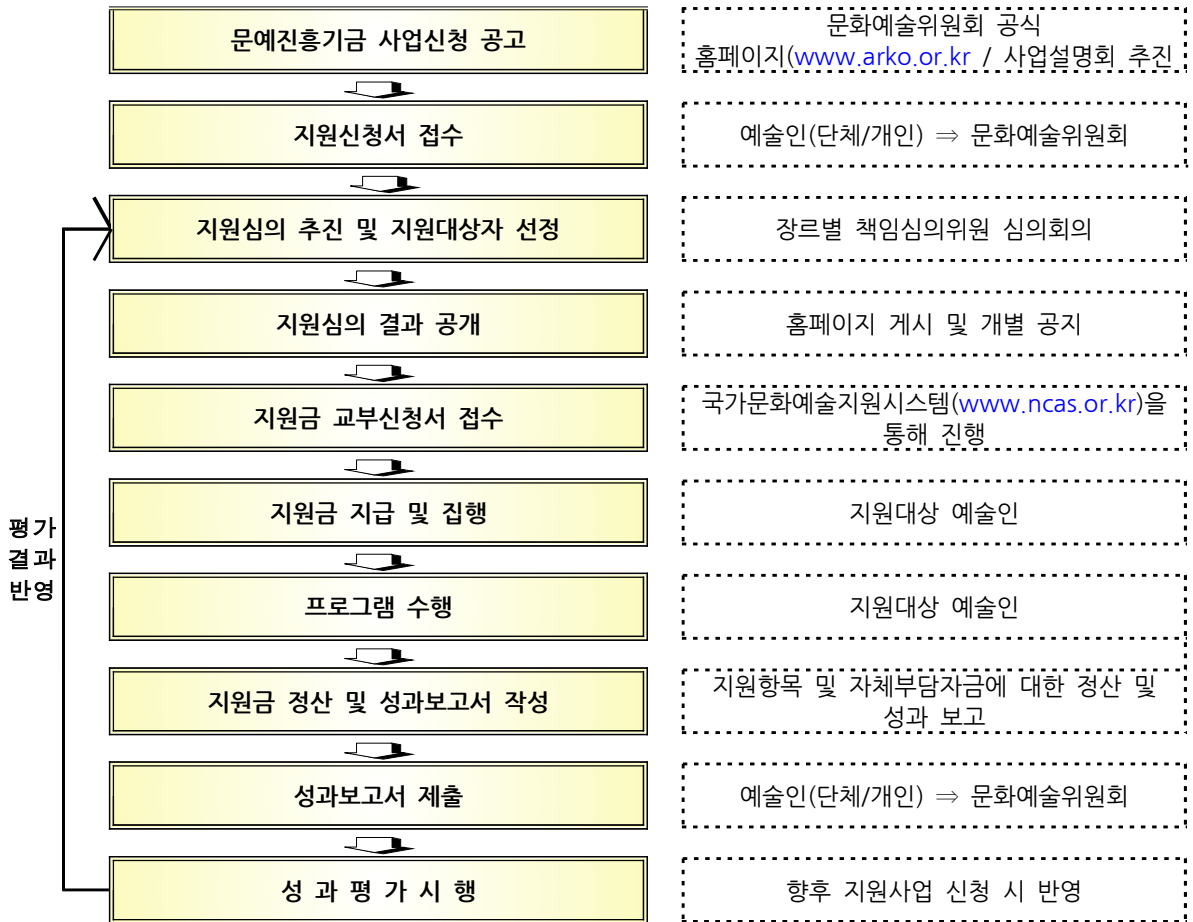
구분	중앙재원	지방비	합계	매칭비율	
계	76,218	50,109	126,327	-	
○ 공공미술사업운영	300	284	584	50:50	
○ 한국민속예술축제	172	782	954	20:80	
○ 통합문화이용권	복권기금	39,411	16,890	56,301	70:30
	관광기금	10,105	4,508	14,613	70:30
	공익사업적립금	700	-	700	100:0
	소 계	50,216	21,398	71,614	70:30
○ 사랑티켓(복권기금)	1,000	1,089	2,089	50:50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6,190	21,118	37,308	50:50~33:67	
- 배분 확정	(15,290)	(21,118)	(36,408)	(42:58)	
- 배분 미확정	(900)	-	-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8,340	5,438	13,778	70:30~50:50	
- 배분 확정	(8,240)	(5,438)	(13,678)	(60:40)	
- 배분 미확정	(100)	-	-	-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설명자료. p.17.

1.3.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추진 체계

-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추진체계는 위원회가 직접 사업으로 자체 진행하는 사업과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위원회 직접수행사업은 선정된 예술가나 예술단체에게 지원금이 직접 집행되며, 사업공모, 신청서 접수, 심의, 지원자 선정, 교부신청서 접수, 지원금 집행, 프로그램 수행, 성과보고서 제출, 성과평가의 순으로 진행됨

〈표 III-22〉 문화예술위원회 직접 수행사업 추진절차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위원회가 사업비를 교부한 주관처(보조사업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는 ‘사립미술관전 문인력지원’(한국사립미술관협회), ‘생활문화공동체지원’(한국문화원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이 있음
-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은 2013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14년 한국문화원연

합회로 보조사업자가 변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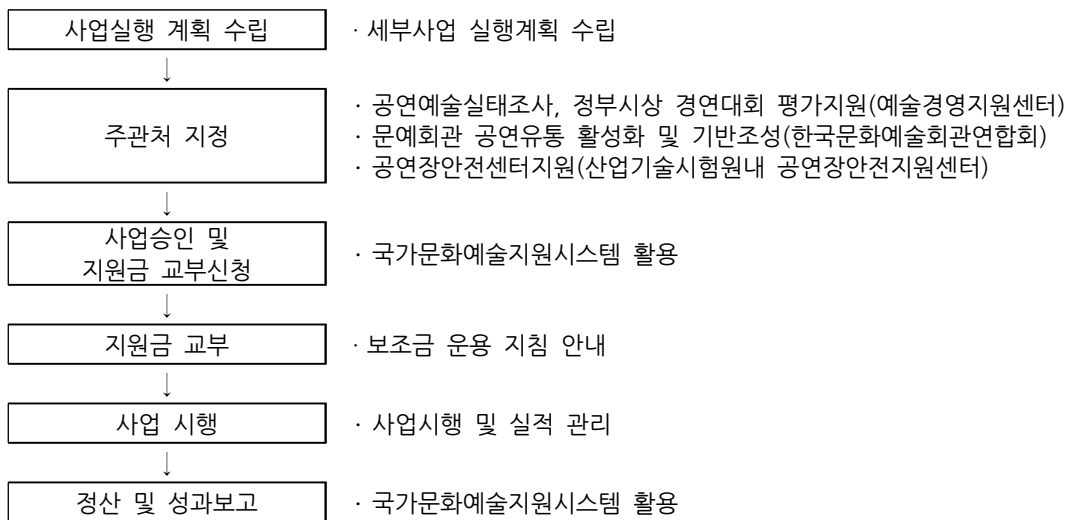


[그림 III-1] 2014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 추진체계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처에 지원금을 교부하면, 주관처에서 사업수행단체를 공모하여 사업을 진행한 후 정산과 성과보고를 하는 절차로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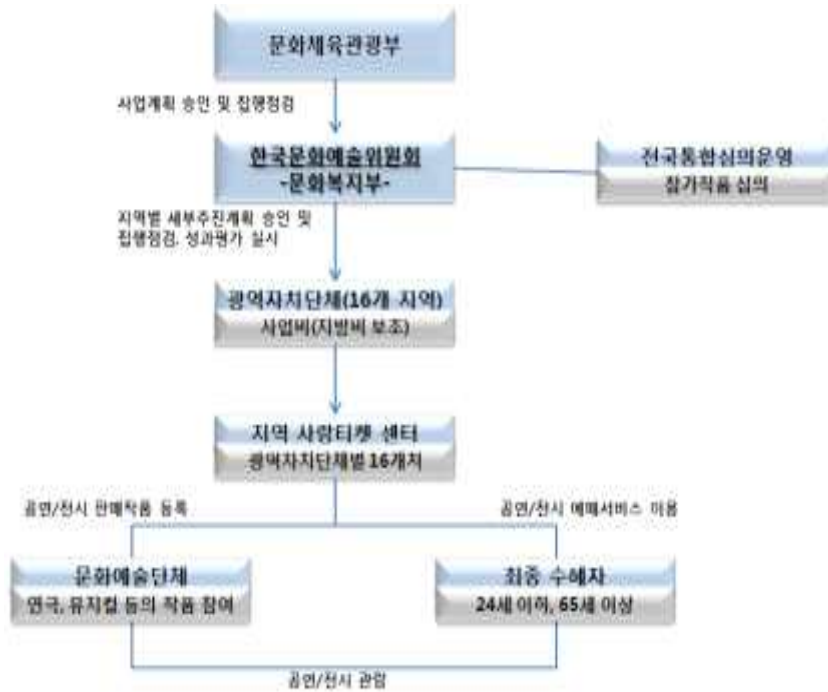
<표 III-23> '공연예술창작지원' 주관처 지정사업 추진절차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자료

- '통합문화이용권', '사랑티켓'사업은 중앙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에게 사업

비를 교부하고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역별 지정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임



[그림 III-2] 사랑티켓사업 추진체계

- 복권기금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경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방문예회관, 프로그램수행단체 간 역할분담체계가 갖춰 있음

<표 III-24>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기관별 역할체계

기관명	역 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총괄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추진방침 확정
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추진 관리 감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사업 실행 관리 - 예술단체 선정 및 프로그램 보급 - 문예회관 선정 - 사업관리(공연변경, 추가, 공연요청 대응 등) -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평가 총괄 · 홍보 총괄
협력기관 (지방문예회관)	· 공연신청 접수 · 사업 및 공연 홍보 · 소외계층 25%이상 의무초청 준수 ·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정산 · 성과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수행 단체	· 공연 실행

-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총 38개임. 문예진흥기금 사업 시행 주관처 (보조사업자)를 예산 비중으로 살펴보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29.0%), 예술경영지원 센터(7.8%),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7.4%)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5〉 2014년 문예진흥기금 시행주체별 예산비율

시행주체(보조사업자)	예산(백만원)	비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9,449	29.0%
예술경영지원센터	2,542	7.8%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426	7.4%
한국사립미술관협회	2,392	7.3%
한국메세나협회	2,300	7.1%
명동극장	2,000	6.1%
예술의전당	1,350	4.1%
한국문화원연합회	1,200	3.7%
전문무용수센터	1,000	3.1%
국악협회	714	2.2%
한국민속예술축제추진위원회	610	1.9%
한국화랑협회	580	1.8%
세계합창대회조직위원회	550	1.7%
국악방송	516	1.6%
한국연극협회	500	1.5%
기타(23개)	4,494	13.8%
합계	32,623	100.0%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설명자료 재구성

1.4. 분석 및 시사점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유망한 예술가를 육성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작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사업명과 사업목표에 우수 작가, 우수 작품, 우수 공연 등 ‘우수성’을 강조
 - 1차, 2차, 3차의 단계별 경연 방식 활용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연계
 - 다년지원사업의 경우 평가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업수준이 낮은 경우 2차년도 지원을 중단함
 - 예술가와 작품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워크숍, 재교육, 컨설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음

- 지역단위로는 지역문화재단에서 별도의 창작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전국의 우수한 작가, 작품들이 모이는 전국 단위의 공모사업인만큼 선정건수를 늘이기 보다는 최소한의 선정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일부 기관 및 단체, 협회에서 대규모 행사지원과 공간지원, 창작지원을 동시에 받아 지원금이 중복,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나타남
 - 특히 관행적인 선정이 지속되어 오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 문예진흥기금 창작지원사업은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을 표방하면서, 창작자보다는 단체, 기관, 행사, 연구, 인력 중심의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됨
 - 2014년 ‘공연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의 폐지로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사업을 제외하고는 창작자나, 공연작품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공간이나 기획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예술작가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음
- ‘국제교류 중기기획프로젝트’, ‘국제문화기관 협력지원과 같이 민간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 프로젝트는 문화를 통한 국가 위상을 높이는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집중할 수 있는 사업영역임
 - 2014년 황금사자상 수상의 성과를 거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지원’사업이 좋은 사례임
- 2014년도 운영 사업을 기준으로 문예진흥기금 내부 사업간에도 유사성을 가진 사업들이 있어 사업내 편제 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국제교류플랫폼 협력지원사업(노마딕 레지던스프로그램 참가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내에서 유사한 기초사업 진행
- 또한, 세부사업 내에서 사업의 목표, 사업명과 영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간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사업은 기초사업 내에 다시 수많은 개별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사업 단위의 조정이 필요함
 - ‘예술창작지원’사업 내에서는 장르별로 인력파견형 사업(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운영지원, 공연예술 스테프 지원), 교육사업,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교류지원

- 사업내에도 교육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예술인력육성’사업에 속해있는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지원사업)은 신진 예술인 창작지원사업으로 통합 검토 필요
 - 각 장르와 유형별로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파견형 사업의 재분류 검토
- 전통분야는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별도의 기초사업(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타 기초사업에도 하나의 장르로 포함되어 중복지원 되었음
- 이는 2014년 국고사업이관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2015년부터는 다시 관광기금 사업으로 이관되었음

2. 2014년 타 기관의 문화예술지원사업 구조 및 내용 분석

- 2014년 문예진흥기금 세부사업의 분류체계와 주요 기관별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을 기준으로 지원사업을 분류하고 세부항목별로 유사성을 검토하였음
- 문예진흥기금 세부사업 분류: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예술가치확산
 - 기관별 주요사업 분류: 국제교류, 교육(인력양성), 문화예술교육, 문화향유, 예술인복지, 예술지원
- 문예진흥기금 세부사업 분류체계로 비교할 경우 각 기관별로 동일한 사업이 많은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사업의 목적과 내용, 수혜대상과 지원분야 등 일부 항목이 동일하다고 해서 중복사업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부항목별로 유사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검토해 보았음
-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예진흥기금사업의 ‘공공 및 민간부분의 다른 사업과의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⁵⁵⁾
- 유사사업의 주요 판단기준은 시행주체, 사업목적, 수혜대상, 사업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원조건 등) 사업방식, 기대효과 등 총 6개 항목임
 - 수혜대상의 자격기준, 사업내용 등에서 타 사업과 구분되는 점과 이를 통해 타 기관 사업과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음

55)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표 III-73>와 ‘2014년 문예진흥기금 사업 실적보고서’ 참고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그 수가 많고 사업내용도 다양해서 모든 개별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음
-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신청시 타 기관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한 사업은 유사사업으로 봄
-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문예진흥기금 시행주체(보조사업자),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기관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금 수혜대상의 중복 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이외 간접지원 유형의 사업 중에서도 중복수혜가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 파악함
- 창작지원사업은 동일 분야에 사업내용까지 유사할 경우 연령, 활동기간 등에 따른 지원대상의 자격(신진, 중견, 원로), 지원기간(다년, 단년) 등 세부조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함
- 교육사업은 교육 분야, 지원 대상의 자격 기준(예비 및 신규, 현장인력), 인력파견사업은 유사 직종대상 사업인 경우 파견인력의 경력 정도(인턴, 중견)에 따라 재분류하여 유사성 검토
- 국제교류사업은 사업의 목적을 기준으로, 해외진출, 레지던시와 네트워크 구축 등 기반 조성, 우수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한국예술세계화 구분하여 유사점과 차이점 파악
- 향유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에 수혜지역과 수혜대상의 중복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봄
 - 수혜대상과 지역이 소외계층과 일반인 대상인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과 문화소외지역인지 여부로 구분
 - 같은 향유목적이라도 향유의 방식이 교육을 포함한 체험형인지 감상형인지에 따라 사업의 유사성 파악

2.1. 예술경영지원센터

2.1.1. 기관개요

- (재)예술경영지원센터⁵⁶⁾는 2006년 1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는 데 있음
- 재단 정관에 의하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예술 유통과 경영지원, 국

⁵⁶⁾ 기관 분석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www.alio.go.kr)의 기관별 경영공시 자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사이트(www.gokams.or.kr)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음

제교류 지원업

- 1.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 2. 예술기관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 3. 예술기관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 4.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5.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관리·활용
- 6.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운영
- 7.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를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3대 전략목표로 ‘서울아트마켓 등을 통한 공연예술의 유통 활성화’, ‘예술단체 경영 전문화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예술정보 생산 및 활용 강화’를 내세우고 있음

〈표 III-26〉 2014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자원별 예산현황

사 업 명		2014년(백만원)	비율(%)
합 계		12,237	100.0%
문예진흥기금_예술경영지원센터지원		1,742	14.2%
1	경상운영비	500	4.1%
2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운영	522	4.3%
3	미술시장실태조사	90	0.7%
4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구축	130	1.1%
5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및 운영	500	4.1%
문예진흥기금		800	6.5%
6	서울아트마켓개최및운영	400	3.3%
7	공연및전통경연대회평가	300	2.5%
8	공연예술실태조사	100	0.8%
일반회계		2,074	16.9%
9	한류아카데미	350	2.9%
10	시각예술 글로벌 기획인력 육성	490	4.0%
11	'15-'16한-불상호교류의해조직위사무국설치운영	234	1.9%
12	생활문화센터운영활성화기반구축	1,000	8.2%
관광기금		4,020	32.9%
13	공연 및 전통예술 해외전략거점진출 지원사업	2,000	16.3%
14	대표적 공연예술축제 관광자원화 지원사업 평가	100	0.8%
15	제3차한-아세안문화예술포럼	200	1.6%
16	권역별 해외한국문화원 순회패키지 사업	1,200	9.8%
17	한-중문화예술포럼	200	1.6%
18	2014한-일 수교기념 친선음악회 사업	170	1.4%
19	세계문화페스티벌	150	1.2%
기타보조금(체육투표권적립금)		3,050	24.9%
20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1,100	9.0%
21	문화예술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활성화지원	250	2.0%
2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400	3.3%
23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파견	500	4.1%
24	공연예술 글로벌 역량강화	200	1.6%
25	2014 생활문화동호회전국축제 등 활성화 지원	600	4.9%
자체사업		551	4.5%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경영공시(www.alio.go.kr)

- 2014년도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산을 자원별로 살펴보면 관광기금이 3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보조금(24.9%), 일반회계(국고) 16.9%, 문예진흥기금 6.5%순으로 나타남

- 개별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은 ‘공연 및 전통예술 해외전략거점 진출지원’사업(16.3%)이며 다음은 ‘권역별 해외한국문화원 순회패키지’사업(9.8%)으로 모두 국제교류 관련사업임

〈표 III-27〉 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변화(2010-2015)

사업구분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전문예술법인단체운영지원	370	333	320	400	772	742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지원	4,111	3,316	2,876	4,139	5,654	5,100
조사연구사업	300	290	680	240	690	690
평가사업	655	429	354	400	400	460
인력양성사업	1,600	900	1,430	1,450	1,450	1,420
위탁용역사업	254	714	365	290	358	497
문화바우처 평가 및 교육	35	130	-	-	-	-
한국 미술글로벌 플랫폼 구축사업	-	-	130	130	130	130
시각예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사업	-	-	-	490	490	500
예술경영지원센터 운영지원 (경상운영)	-	-	-	-	500	815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기반구축	-	-	-	-	1,000	1,500
생활예술동호회 활성화지원	-	-	-	-	600	2,000
미술품 감정기반 구축	-	-	-	-	-	1,365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	-	-	-	-	-	730
사립미술관 교육체험프로그램지원	-	-	-	-	-	1,400
작가 미술장터 개설 지원	-	-	-	-	-	1,000
시각예술 도록·자료 번역 지원	-	-	-	-	-	300
합계(백만원)	7,325	6,112	6,155	7,539	12,044	18,649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경영공시(www.alio.go.kr)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사업과 한국예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국제교류사업으로 볼 수 있음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의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력양성사업 12.0%순임(2014년 결산 기준)
 -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지원’사업은 2010년 이후 2012년까지 감소했다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였음

- 인력양성사업도 2011년을 제외하고는 일정 규모(2015년 1,420백만원)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시작한 시각예술분야 사업은 국고사업의 이관으로 2015년 급증함
 - 시각예술분야의 ‘한국 미술글로벌 플랫폼 구축’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시각예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사업(VIA프로젝트)는 2013년 시작됨
 - 2015년 시각예술분야 국고사업 4개가 이관되면서 예산은 4,795백만원 증가함

2.1.2. 유사사업현황

1) 인력양성사업

□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양성사업

-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양성사업’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현장배치 지원’은 문화예술 기획·경영분야 신규인력의 현장진출 경로를 확보하고 현장 배치를 통한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구축하여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제고하는 사업임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599개 단체에 674명의 인력을 지원함
 - 2014년에는 52개 단체에 61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월 임금 120만원 지원

〈표 III-28〉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현장배치지원’사업 추진실적(2007-2014)

	2007	2008	2009	2010	2010	2012	2013	2014	합계
단체	98	108	106	55	65	59	56	52	599
인력	116	124	117	61	73	59	63	61	674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사이트(http://www.gokams.or.kr/02_edu/expert.aspx)를 바탕으로 재구성

- 지원대상은 민간 공연장 및 단체, 기획사, 전문예술법인 등이며 국·공립단체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 문화예술단체, 민간 공연장, 민간 공연예술단체
 - 기획사 및 프로덕션, 공연예술관련 상설 축제조직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공연예술단체

- 지원내용은 현장배치인력 인건비의 일부(120만원)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임
 - 기획·경영 인력(배치 인력)단체 대표자와 배치인력 관리자 대상의 관련 교육 진행
- 단체에 배치하는 기획·경영 인력은 ‘공연기획·제작 등 해당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로 기획경영 분야 유경험자(2년 이내), 기획경영 분야 관련 대학원 전공자(수료이상), 관련 정부지원사업 청년인턴사업 수료자 중 1개 이상의 전공을 충족 시에 신청 가능함
-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사업,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지원’과 사업유형이 유사하며 수혜기관이 일부 중복되고 있음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채용연령을 만 35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경력 2년 이상의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를 중심으로 함
 - 국·공립 예술단체(158명)와 민간분야 예술단체(209명)에 창작, 실연, 학예연구, 공연기획·홍보·마케팅, 행정 등의 분야에 총 367명의 연수단원을 지원함
-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경력 2년 이상 전공자를 대상으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4개 분야를 지원함
 - 연극 38개, 무용 9개, 음악 13개, 전통 23개, 총 83개 단체 132명 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은 국·공립단체는 지원기관에서 제외하고, 관련 분야 유경험자(경력2년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I-29〉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현장배치지원’사업과 문예진흥기금 사업 비교

사업명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현장배치지원	기초공연활성화지원-공연예술분 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지원	문화예술기관연수 단원
재원	기타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주관처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16개 주관단체
사업 목적	- 문화예술 기획·경영분야 신규인력 의 현장진출 경로 확보 - 현장 배치를 통한 기획·경영 전문 인력 양성기반 구축 -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제고	- 창작여건 개선 - 민간공연예술단체 운영난 해소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의 인턴 연수를 통해 향후 진로에 필요한 실 무능력 배양 및 사 회진출 기회 제공
사업 내용	- 문화예술기획·경영분야인건비(120 만원)와 교육프로그램지원	- 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 인 력의 인건비(최대170만원)와 육지원	인 건 비 지원 (최 대 12개월, 120만원선)
지원 대상	- 기획경영 분야 유경험자(2년 이 내), 기획경영 분야 관련 대학원 전 공자(수료이상), 관련 정부지원사업 청년인턴사업 수료자 중 1개 이상	-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경력 2년 이상)	만 35세 이하 문화예술 관련 전 공자 중심
지원 규모	52개 단체 61명	83개 단체 132명	367명
수혜기 관	민간 공연장 및 단체, 기획사, 전문예술법인(국·공립 제외)	민간분야 공연예술단체	국·공립 예술단체 민간분야 예술단체
비고	자생력 강화 인력파견지원	일자리 창출	신규인력진출 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양성사업’ 중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사업은 문화예술 기
획경영 종사자의 실무능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재교육 프로그램임
 - 집합형 강의, 캠프형 워크숍, 소규모 학습공동체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현장
종사자에게 필요한 실무지식과 경력개발, 종사자간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함
 - 2007년부터 2014년 까지 177개 강좌에 9,373명이 수강

〈표 III-30〉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추진실적(2007-2014)

	2007	2008	2009	2010	2010	2012	2013	2014	합계
강좌(개)	5	16	29	28	19	23	29	28	177
수강인원(명)	375	706	1,802	1,932	1,099	1,072	1,272	1,115	9,373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사이트(http://www.gokams.or.kr/02_edu/academy.aspx)를 바탕으로 재구성

- 문화예술 기획경영 분야의 직군별 필요 실무 역량, 직무 응용 능력, 리더십, 자기 계발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획제작, 홍보마케팅, 조직경영 등 교육 대상자의 업무 특성에 맞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기획자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

- 예술경영지원센터와 문예진흥기금사업 모두 문화예술분야 기획 현장인력 재교육이라는 점에서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문예회관 아카데미’는 문예회관 종사자(국공립)만을 대상으로 하며, ‘뮤지컬 기획인력 육성’사업은 ‘뮤지컬’분야만으로 특화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 III-31〉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와 문예진흥기금사업 비교

사업명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창작뮤지컬육성지원 -뮤지컬 기획인력 육성	문예회관 아카데미
재원	기타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주관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사)한국뮤지컬협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목적	문화예술 기획경영 종사자의 실무능력 및 역량 강화	뮤지컬 전문인력양성 뮤지컬 저변 확대	문화예술회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지역간 문화적 격차로 인한 불균형 해소
사업내용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학습역량, 예술역량교육프로그램	핵심 역량교육 과정 운영 트랜스미디어 프로듀서과정,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과정, 뮤지컬콘텐츠 펀드매니저과정	기본과정(4개과정) 전문과정(6개과정)
교육대상	문화예술 기획경영 종사자(민간)	뮤지컬 기획경영 분야 실무자, 전공자 선착순 모집	문예회관 종사자(국공립)
비고	현장인력 재교육	현장인력 재교육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현장인력 재교육 전문성 강화

□ 한류아카데미 - 탁(TAK)

- ‘한류아카데미-탁(TAK)’는 전통문화예술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콘텐츠가 기획 제작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화 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창조적 영감의 원천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전통문화예술분야 사업이라는 점에서 문예진흥기금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사업과 유사하지만, ‘한류아카데미’는 창작콘텐츠 확산을 위한 교양강좌와 네트워킹 중심의 사업이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사업은 실무관련 강의를 중심으로 3개월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기획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III-32〉 ‘한류아카데미-탁’과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비교

사업명	한류아카데미-탁	전통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젝트
재원	국고	문예진흥기금
주관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내용	전통문화예술분야 콘텐츠 확산을 위한 정기강좌, 특강, 포럼 등 교육과 네트워킹 제공	전통예술분야 기획, 제작 등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3개월의 전문 아카데미 과정
교육대상	문화예술계 종사자 창작자 및 기획 제작자(온라인 신청)	전통공연예술 기획에 관심 있는 20명 1. 전통예술 관련학과 졸업예정자(4학년) 이상 및 졸업자 2. 전통예술인턴 참여 및 수료자(11년~13년) 3. 전통예술단체 1년 이상 종사자
비고	기존 인력 재교육 무료 교양강좌	신규전문 인력양성교육 실무강좌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양성 사업-넥스트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인 ‘NEXT’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역량강화 프로그램(NEXT ACADEMY), 국제문화교류 연구활동 지원사업(NEXT STEP),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및 예비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
- ‘NEXT ACADEMY’는 민간영역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획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국제문화교류 현장 실무형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직무역량, 예술역량, 장르(주제)특화로 커리큘럼 운영
 -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분야 국제문화교류 관련 3년 이상 경력 기획자를 대상으로 함
- 국제교류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재교육은 타 기관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임

2) 국제교류사업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국내예술단체 해외진출 지원,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정보 기반조성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 우수 문화예술가·단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인지도 제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권역별 전략 수립, 해외 투어 기금의 직접 지원, 국내외 홍보, 마케팅과 현지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의 간접 지원을 통합하여 지원함

〈표 III-33〉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 사업(2014)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국내예술단체 해외진출	센터스태이지 코리아 (Center Stage Korea)	해외공모(Focus) 및 국내공모(Tour)
	공연예술마켓 및 국제음악마켓 참가 지원	기획자(개인) 및 쇼케이스(단체) 지원
	전통예술 페스티벌 참가 지원	EFWMF 등 축제 참가 지원
해외문화홍보	해외문화원 패키지프로그램 순회	-우수한 공연 및 전시 -해외 한국문화원 거점 순회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	아카데미, 연구, 현장리서치, 인턴파견
	프로젝트 비아 (Project ViA)	조사연구, 워크숍 및 컨퍼런스 참가
국제협력	커넥션 사업 (KAMS Connection)	-한국-해외 공연예술 전문가들의 상호 교환 방문 리서치 지원 -국내-해외 공연예술 전문가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국제교류 정보 제공 및 기반조성	Weekly@예술경영	국내외 공연예술 및 예술경영과 관련된 지식·정보 웹진
	더아프로 (theApro.kr)	공연예술 국제교류 플랫폼 영문 뉴스레터 발송
	더아트로 (theArthro.kr)	현대미술 국제교류 플랫폼
	해외홍보 통합 홍보물(Into the Light)	전통음악 및 전통예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홍보물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서울아트마켓(PAMS)	한국공연예술 작품들의 합리적인 유통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공연예술 플랫폼
	월드뮤직 전문가 교류지원 (Journey to Korean Music)	해외 월드뮤직 전문가 초청

□ 해외전략거점진출 지원사업

- 우리 공연예술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국제 홍보활동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센터스태이지 코리아(Center Stage Korea)’사업은 한국공연예술작품의 해외진출과 국내 예술단체의 해외진출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특집 프로그램’과 ‘투어’로 구분하여 지원함
 - ‘포커스(Focus)’사업은 해외경쟁공모를 통해 해외협력기관을 발굴하고 ‘한국특집프로그램’을 협력 기획하여 세계무대에 국내예술단체와 작품을 전략적으로 진출시키고 홍보
 - ‘투어(Tour)’사업은 국내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해외투어를 지원하여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국제교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공연예술마켓과 국제음악마켓 참가는 기획자(개인)와 쇼케이스(국내 공연예술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함
 - 매년 싱가포르, 호주, 미국, 유럽 등에서 열리는 20여개 국제행사에 참가를 지원할 수 있음
- 전통음악 및 예술분야를 대상으로 권역별 주요 해외음악 축제 참여를 지원함
 - 유럽월드뮤직페스티벌포럼(EFWMF)은 한국공연예술단체 초청을 확정된 회원기관(유럽)이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직접 지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표 III-34〉 예술경영지원센터 센터스테이지코리아(Center Stage Korea) 지원사업

	센터스테이지 코리아(Center Stage Korea)	
	한국공연예술 특집 프로그램 지원 Focus	한국공연예술 해외 투어 지원 Tour
사업 목적	해외경쟁공모를 통해 해외협력기관을 발굴하고 '한국특집프로그램'을 협력 기획하여 세계무대에 국내예술단체 및 작품을 전략적으로 진출시키고 홍보	국내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해외투어를 지원하여 해외진출 활성화 및 국제교류 역량강화를 도모
지원신청	해외기관	국내 예술단체
특징	해외공모 (한국공연초청을 원하는 해외공연관계자 대상)	국내공모 (2개기관 이상 해외투어가 확정된 단체 대상)

□ 권역별해외문화원순회패키지 사업

- 한국의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발굴)하여 해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순회하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기금을 재원으로 함
 - 2014년 지원 공연: 국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들이 참여하는 축제형 음악공연 'MosaiKOREA'
 - 2014년 지원 전시: 〈텅 빈 충만 : 한국 현대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한국 단색화와 달항아리 작품 전시

〈표 III-35〉 예술경영지원센터 권역별 해외문화원 순회패키지 사업

	권역별해외문화원순회패키지 사업	
	공연	전시
공모대상	국내에서 기 창작, 발표되어 수상경력 또는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 연극, 무용, 음악, 다원 혹은 통합적 장르의 공연예술 작품	국내 또는 해외에서 한국 시각 예술의 경향을 제시하는 전시 기획 경험이 있는 전시 기획자(단체)의 시각 예술 기획안
지원신청 자격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단체 중 해외 진출 및 교류에 관심 있으며, 2015년 해외문화원 거점을 중심으로 순회가 가능한 단체	10년 이상 전시기획 경험을 가진 국내 전문 큐레이터 중 국내-해외 시각예술전문기관과 파트너십 차원의 협력 가능하며 2015년 해외문화원 거점을 중심으로 순회가 가능한 기획자(단체)

- 국제교류사업은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한국예술주간행사’,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해외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타 기관과의 유사사업이 많아 중복 지원이 결정될 경우 택일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문학, 시각, 공연 전분야에서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
-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MOU를 체결하고 ‘팸스(PAMS) 초이스’ 선정 작품의 해외 초청 공연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3) 기반조성사업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외 프로모션을 위해 국영문 전문 사이트 ‘더아트로(TheArtro)’를 운영중임
 - 국내외 현대미술의 최신 동향 및 이슈 소개, 전문가들의 전시 및 작가 크로스 비평, 작가, 미술전문가 인터뷰, 국내외 시각예술 전반의 지원사업 정보 및 레지던스 참가사례 등 제공
-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지원’분야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시각예술을 소개하는 ‘Korean Artist Project’홈페이지를 통해 한국현대작가들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있음
- ‘더아트로’는 시각예술 매거진 형식인데 반해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는 온라인 전시회 형태로 작가의 작품을 보다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표 III-36〉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구축’과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 비교

사업명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구축	시각예술창작지원 -코리안아티스트프로젝트
재원	문예진흥기금-예술경영지원센터운영	문예진흥기금
주관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사업목적	한국 현대미술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해외 프로모션을 위한 한국 현대미술 국제교류	다양한 장르의 역량 있는 한국현대작가들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에 소개하여 미술한류 주도
사업내용	더아트로 TheArto 사이트(eng.theartro.kr) 운영(한국어, 영어), 비평, 작가 인터뷰, 지원사업정보, 레지던시 소개	Korean Artist Project(www.koreanartistproject.com) 홈페이지 운영(한국어, 영어) 온라인 전시회
비고	매거진 형태 기반 조성	작가 포트폴리오 선정작가 소개 중심

- ‘해외홍보 통합 홍보물 지원(Into the Light)’사업을 통해서는 전통음악 음원을 선정해 해외에 배포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단체의 해외진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분야 ‘전통예술텍스트번역’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영어로 번역하여 해외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III-37〉 ‘해외홍보 통합 홍보물’과 ‘전통예술텍스트번역’ 비교

사업명	해외홍보 통합 홍보물(Into the Light)	전통예술텍스트번역
재원	-	문예진흥기금
주관처	예술경영지원센터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목적	- 한국전통음악 및 공연예술 해외소개 및 진출을 위한 전략적 홍보물제작 - 우수한 한국전통음악발굴을 통한 해외진출지원 및 홍보	- 우리 전통예술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도 향상 및 효과적 소개 - 전통예술에 대한 고유의 음악 및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져 보다 쉽게 한국 전통 예술을 이해
신청자격	한국 전통음악 및 전통예술에 기반을 둔 음악분야에서 활동 중인 단체/개인	비공모 사업
지원분야	전통음악	전통예술
사업내용	• Into the Light MUSIC OF KOREA(음반, 어플리케이션) 내 음원 수록 • 주요 해외 월드뮤직마켓 및 관계자 대상 배포	교재 및 영문번역 도서 출판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 번역, 악학궤범 영문번역
비고	해외진출 목적	전통문화 해외소개 목적

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2.1. 기관개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⁵⁷⁾은 2005년 2월 3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10조 및 부칙 제2조)에 근거해 설립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목적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 지원’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문화예술교육’임
 - 학교, 교육시설/단체 간 상호 연계 협력망 구축·운영
 -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평가, 교원의 연수지원
 -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문화예술교육사 양성 및 연수
 -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 확충
 -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수행
 -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14년 예산을 재원 출처별로 살펴보면 국고(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75.6%를 차지하며, 기금은 0.3%에 불과함
 - 2013년까지 진흥원이 주관하던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이 이관되면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음

57) 기관분석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영공시(www.alio.go.kr)에 공개된 정보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정감사 보고자료, 내부자료를 참조하였음

〈표 III-38〉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 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비율
총 계	109,737	114,652	100.0%
일반회계	82,219	86,626	75.6%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4,360	4,100	3.6%
·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36,108	41,908	36.6%
·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21,134	29,819	26.0%
· 전문인력 양성 연수	7	12	0.0%
· 토요일문화학교 운영	18,000	1,0687	9.3%
· 문화예술ODA	100	100	0.1%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개선	2,510	-	-
기금	1,480	300	0.3%
·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복권)	1,180	-	-
· 문화예술교육사제도 운영 (체육진흥투표권적립금)	300	300	0.3%
지방교육재정	25,238	27,347	23.9%
예술강사 지원	25,238	27,347	23.9%
자체수입	55	13	0.0%
특별회계	710	366	0.3%
기업사회공헌(법정기부금)	710	366	0.3%
기타수입금	37	-	-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4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p.6.

- 사업별로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예술치유사업’과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추가되었음
- ‘다문화 문화환경조성’사업은 2013년 이후로 중단되었으며, ‘전문인력양성연수’사업은 2010년 이후로 급감하였음

〈표 III-3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사업 변화(2010-2015)

사업구분	2010년 결산	2011년 결산	2012년 결산	2013년 결산	2014년 결산	2015년 예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1,795	2,405	3,809	4,259	3,921	4,897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51,048	52,852	57,155	60,615	68,863	69,340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9,525	8,594	16,532	20,122	27,205	29,719
문화예술 기반조성	258	-	-	-	-	-
전문인력 양성 연수	1,283	217	22	7	17	-
다문화 문화환경조성	1,010	292	332	2,169	-	-
문화예술교육 ODA	-	-	-	78	99	105
토요문화학교운영	-	-	-	15,455	9,602	12,187
기업사회공헌(기부금)	-	-	-	677	408	250
수익사업	-	-	-	51	20	30
기타수입금	-	-	-	36	-	-
예술치유 사업	-	-	-	-	-	860
문화가 있는 날 사업	-	-	-	-	-	1,000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영공시(www.alio.go.kr)

2.2.2. 유사사업현황

1) 향유사업

□ 사회문화예술교육: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시시콜콜’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세부사업으로 진행중인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사업의 목표는 시민들의 주체적인 일상적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운영주체(조직/공간)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있음

〈표 III-40〉 2015 사회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 확산사업

세부사업명	세부항목	예산(백만원)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및 지역 확산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850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160
합계		1010

-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이며 2014년에는 13개 시도, 30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
 - 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신청서에 명기, 심사시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

도록 함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부모조직, 마을협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지원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지원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예진흥기금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과 유사함
 -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은 2013년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진행했으나 2014년부터 한국문화원연합회로 이관되었음
- 차이점은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사업은 일반시민, ‘생활문화공동체지원’은 임대 아파트 등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임

<표 III-41>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와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 비교

사업명	시민 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	생활속예술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지원
재원	국고	복권기금
주관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목적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운영주체 발굴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자생적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마을 단위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주민조직	문화소외지역 단체·기관·시설
내용	조직, 공간, 프로그램 운영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컨설팅 지원 자생기반마련 지원
비고	일반시민대상 최대 3년 연속지원	소외지역시민대상 최대 3년 연속지원

□ 토요문화학교 - 미술관 및 박물관 연계프로그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세부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는 미술관(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감상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소양 함양과 문화예술 향유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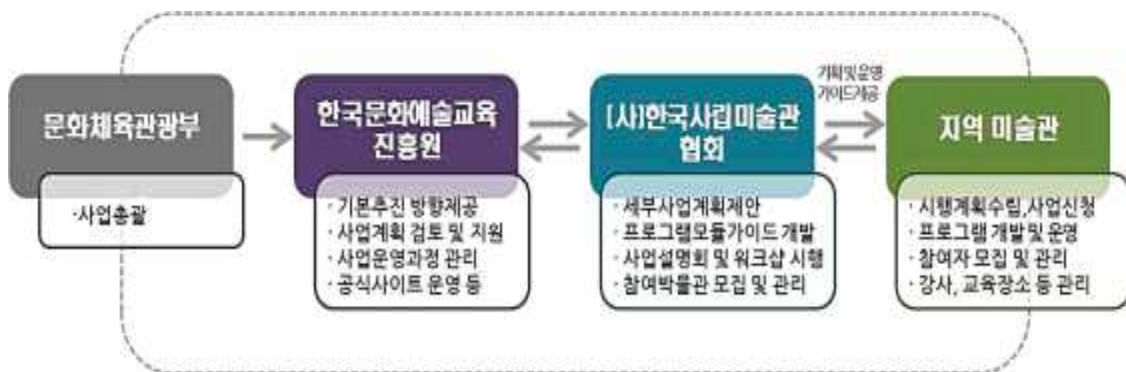
〈표 III-4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세부사업 및 예산(2014-2015)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세부사업명	'14예산	'15예산	증감
공간 기반 프로그램 지원	○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미술감상교육 프로그램)	700	600	△100
	○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	800	800	0
	○ 국·공립기관 연계 프로그램	1,000	1,000	0
	○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1,699	1,743.85	44.85
콘텐츠 기반 프로그램 지원	○ 통합예술감상교육 프로그램	510	-	△510
	○ 건축문화 프로그램	-	500	500
	○ 가족오케스트라·합창 프로그램	1,200	1,500	300
	○ 주말 문화여행 프로그램	780	600	△180
	○ 청소년 문화예술 진로탐색 프로그램	1,489	1,500	11
	○ 콘텐츠 발굴·확산 프로그램	1,074	-	△1,074
	○ 어린이는 무엇을 믿는가 프로그램	-	414	414
	○ 꼬마작곡가 프로그램	-	600	600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아리랑 프로그램	-	218	218
	○ 안산지역 프로그램	600	-	△600
	○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	410	410
	○ 고3 수험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	300	300
사업관리	○ 문화예술교육사 통합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	500	1,000	500
	○ 사업성과 확산 및 관리	835	1,001.15	166.15
총 계		11,187	12,187	1,000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 ‘미술관연계-미술감상 프로그램’에서는 미술 전시 분야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지역 네트워크 체계를 갖춘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형태의 미술 감상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5개 미술관을 선정하여 지원함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서는 전국 공·사립미술관 중 전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 가능한 미술관 공모 및 선정, 운영지원하는 역할을 함



[그림 III-3] 미술관연계-미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추진체계

- 박물관 연계 프로그램은 (사)한국박물관협회와 협력하여 등록된 전국 공립·사립·대학 박물관을 대상으로 24개 박물관을 선정하여 지원함
- 문예진흥기금 시각예술창작지원사업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사업과 사업의 목적은 다르지만 주관처와 지원대상기관이 같아 일부 기관은 중복 수혜를 받고 있음
 -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사업 내의 큐레이터(45개관 62명)와 에듀케이터 인력(48개관 48명)지원사업은 각각 한국박물관협회와 한국사립미술관협회를 통한 재교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미술관연계 프로그램’에 선정된 25개 미술관 중 56%에 해당하는 14개 미술관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에듀케이터와 큐레이터 인력지원을 받고 있음
- 지원유형면에서 문예진흥기금은 전문인력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사업이며 진흥원은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지원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표 III-43〉 ‘미술관-박물관연계프로그램’과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 비교

사업명	미술관-박물관연계프로그램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
재원	국고	문예진흥기금(2014년 국고이관)
주관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분류	문화예술교육-토요문화학교	시각예술창작지원
사업목적	문화예술 소양함양 문화예술 향유능력 제고	박물관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현장업무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등록 박물관, 미술관	등록 박물관, 미술관
내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비고	문화 향유	일자리 창출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재구성

□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지원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전국 농산어촌과 기타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사업의 목적은 해당지역의 아동과 노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음
- 2014년에는 예술강사팀, 예술가팀으로 구분하여 총 7개팀을 선정하였으며, 전국을 강원-경북, 경기-충청, 전라-경남 3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노인복지시설(14개), 경로당(36

개), 분교(1개), 아동복지시설(6개), 지역아동센터(103개) 총 160개 시설을 방문하였음

- 문예진흥기금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과는 추구하는 목적, 사업대상지역이 유사함
 - ‘소외계층문화순회’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4년 ‘농산어촌’지역에서는 72건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문예진흥기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중 각 지역주관처에서 진행하는 기획프로그램과 수혜대상과 운영방식에서 일부 유사성을 보임
 - ‘재가방문서비스’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오지에 위치한 장애인, 노인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함
 - ‘지역특화프로그램’은 지역적 특성 및 특정 계층(예: 장애인, 도서지역 및 농촌, 산간벽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함
 - 기획프로그램 수혜대상 중 아동은 9.5%, 청소년은 32.4%이며 노인은 22%였음

〈표 III-44〉 ‘움직이는 예술정거장’과 문예진흥기금 향유사업 비교

사업명	통합문화이용권 -기획프로그램	소외계층문화순회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재원	문예진흥기금(복권기금)	문예진흥기금(복권기금)	국고
주관처	문화예술위원회 16개시도 지역주관처	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분류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기획프로그램
사업목적	문화향유기회 확대	문화향유기회 확대	문화향유기회 확대
수혜대상	아동, 청소년, 노인, 일반 등	문화소외지역 소외계층	소외지역(농산어촌) 아동, 노인
내용	관람 및 체험	관람 및 체험	문화예술교육
유사	대상지역(오지 등) 수혜대상(아동, 노인 외)	대상지역(농산어촌 외) 수혜대상(아동, 노인 외)	대상지역(농산어촌) 수혜대상(아동, 노인)
차이	-	관람 중심	교육 중심

□ 문화예술 명예교사 - 특별한 하루

- ‘문화예술 명예교사-특별한 하루’는 문화계 저명인사와 예술인으로 구성된 명예교사 125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임
 - 마스터 클래스형, 감상형, 융합형, 기획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며, 수혜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어르신 등으로 다양함

- 매년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해 위탁운영하며 125명의 예술인 명예교사는 진흥원에서 선정함
 - 분야별로는 음악이 26명(20.8%)로 가장 많고 미술 21명(16.8%) 순임

〈표 III-45〉 문화예술 명예교사 분야별 현황(2014)

(단위: 명, %)

분야	인원	비율
문화일반	10	8.0%
국악	9	7.2%
전통문화	5	4.0%
음악	26	20.8%
문학	9	7.2%
무용	10	8.0%
미술	21	16.8%
사진	5	4.0%
건축	6	4.8%
연극/뮤지컬	6	4.8%
디자인	8	6.4%
만화/미디어	7	5.6%
영화	3	2.4%
합계	125	100.0%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 융합형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명예교사들의 강의, 공연, 체험 등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감상형도 명예교사의 창작작품(공연, 전시 등)과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감상 프로그램’으로 운영함
- 문예진흥기금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에도 일반 공연 뿐 아니라 강연과 체험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있어, 융합형과 감상형 프로그램과 사업유형과 내용면에서 유사성을 보임
 - ‘소외계층문화순회’에서 문학분야의 경우 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등, 시각예술은 전시, 창작참여 등의 프로그램 포함
- 명예교사로 각 분야별 저명 예술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소외계층문화순회’의 일부 사업유형과 유사함
 - 소외지역과 계층으로 대상으로 인지도가 높은 예술가를 중심의 대·중규모 순회공연을 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문화예술 명예교사이기도 함
-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은 소외지역보다는 수도권 중심, 소외계층보다는 일반인을 대상

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2013년 진행된 총 102회의 프로그램 중 서울 29회(28.4%), 경기 22회(21.6%)로 서울·경기지역에서만 50%가 진행됨⁵⁸⁾
- 2013년 사업 수혜자의 일반인 비율은 25.1%이며, 청소년과 학부모, 직장인, 예술강사 등이 주요대상이었음

〈표 III-46〉 ‘문화예술 명예교사’와 ‘소외계층문화순회’비교

사업명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한 하루	소외계층문화순회
재원	국고	문예진흥기금
주관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분류	사회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 명예교사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사업목적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	문화향유기회 확대
수혜대상 및 지역	전국 일반인	문화소외지역 소외계층
사업유형	저명 예술인 활용 강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일부 사업에서 저명 예술인 활용 강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인력양성사업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연수- 아르떼 아카데미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연수’사업에서는 ‘아르떼 아카데미(Arte Academy)’를 통해 예술강사, 기획 실무자,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 ‘문화예술교육 키움’은 문화예술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상별, 분야별(인문, 창의, 융합, 생각, 감성, 예술, 역량)연수프로그램을 운영, 2014년에는 총 5개 프로그램(112시수)에 137명이 참여함
- 학습공동체 CoP(Community of Practice) 아르떼 동아리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자생적 커뮤니티를 통한 지식 공유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하며, 2014년에는 2개의 학습 동아리에 총 106명 참여
- 예비 기획인력 양성과정 ‘문화도담’은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기획인력

5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p.61-64 참조.

양성을 목표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에는 총 34명이 참여하여 38시간 교육을 진행

- 문화예술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진행하지만 문예진흥기금의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문인력 재교육 사업들과의 유사성 검토 필요

〈표 III-47〉 201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르떼 아카데미 운영현황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실적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키움(Key-um)	학교·사회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기획실무자, 학교리더그룹(학교장, 교사), 정책리더그룹(각 부처 공무원 등), 지역리더그룹(지역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광역센터 실무자	5개 프로그램 137명
학습공동체CoP 아르떼 동아리	학교·사회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기획실무자	2개 동아리 106명
예비기획인력양성과정 문화도담	예비 문화예술교육 기획자(대학생, 대학원생)	34명

※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2014를 참고하여 재구성

2.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3.1. 기관개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⁵⁹⁾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라 2012년 11월 19일, ‘모든 예술인이 안정적 기반 위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립되었음
- ‘예술인복지법’제10조에서 규정한 재단의 사업 분야는 생활안정, 직업안정 등 ‘복지’에 집중되어 있음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59) 기관분석은 ALIO에 공개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공시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www.kawf.kr) 사업소개와 사업공고, 2014년과 2015년 사업안내서를 바탕으로 하였음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014년 예술인복지법 개정·시행(2014.3.31)으로 국가의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의무, 금지행위 제재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조항이 신설됨

〈표 III-48〉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예산(2013-2015)
(단위: 백만원)

	2013	비율	2014	비율	2015	비율
합계	14,414	100.0%	19,970	100.0%	20,598	100.0%
직업역량 강화	8,474	58.8%	8,000	40.1%	6,253	30.4%
창작역량 강화	5,940	41.2%	8,100	40.6%	11,000	53.4%
불공정관행 개선	-	-	1,070	5.4%	1,070	5.2%
사회보험 가입	-	-	1,037	5.2%	500	2.4%
예술인복지재단 운영	-	-	1,763	8.8%	1,775	8.6%

※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경영공시(www.alio.go.kr)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고사업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의 목적은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하는 것임
 - 2014년 예산은 2013년 144억 대비 약 38.5% 증가한 200억원이었음
 - 2015년 예산은 206억원으로 3.1% 증가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은 크게 ‘직업역량강화’와 ‘창작역량강화’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4년 최초사업 계획 단계에서는 두 영역간의 비중이 같았으나, 직업역량강화 일부사업을 취소⁶⁰⁾ 하면서 창작역량 강화사업⁶¹⁾ 비중이 높아짐
- 이에 따라 전체예산대비 직업역량강화사업 예산의 비율은 2013년 58.8%에서 2015년 30.4%로 감소하였음
 - 2015년 직업역량강화 사업비는 2014년 대비 22% 감액하고, 창작역량 강화사업의 비중을 높였음

60) 2014년 3월,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을 폐지(10억원)하고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예산을 삭감(22억원 중 10억원 삭감)하고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사업비에 20억원을 추가지원(총101억원)하기로 결정함

61) 2014년 창작역량강화사업은 당초 지원 가능 예술인 1,600명 대비 신청자 수(총 3,451명 신청)가 많아 예산소진으로 9월12일자로 사업이 조기 종료됨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창작준비금지원사업’으로 개편(30억 증가)되면서 개인당 300만원(월100만원)을 지원하고, 원로예술인 대상(만 70세 이상, 경력 20년 이상)사업을 신설해 200만원의 지원금을 일시 지급하기로 함

〈표 III-49〉 2014년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개요(최초 계획)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비고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지원금) 월 100만원 ·(지원기간) 3~8개월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이하 ※ 1인 60.3만원, 2인 102.7만원, 3인 132.9만원, 4인 163만원, 5인 193.2만원, 6인 223.4만원	사업 확대 (2015창작준비금지원)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최소 10개 단체(1,000명) ·단체당 최대 100백만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록을 받은 3개 이상의 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컨소시엄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110여개 단체(550여 명) ·단체당 10~ 30백만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 ·최소 5명 이상의 예술인으로 구성 ※ 구성원 전체가 예술활동증명 완료 필요	사업 축소 (2015예술인 맞춤형교육지원)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300명 이상 ·1인 최대 100만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 '13년 사업 참여자 등 참여 제한	
예술인 파견 지원	·수습기간: 월20만원(2개월) ·파견기간: 월150만원(6개월)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예술인 신문고 운영	·(상담·컨설팅) 계약, 산재, 저작권, 체불 등 ·(신고·조사·중재·소송)수익 배분 거부, 지연 등 법상 금지(불공정)행위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의 50%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예술단체/사업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 체결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월 납입 보험료의 50% (1등급 기준)	·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예술인 의료비 지원	·1인 1회 최대 500만원(본인 부담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 또는 지역별 자산기준 미만인 자) ※ 지역별 자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출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4), 2014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3.2. 유사사업현황

1) 인력양성사업

□ 직업역량강화 - 예술인 파견지원

-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의 목표는 예술인의 창의적인 시각을 통해 기업, 기관, 지역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화예술적 직업역량을 개발, 실현하여 예술인의 새로운 서브잡(sub-job)을 만드는 것임
- 예술인⁶²⁾의 파견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기업 등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총 331명(계획 350명)을 선발하여 활동비를 지원함
 - 2014년에는 176개 기관에 331명의 예술인을 매칭하여, 총 280개 프로젝트 진행
 - 2015년은 최초 계획 총 390명(퍼실리테이터 40여명, 파견예술인 350여명)에서 총 515여명(퍼실리테이터 60여명, 파견예술인 455여명)으로 사업 규모 확대
 -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예술인에게는 150만원(월 10일 이상), 파견 예술인에게는 월 120만원 지원(2015년 기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타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2년 연속지원 불가
- 문화예술 관련 신규직무영역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기존의 예술단체나 복지시설, 시청, 도서관, 초등학교 등 매우 다양한 현장에 파견되고 있음
- 특히, 2015년부터 도입된 퍼실리테이터 파견의 경우 해당인력이 ‘기획’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분야 기획인력 파견사업과 수혜대상 중복 가능
- 문예진흥기금과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인력파견 사업은 고용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은 예술인 개인에게 활동비를 매월 직접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62) 「예술인 복지법」상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창작/실연/기술지원 등) 중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직업역량강화 -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 사업목적은 예술현장 내외에서 요구되는 전문 기술교육 지원으로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실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현장의 전문성을 강화 하는데 있음
- 사업내용은 예술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교육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임
 - 재단에서는 예술인의 직업전환에 필요한 전문 자격(문화예술교육사, 예술치료사 등)을 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을 선정함
 - 등록된 교육과정외의 교육기관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함
 - 지원가능 교육기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예술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민간문화예술교육기관
- 지정된 교육기관의 강좌 이수를 원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며 선정된 참여예술인의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임
 - 교육이용권을 지원받을 경우 재단의 타 사업에 중복 참여 할 수 없도록 함
- 문예진흥기금 전문인력 재교육 관련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으나, 예술인 개인이 지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는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력개발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포함되어 있음

2) 예술창작지원사업

□ 창작역량강화-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 ‘예술인 긴급복지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요사업으로 2014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형태로 운영함
 - 연령 및 예술활동 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최대 8개월까지 월 1회 100만원 지급
- 2014년에는 활동수입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2015년부터는 기준을 완화해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 중 저소득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창

작활동을 장려하기로 함

- 창작지원금으로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 2015년 신설된 원로예술인 대상 사업은 만 70세 이상(1945년 이전 출생), 20년 이상 예술활동경력의 원로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은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창작지원금이지만 실업급여 형식으로 지원 되어 창작결과물은 제출하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예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문예진흥기금 문학창작지원사업의 경우 우수 중견작가들을 대상으로 상금형식의 사전지원방식이며 결과물로 작품집을 제출해야하는 등 차이가 있음

〈표 III-50〉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비교

사업명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창작준비금지원)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재원	국고	문예진흥기금
주관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분류	예술인 복지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지원대상	예술인(저소득 우선)	만 65세 이상 3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활동
지원방식	실업급여방식 (소득 보조, 창작 장려)	연금방식
내용	2014 월100만원(2~8개월) -> 2015 인당 300만원 (원로 200만원)	월 60만원, 분기별 지급
비고	저소득 예술인 지원	사망시 지급 중단

○ 원로예술인 대상 사업의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은 창작지원금, 문예진흥기금 ‘원로문예인 복지지원’사업은 원로문예인에 대한 연금 지원 성격이 강함

- 문예진흥기금은 해당 분야의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하고 생계가 곤란한 원로 문예인을 대상으로 하며, 2005년 이후 신규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음(2014년 기준 25명)

2.4. 서울문화재단

2.4.1. 기관개요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5일 설립됨

○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임

○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재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 2.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4.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 5.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표 III-51〉 서울문화재단 예산총괄표(2014-2015)

(단위: 천원)

구 분	2015(A)	2014(B)	증감(C) (A-B)	증감율 (C/B)
총계	28,967,117	28,949,978	17,139	0.1%
인건비	5,856,645	5,180,127	676,518	13.1%
운영경비	3,095,755	2,872,844	222,911	7.8%
사업비	19,914,717	18,660,821	1,253,896	6.7%
문예사업비	19,237,400	18,011,886	1,225,514	6.8%
예술창작활성화	6,706,500	6,519,500	187,000	2.9%
예술교육사업	2,660,000	2,700,000	△40,000	△1.5%
문화도시 생활예술활성화	3,714,000	2,910,000	804,000	27.6%
문화예술 공간활성화	4,644,900	4,382,386	262,514	6.0%
문화소통 및 정책연구	1,512,000	1,500,000	12,000	0.8%
시설사업비	677,317	648,935	28,382	4.4%
예비비	100,000	100,000	-	-
국고보조금반납금	-	165	△165	△100.0%
기본재산적립	-	2,136,021	△2,136,021	△100.0%

※ 출처: 서울문화재단(2015.02.07.),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업무보고’. p.8.

○ 서울문화재단 2014년도 예산은 289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187억원 규모임

○ 서울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은 예술창작활성화, 예술교육사업, 문화도시 생활예술활성화, 문화소통 및 정책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예술창작활성화(2014년 기준, 36.2%)이며, 문화예술 공간활성화(24.3%), 문화도시 생활예술활성화(16.16%) 순임

- 예술창작활성화사업은 다시 7개 사업으로 분류되며 예술창작지원사업(40.2%)과 예술축제지원사업(31.2%)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예술창작지원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6개 장르별 예술작품 지원,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예술가 지원으로 구성됨
 - 유망예술지원은 문래예술공장, 홍은예술창작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연극센터 4개의 창작공간을 통해서 운영함

〈표 III-52〉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성화 예산(2014-2015)

(단위: 천원)

구분	2015(A)	2014(B)	증감(C) (A-B)	증감율 (C/B)
예술창작지원사업	2,816,500	2,623,500	193,000	7.4%
유망예술지원	450,000	450,000		
예술축제지원	2,090,000	2,036,000	54,000	2.7%
예술지원시스템운영	250,000	250,000		
다빈치 아이디어페스티벌	300,000	300,000		
서울메세나사업	550,000	660,000	△110,000	△16.7%
국제교류사업	250,000	200,000	50,000	25.0%
총계	6,706,500	6,519,500	187,000	2.9%

※ 출처: 서울문화재단(2015), 2015년도 사업 운영계획

- ‘예술교육’사업 영역에서는 중앙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별개로 초등학생, 고등학생, 예술가 및 문화매개자,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예술교육 사업을 진행
- ‘문화예술 공간활성화’사업을 통해서는 9개의 창작공간, 서울연극센터,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시민청과 같은 공간을 운영
 - 창작공간 중 6개는 직접(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홍은예술창작센터, 잠실창작스튜디오), 3개는 위탁(서교예술실험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운영중

〈표 III-53〉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별 지원사업 현황

구분	분야	입주작가	프로젝트 지원	유망예술지원
금천예술공장	시각 국제교류	국내외 예술가 기획자	다빈치아이디어 :뉴미디어, 테크놀로지 아트	
신당창작아케이드	공예	예술가 및 단체		

	디자인	공방지원		
연희문학창작촌	문학	집필실 지원 (최대3개월)	문학, 번지다 프로젝트: 등단 문인 대상	
잠실창작스튜디오	장애인 예술	국내 장애예술가 개인작업실 (1년)	장애아동창작지원 프로젝트 A 시각예술	
성북예술창작센터	전 분야	입주스튜디오	시민과 사회공동체 예술치유 프로젝트	
문래예술공장	다원			MAP(다원, 전통, 음악) :예술가 및 단체 제작비 1천~2천만원 외
홍은예술 창작센터	무용	안무가, 무용가, 무용단체 연습실 제공		달 dot(무용): 데뷔10년 이내 안무가 또는 예술가, 단체 2천만원 내외 지원
서교예술 실험센터	시각		소액다کم: 흥대지역 소규모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금 50만원	99℃(시각): 30세 미만 지원금 6백만원 외
서울연극센터	연극			NewS(연극):작품제작 비 1천~2천만원 외
관악어린이창작놀 이터	전분야		어린이 대상 예술체험프로젝트 '씨':예술가 및 기획자, 단체	

- ‘문화도시 생활예술활성화’사업은 서울댄스프로젝트, 시민예술활동지원 등 시민 대상의 문화 향유 확대 사업으로 구성됨

<표 III-54> 서울문화재단 문화도시 생활예술활성화 예산(2014-2015)

구 분	2015(A)	2014(B)	증감(C) (A-B)	증감율 (C/B)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500,000	500,000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	300,000	300,000		
시민예술활동활성화사업	600,000	600,000		
거리예술활성화사업	300,000	300,000		
서울댄스프로젝트	750,000	700,000	500,000	7.1%
서울시대표 B-boy단 운영	200,000	200,000		
서울축제지원센터	250,000	160,000	90,000	56.3%
서울 상상력발전소 프로젝트	150,000	150,000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추진사업	200,000		200,000	100.0%
복작복작 예술로골목길 프로젝트	300,000		300,000	100.0%
문화자원 기증센터 설치·운영	164,000		164,000	100.0%
총계	3,714,000	2,910,000	804,000	27.6%

※ 출처: 서울문화재단(2015). 2015년도 사업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재구성

- ‘문화소통 및 정책연구’사업을 통해서는 네트워크, 홍보, 정보화, 정책연구 등 운영기반 조성 사업 진행

지원기초	창의성(Creativity)	우수성(Excellence)	자생력(Self-Reliance)
지원대상	- 신진예술 발굴·육성지원 - 실험적 예술 플랫폼	- 예술가단체 육성 - 우수작품 발표 지원	- 창작·유통기반 개선 - 시민형유연계, 기업연계
예술작품	• 예술창작 지원(다원예술) • 디번차미디어 공모	• 예술창작 지원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예술가 예술단체	• 유망예술 지원 (다원예술, 시각예술, 무용, 연극)	•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 • 문학창작집 발간 지원 • 중견작가작품집 발간 지원 • 창작공간 입주작가 공모 (문학, 무용, 시각예술) • 예술연구서적 발간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자차구 문학예술회관 연계)
네트워킹	• 흥운예술창작센터(무용+다원)	• 연희문학창작촌(문학)	• 서울연극센터(대학교 연극)
예술가·시민· 기업·해외 등	• 서교예술실험센터(소액닷컴) • 문래예술공장	• 금천예술공장(시각예술) • 잠실창작스튜디오(장애인) • 서울예술축제 지원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 (프로그램 교류 지원)	• 신당협동조합지원(공예) • 온라인 예술갤러리 • 서울메사나 지원 • 국제교류지원

[그림 III-4] 2014년 서울문화재단의 종합적인 예술지원 구성

※ 출처: 서울문화재단(2014,12), ‘서울+문화+재단+10년’, p.166.

2.4.2. 유사사업현황

1) 예술창작지원사업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사업은 시, 시조, 소설, 평론, 희곡, 동시, 동화를 대상으로 하고 1천만원을 상금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문예진흥기금 ‘우수문학창작활동지원’사업과 동일함
 -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거점으로 활동중인 등단 문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부터는 기존 10년 이하의 등단 연한 기준을 삭제함
 - 문예진흥기금사업은 등단 5년 이상(5년 미만일 경우 만 36세 이상)으로 제한함
- 서울문화재단은 최근 2년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학부분 개인작품집 발간지원을 받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표 III-55〉 ‘문학창작집 발간지원’사업과 ‘문학창작활동지원’비교

사업명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문학창작활동지원
주관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지원분야	시, 시조, 소설, 평론, 희곡, 동시, 동화	시, 시조, 소설, 평론, 희곡, 동시, 동화
지원수혜 대상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거점으로 활동중인 등단 문인	등단 5년 이상 등단 5년 미만인 경우 만 36세 이상
지원방식	사전지원 후 작품집 제출	사전지원 후 작품집 제출
내용	인당 1000만원	인당 1000만원
비고	우수작가 창작활동 지원	우수작가 창작활동 지원

□ 예술연구서적 발간 지원

- ‘예술연구서적 발간 지원’사업은 문예진흥기금의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 시각예술비평 연구 활성화 지원,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 지원사업과 유사성을 보임
 - 지원장르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으로 동일함
- 1천만원 정액을 상금방식으로 지원하며, 서울 거주 최근 3년간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음
 - 반면, ‘문학행사 및 연구지원(5백만원~5천만원)’는 단체만 지원이 가능하며 ‘시각예술비평연구 활성화 지’(3백만원~2천만원)’와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 지원(3백만원~5천만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지원 가능
- 재단에서는 동일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과 중복선정 될 경우 택일하도록 함

□ 유망예술지원

- ‘유망예술지원’사업에서는 연극(서울연극센터), 무용(홍은예술창작센터) 다원예술·전통예술·음악(문래예술공장) 시각(서교예술실험센터) 분야의 유망예술가 발굴과 육성을 위한 입체적 지원시스템을 운영
- 신진예술가를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예진흥기금 ‘차세대예술인육성사업(AYAF)’

과는 시각예술, 공연(연극, 무용, 전통, 다원)예술 분야가 중복되며, 간접지원을 포함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도 유사함

○ 지원대상의 자격기준에는 차이가 있음

- 문예진흥기금사업은 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모두 만 3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함
- 서울문화재단은 무용은 데뷔 10년 이내, 시각예술은 30세 미만, 타 분야는 신진예술가, 신규 창작작품으로 제한함

□ 예술축제지원

○ 예술축제지원사업에서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전 장르에 걸쳐 대표예술축제 최고 3억원(3년), 우수예술축제 5천만원(1년)으로 구분하여 지원

○ 예술축제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을 제한한 타 사업과는 달리 유일하게 같은 년도 국고, 문예진흥기금, 관광기금에 선정된 사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이에 따라 문예진흥기금의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과 중복수혜 가능함

□ 다빈치 아이디어 페스티벌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기술력과 예술의 결합 통한 융복합 모델 창출을 목표로 금천예술공장을 통해 진행하던 사업으로, 5년차에 접어들면서 재단 특화사업으로 확대

- 기술기반 미디어아트 아이디어 선정과 제작, 전시, 외부진출 지원 등 창작의 전과정을 지원

○ 문예진흥기금의 ‘융복합 예술창작 지원사업’도 융복합예술 활동의 모델 개발을 위해 타 분야 전문기관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협업형 공동 기획프로젝트로 진행함

- 협력기관: 국립생태원, 광주과학기술원, 정림건축문화재단, 필룩스 조명박물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희문학창작촌

○ 문학분야의 창작공간인 ‘연희문학창작촌’에서는 국내 작가와 번역가에게 개인 창작 집필실(총 20실)을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입주작가 공모사업을 운영함

- 문예진흥기금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사업과 유사하나, 전국 단위로 2년간 장기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지원공간 4곳은 강원도 원주, 경기도 이천, 전남 담양, 충북 증평에 위치해 서울과 지역은 중복되지 않음

2) 국제교류사업

- 예술창작지원사업내에서 전 장르의 국제교류지원사업을 폐지하고 금천예술공장, 흥은예술창작센터, 연희문학창작촌 등 창작공간을 통해 해외도시교류, 기관간 교류, 예술가 및 기획자 해외교류, 레지던시 등의 사업을 운영함
 - 금천예술공장은 시각예술 국제교류거점으로 해외 4개 기관과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하고 레지던시 참가를 지원함
 - 해외진출보다는 해외작가 초청, 레지던시 지원 등 인바운드 행사 중심
- 금천예술공장 해외교류 프로그램은 시각예술이라는 장르와 사업운영방식에서 문예진흥기금의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과 유사함
- 서울문화재단의 해외 주요 기관과의 교류 사업은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플랫폼 협력지원사업’과 유사하지만, 서울은 주요 도시간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3) 예술가치사업

- 서울메세나지원사업(Seoul Mecenat Initiative)은 매칭기금지원형 및 프로젝트지원형 공모사업으로 운영함
 - 매칭기금지원형: 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할 경우 매칭기금지원(최대20백만원) ‘세종솔로이스츠-다림양행’ 등 총 16건 매칭
 - 프로젝트지원형: 기업주도의 공공형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사업비 지원(최대30백만원)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테라피(파나소닉코리아)’ 등 총 7건 선정
- 문예진흥기금 ‘문화예술기부활성화’사업 중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는 한국메세나협회가 사업을 주관하며 사업내용이 동일함
 - 서울문화재단은 동일프로젝트, 동일 기업과 한국메세나협회사업과의 중복선정을 불허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은 기업이나 단체가 후원이 확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문예진흥기금사업은 참여신청 후 기업과 단체가 매칭이 이루어지는 방식임

- 예술제휴·문화후원 활성화사업 ‘아트서울 기부투게더’와 문예진흥기금의 예술가치 확산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처럼 기부금 조성 사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중

〈표 III-56〉 ‘서울메세나지원’과 ‘기업과 예술의 만남’ 비교

사업명	서울메세나지원	기업과 예술의 만남
주관처	서울문화재단	한국메세나협회
분류	예술창작지원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
지원대상	기업과 예술단체	기업과 예술단체
지원방식	매칭비 지원	매칭펀드 지원
내용	최대 100%매칭 (2천만원 한도)	현금과 현물지원가능 매칭펀드는 지원금의 1/2
비고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

3. 문예진흥기금 사업 내부사업간, 외부기관과의 유사사업 분석

3.1 내부사업간 유사성 분석

3.1.1 세부사업별

1) 예술창작지원

- 문예진흥기금 예술창작지원사업은 타 기관과의 유사사업보다는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 육성, 국제예술교류지원 세부사업 내에서 세세부사업과 기초사업 간의 유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학창작분야는 ‘등단 5년, 만 36세’를 기준으로 신진작가와 중견작가를 구분하여 ‘문학 창작활동지원’과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문학’으로 지원하고 있음
 - 상금을 지급하는 지원방식은 동일하며, ‘차세대예술인력육성-문학’에서는 ‘사이버 문학 광장’을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음

〈표 III-57〉 ‘문학창작활동지원’과 ‘차세대예술인력육성지원AYAF-문학’비교

분류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사업명	문학창작활동지원	차세대예술인력육성지원AYAF- 문학
지원수혜 대상	등단 5년 이상 등단 5년 미만인 경우 만 36세 이상	등단 5년 미만, 만 36세 미만
지원방식	사전지원	사전/사후지원
내용	인당 1000만원	1단계:1백~2백만원 2단계:1천만원
비고	우수작가 창작활동 지원 작품집 제출	단계별 지원

-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은 미발표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시범공연을 지원하는 등 단계별 지원과정이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공연예술’분야의 창작자 지원사업과 유사함
 -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AYAF-공연예술’에서는 창작자(만 3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창작작품 제작비를 지원함
 -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은 연극, 무용, 오페라, 음악 4개 분야,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공연예술’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등 공연예술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차이가 있음
 - 뮤지컬 분야는 ‘창작뮤지컬육성지원’사업 중 청소년뮤지컬 작품제작 지원사업(총340백만원)을 통해 시범공연 4편, 우수작품 2편을 선정하여 지원함

〈표 III-58〉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과 ‘차세대예술인력육성지원AYAF-공연예술’비교

분류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사업명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차세대예술인력육성지원AYAF-공연예술
사업목적	공연예술분야 우수창작 작품 발굴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지원	역량 있는 젊은 예술가를 발굴하여 창작활동을 지원
지원수혜대상	관련분야 예술가 및 단체	만 35세 이하 20명 연출, 극작, 안무, 기획 등
지원분야	연극, 무용, 오페라, 음악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지원내용	대본공모, 시범공연지원, 제작지원, 재공연지원 등 단계별 지원	1년 지원 (인큐베이팅-공연발표지원-연계지원)

〈표 III -59〉 문예진흥기금 '예술창작역량강화'사업 지원분야

세부	세세부 사업	기초사업명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예술창작지원	문학창작지원	문학창작활동지원	●							
		우수문예지발간지원	●							
		사이버문학광장운영	●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							
		문학행사및연구지원	●							
	시각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					
		시각예술행사진원			●					
		시각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공공미술사업운영			●					
		사립미술관네트워크활성화			●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					
		코리아아티스트프로젝트지원			●					
	공연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행사진원				●	●	●	●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	●	●	
		시민참여형프로젝트								
		창작뮤지컬육성지원				- 뮤지컬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	●	●		
		공연예술활성화기반조성				●	●	●	●	
		기초공연활성화지원				●	●	●	●	
		공연연습공간조성및운영지원				●	●	●	●	
	융복합예술창작지원	융복합예술창작지원공간운영								●
		융복합예술창작지원								●
		창작매개활동지원								●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		
예술인력육성	차세대 예술인력육성	문학	●							
		시각예술		●						
		공연예술			●	●	●	●	●	
	예술인력재교육	예술인력개발원운영관리								
		무대예술전문교육				●	●	●	●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	●	●	●	
		전문무용수센터지원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	●	●	●	●	●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			
국제예술교류지원	문화예술교류 및협력	민간	●	●	●	●	●	●	●	
		국제								
		예술								
		교류 지원								
	한국문화예술 세계화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한국예술주간행사			●	●	●	●	●	●
		국제교류 기반 강화 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	●	●	●	●	●		
			한국문학세계화	●						
			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	●	●	●	●	●	●	●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		●					
		서울아트마켓			●	●	●	●	●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					
아리랑세계화							●			
전통예술텍스트번역및해외전통예술 보급							●			

* 시민참여형예술프로젝트:사업내용없음

- 전통분야는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에도 ‘전통’장르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제교류사업에서도 전통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14%) 내부사업간 중복지원이 많은 장르로 파악되었음
 - 2014년 국고에서 이관된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공모시에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관광기금사업으로 재이관되면서 장르 중복지원 문제가 해소되었음

-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에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이 보조사업자로 지정되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아 해당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분류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예를 들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사업은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의 전통분야지원사업과 유사하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 아카데미’는 교육사업에 속함

〈표 III-60〉 문예진흥기금 주요 보조사업자 시행사업

세세부사업	기초사업	사업내용	보조사업자
공연예술창작지원	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전통풍물상설공연지원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전통예술창작지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공연예술활성화기반조성	·공연유통 활성화 및 기반조성 (문예회관 종합컨설팅 지원, 문예회관 아카데미, 문예회관 운영 현황조사,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 예술인력육성

- ‘예술인력육성’사업은 창작지원 형식의 신진 예술가 육성, 아카데미 형식의 교육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파견형 사업 등 각기 다른 유형의 사업이 혼재되어 있음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분야 ‘차세대인력육성지원’사업은 단계별지원을 통해 최종단계에서는 최종작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예술창작지원사업에 가까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파견형 사업은 경력단계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인턴)인력 파견과, 창작여건개선과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파견, 직종별로는 분야별 기획인력, 스텝인력, 예술인 파견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력파견형 사업 중에서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사업은 ‘예술인력재교육’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지원’사업은 ‘공연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시각예술분야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 인력을 지원하는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은 ‘시각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각각 분류되어 있음

〈표 III-61〉 문예진흥기금 ‘인력파견형’사업

세세부사업	시각예술창작 지원	공연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재 교육
기초사업명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	기초공연활성화지원		문화예술기 관연수단원
	-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지원	-
주관처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16개 주관단체
사업목적	현장업무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사립미술관의 활성화와 전문화	전국 소공연장 제작 인력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연창작여건 개선 및 작품 수준 제고 무대예술전문인력의 현장 진출 경로 확보 및 경력 개발 지원	창작여건 개선 민간 공연예술단체 운영난 해소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의 인턴 연수를 통한 실무능력 배양 및 사회진출 기회 제공
지원내용	인건비 경력별 차등 지원	전문직(170만원) 인턴십(월120만원), 교육지원	공연기획 및 경영분야 전문 인력의 인건비(최대170만원), 교육지원	인건비 지원(최대 12개월, 120만원선)
지원대상	자격증소지자, 경력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무대예술(기술)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 전문가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경력 2년 이상)	만 35세 이하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 중심
지원규모	큐레이터 45개관 에듀케이터 48개관 총110명	79개 공연장, 100명	83개 단체 132명	367명
수혜기관	등록 박물관, 미술관	500석 미만의 민간공연장	민간분야 공연예술단체	국·공립 예술단체 민간분야 예술단체
비고	전문인력 파견	전문인력 파견	민간단체 운영지원	신규인력지원

- 인력파견형사업은 전공 졸업자 대상으로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신진인력파견, 3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파견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인턴인력 월120만원, 전문인력 170만원 선으로 책정되어 있음
 - 그러나 ‘무대예술 전문인력파견’사업에서는 전문인력이외에 인턴 인력파견도 지원하고 있음

- 전공 졸업자 대상의 인턴연수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도 연령을 만 35세 이하로 높이고 기획인력까지 파견하여 사업의 성격이 모호해짐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사업을 통해서도 시각예술분야 학예사(큐레이터 등)를 채용하고 있어,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사업과 지원대상 인력과 수혜기관이 중복됨
 - 2014년에는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를 시행주체로 사립미술관 연수단원 50명을 채용함

〈표 III-62〉 문예진흥기금 ‘인력파견형’사업 분류

구분	신규인력파견(인턴)	전문인력파견
예술인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실연자)	
기획인력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기획자)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지원 사립미술관전문인력지원
스텝인력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인턴)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전문직)

- 아카데미 형식의 교육사업은 크게 ‘신규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 ‘현장인력을 위한 재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종별로도 뮤지컬, 공연예술, 전통예술의 분야별, 창작인력, 기획인력, 스텝인력 등으로 구분이 되어 내부사업간에는 사업영역이 중복되지 않고 있음

〈표 III-63〉 문예진흥기금 ‘교육형’사업 분류

구분	신규인력양성교육	현장인력 재교육
창작인력	뮤지컬창작인력육성	
기획행정인력	문예회관 아카데미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문예회관 아카데미 뮤지컬 기획인력 육성
스텝인력		무대예술전문교육

- 교육사업은 분야별로 볼 때, 뮤지컬과 전통예술 등 공연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시각예술 분야 인력을 위한 교육사업은 없음
- 뮤지컬분야는 신규인력양성과 현장인력재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무대예술교육은 신진인력양성 교육과정이 없이 전문인력대상의 교육과정만 운영되고 있음

〈표 III-64〉 문예진흥기금 ‘교육형’ 사업 내용

세세부	공연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재교육	
기초사업명	창작뮤지컬육성지원		공연예술활성화기반 조성	무대예술전문 교육	전통예술기획 자양성프로젝트
사업명	뮤지컬창작인력육성	뮤지컬 기획인력 육성	문예회관 아카데미	-	-
주관처	아르코인력개발원	(사)한국뮤지컬협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위원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업목적	뮤지컬, 오페라 창작인력 대상 다양한 원천 소재 및 작품 제작 교육을 통한 차세대 창작인력 육성	뮤지컬 전문인력양성 뮤지컬 저변 확대	문화예술회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문화예술회관 운영 활성화	무대예술전문 인력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전통예술분야 기획, 제작 등 전문 인력 체계적 양성
사업내용	2년 과정	트랜스미디어 프로듀서과정,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과정, 뮤지컬콘텐츠 펀드매니저과정	기본과정(4개과정) 전문과정(6개과정)	이론 기술개발 디자인과정 (무대조명, 음향 장치)	3개월 전문 아카데미 과정
교육대상	작가와 작곡가 (교육비와 창작개발비 월 50만원 지원)	뮤지컬 기획경영 분야 실무자, 전공자 선착순	문예회관 종사자(국공립)	국·공립 및 민간 경력자	관련분야 졸업자 1년 이상 종사자
비고	신규인력양성교육	현장인력 재교육	신입인력교육 현장인력 재교육	현장인력 재교육	신규인력양성 교육

3) 국제예술교류지원

-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류및협력’과 ‘한국문화예술세계화’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해외진출지원사업, 우수한 국내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한국문화예술세계화’ 사업, 국가차원에서 국제교류협력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 2014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는 국가차원에서 국제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다수 진행되었으며 국가간 문화교류와 한국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경우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지원과 해외시장진출사업, 해외행사 참가지원사업이 혼재되어 있음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중 해외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ARKO-PAMS 협력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어 지원신청단계에서 중복을 방지하고 있음
- 아리랑 콘텐츠 제작, 지역아리랑 지원과 해외단체 초청 등 행사성으로 진행된 ‘아리랑세계화’사업은 2015년 재이관되었음

〈표 III-65〉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분류

구분	사업명
해외진출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프로젝트지원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ARKO-PAMS 협력사업지원
한국문화예술세계화	·한국예술주간행사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운영및전시
네트워크 및 협력 기반조성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해외레지던스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국제교류플랫폼협력지원 ·전통예술텍스트번역및해외전통예술보급 ·서울아트마켓지원
행사성	·국제음악프로젝트지원 ·아리랑세계화

- 국제교류분야 기초사업인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사업 내에는 유사한 성격의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과 ‘국제교류 플랫폼지원사업-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시각예술에 한정되어 있고 지정된 기관에 팀단위로 참가하며,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은 시각예술을 포함한 각 분야별로 해외 주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예술가와 기획자 개인을 지원하는 차이가 있음

〈표 III-66〉 문예진흥기금 국제교류사업 레지던스 프로그램 비교

세세부사업	한국문화예술세계화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수혜대상	각 분야 예술가 및 기획자	시각예술 기획자-예술가(팀)
신청방식	해외 주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해외 5개 지정 레지던스 중 선택하여 신청
지원사항	왕복 항공료, 체제비	왕복 항공료, 체제비
비고	200백만-1천만원(개인)	3천~5천만원(팀)

4)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 향유사업

-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향유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사랑티켓’사업,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이 있음
- 기존의 문화향유 지원사업은 대부분 수혜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공급자 중심 사업임이 비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수혜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사업으로 내·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은 없음
- 다만,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중 각 지역별 주관사업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기획프로그램은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과 수혜지역과 수혜대상의 중복가능성이 있음
 - 재가방문서비스: 오지에 위치한 장애인, 노인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방문 가능
 -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역적 특성 및 특정 계층(장애인, 도서지역 및 농촌, 산간벽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그램 진행
- ‘사랑티켓’사업은 ‘문화예술관람 기회 제고’라는 사업의 목적 면에서는 타 향유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사업운영방식에 있어서는 무료관람이 아닌 가격할인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가격할인방식은 수혜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고 티켓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능동적인 관람형태임
- 수혜대상을 연령대를 기준으로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있음
- 지원분야도 ‘통합문화이용권’은 도서구입, 영화관람 등 문화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반면 ‘사랑티켓’은 공연·전시 등 순수예술분야의 관람을 지원함
- 그러나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서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나눔티켓’사업은 공연과 전시 무료티켓과 50~80% 할인티켓을 판매하고 있어 ‘사랑티켓’사업과 매우 유사함
 - ‘사랑티켓’과 ‘나눔티켓’ 수혜대상자는 두 곳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공연이나 전시의 경우 무료티켓이나 할인율이 더 높은 나눔티켓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표 III-67〉 문예진흥기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과 ‘사랑티켓’사업 비교

판단 기준	통합문화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나눔티켓	사랑티켓
시행 주체	문화예술위원회 16개 지역주관처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16개 지역주관처
사업 목적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관람 기회를 제공	연령의 특성으로 문화접근이 어려운 관객에게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접근성 제고
수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나눔회원 :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기초 및 차상위계층 ·이음회원 : 현직 교사 및 교직원(초중고), 사회복지사, 참여단체 직원, 지자체 문화누리카드사업 담당자 등	어르신(65세 이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
지원 내용	문화·여행·스포츠 등 문화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문화예술 단체에서 기부한 무료 또는 할인티켓 제공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비용 일부 지원
지원 금액	세대카드 1매당 10만원 한도 ·청소년 추가카드 5만원 ·복지시설거주자 5만원	무료관람 티켓(월 2회) 50~80% 할인 티켓 판매	공연 7천원, 전시 5천원 지원 (개인: 연 10회, 단체: 연 1회)
지급 방식	신청자 자격검증 후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신청을 통한 전용카드 발급	나눔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티켓 또는 할인티켓 예매	심의에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대상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예매
기대 효과	수요자의 자율성과 선택권 존중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의 다양한 장르 선택 가능 6세 이상 모든 연령·계층 대상의 개방형 사업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및 여가(문화·여행·스포츠관람) 향유기회 확대	관람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문화향수 여건과 문화복지를 확대하며 미래적 잠재고객 개발에 기여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과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문화향수권 신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사업 방식과 수혜대상, 기대효과 면에서 차별화되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이나 대상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고 있음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교정시설, 군부대, 등 문화사각지대를 방문하며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규모 우수예술단체를 지원함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문예회관에서 공연하여 일반인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며, 지방문예회관 운영과 민간의 우수공연 유통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표 III-68〉 문예진흥기금 ‘소외계층문화순회’와 ‘방방곡곡 문화공감’비교

구분	소외계층문화순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시행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주최) 문화예술위원회(주최)	문화예술위원회(주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주관)
사업 목적	소외계층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수혜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	일반국민 문화향수권 신장 및 지역문예회관 기획력 제고
수혜 대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문화 소외계층	문화 소외계층 및 지방문예회관(서울제외)
사업 내용	·우수 예술단체를 선정, 연 2,000여회 순회 공연 실시 ·1회당 공연비 평균 450만원 전액 지원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교정시설, 군부대,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공단 근로자 등 대상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초청경비, 문예회관 자체 기획 프로그램 운영경비 일부 지원 ·국립예술단체, 지역문예회관 공동제작 프로그램 운영 경비 일부 지원 등
사업 방식	·12개 협력 부처 및 기관을 통한 사전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심의회회의개최 ·선정된 예술단체의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혜자가 직접 선택 ·협력기관과 위원회가 배정심사를 통해 최종 수혜대상 선정	·해당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원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사업 심사시 지원 금액 및 매칭금액 결정
기대 효과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	·지역문화예술 수준 제고 ·지역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민간 우수공연 유통

3.1.2. 수혜대상중복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내부사업간 지원금 중복수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예술인, 예술단체, 기관별 중복수혜가 발생하고 있음
 - 창작지원사업의 경우 각기 다른 사업으로 여러 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소속단체명, 공간명, 개인명으로 중복하여 신청함
-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문학창작활동지원’, ‘시각예술 비평연구활동지원’, ‘공연예술 비평연구활동지원’, ‘융복합예술 창작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 중기기획프로젝트 지원’, ‘ARKO-PAMS협력사업’,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반면 우수문예지발간지원,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행사지원, 융복합창작매개활동지원은 예술단체만 지원신청이 가능함
- 2014년 ‘시각예술행사지원사업’에는 총 79개 단체가 신청하여 9개 단체 지원 결정되었으며, 이중 3개 단체(33.3%)는 공간지원사업에도 선정됨
 - 단체별로 2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합계는 약 1억원 선임

〈표 III-69〉 2014년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지원과 ‘시각예술행사지원’ 유사단체

단체명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시각예술행사지원	합계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	4천만원	6천만원	1억원
대안공간루프	6천만원	3천만원	9천만원
(사)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3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합계	1억3천만원	1억5천만원	2억8천만원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실적보고서.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참조하여 재구성

-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에서는 일부 협회가 2건 이상의 사업을 지원 받았음
 - 한국연극협회는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3건 외에도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사업에도 선정됨
- ‘미술품 해외시장개척 지원사업’에서도 (사)한국화랑협회에서 3개,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가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음

〈표 III-70〉 2014년 분야별 주요 협회 유사수혜사업

협회명	사업명	선정사업
(사)한국연극협회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제7회 대한민국연극대상 ·제18회 전국청소년연극제 ·전국연극제(비공모사업)
	공연예술비평연구 활성화지원	·월간 한국연극 발간
(사)한국무용협회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	·2014 대한민국무용대상 ·2014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전국무용제(비공모사업)
(사)한국화랑협회	미술품 해외시장개척 지원	·2014 국제미술전 참가 지원사업 ·2014 코리안아트쇼 ·아트플래쉬
한국판화사진진흥협회	미술품 해외시장개척 지원	·국제 에디션 아트페어 아트에디션 ·아트에디션 2014 홍콩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별 선정내역 참조하여 작성

-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에 선정된 12개 미술관은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 큐레이터 인력도 지원받고 있음
 - 이 중 2개 미술관을 제외한 10개 미술관은 에듀케이터 인력도 동시에 지원받고 있음
 - 참고로 5개의 미술관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토요문화학교-미술감상교육프로그램’에도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음

〈표 III-71〉 시각예술창작지원분야 미술관 수혜 현황

수혜기관명	시각예술창작및 전시공간지원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미술감상교육프로그램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큐레이터지원	에듀케이터지원	
신미술관	●	●	●	●
시안미술관	●	●	●	●
남포미술관	●	●	●	
사비나미술관	●	●	●	
환기미술관	●	●	●	
한국미술관	●	●	●	●
일민미술관	●	●		
토탈미술관	●	●	●	
아트선재센터	●	●	●	
모란미술관	●	●		
영은미술관	●	●	●	●
무등현대미술관	●	●	●	●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실적보고서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3.2 외부기관과의 유사사업 분석

3.2.1. 중복지원 제한사업

- 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타 기관 및 지역문화재단 사업간, 중복신청과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공모와 선정단계에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음
- 지원금 수혜대상의 중복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적용할 때, 동일인, 동일단체, 동일 사업에 대한 지원금 중복수혜를 제한하는 사업을 유사사업으로 볼 수 있음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창작지원사업과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며, 문예진흥기금은 ‘전국’, 지역문화재단은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국’이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신청과 선정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창작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국고, 문예진흥기금,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의 중복신청을 제한하고⁶³⁾, 타 기관과 중복 선정시 택일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만 유일하게 문예진흥기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함
- 문예진흥기금 문학창작활동지원사업은 지역문화재단의 작품집 발간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지역문화재단과 지원대상선정 명단을 공유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은 해당지역 거주 문인을 대상으로 하고, 문예진흥기금은 전국 문인을 대상으로 함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거주 뿐 아니라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문인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우수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성상,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문화재단과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신청대상은 중복될 소지가 많음
-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지원’사업과 지역문화재단이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레지던시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대안공간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 사업과 부분적 중복의 소지가 있음

63) 2015년에는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국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 지원사업 및 지역협력형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구체화

- 이에 따라,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안공간이 레지던시 사업에는 문예진흥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2015년부터는 지역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함
- ‘전통예술공연활동지원’사업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고(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는 신청할 수 없도록 함
- 국제교류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뿐 아니라 외교부 국제교류재단 등 타 부처와도 유사한 사업이 있어, 선정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2개 이상 선정시 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복지원을 막고 있음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타 기관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도록 함
 - 2014년에는 선정된 총 144건의 사업 중 4개 사업이 타 기관과의 중복 선정을 이유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기함
 - 국제교류재단과는 MOU를 체결하고 지원정보를 공유하여 중복지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표 III-72〉 2014년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유사지원 포기내역

연번	지원대상자	사업명
1	이불	영국 버밍엄 아이콘 미술관 초청 이불 개인전
2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콩코 킨사사, 브라자빌 '한국무용특집' 개최
3	임동창	임동창 풍류 '허튼가락'사라예보 공연
4	축제의땅(진옥섭)	축제의 땅,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A Tapestry of Sacred Music" 초청 공연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실적보고서,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부분을 참조하여 작성

- 서울아트마켓(PAMS)을 개최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는 2012년 MOU를 체결, 팸스 초이스(PAMS Choice)선정 작품의 해외 공연을 지원하는 ‘ARKP-PAMS 협력사업 지원’을 신설하고 양 기관 간의 대표사업을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개발함
 - ‘ARKO-PAMS 협력사업지원’은 동일 사업(동일 작품으로 동일 장소에서 개최)으로 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작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사업에서 진행하는 향유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이나 대상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고 있음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경우,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군부대, 교정시설 등 문화소외지역을 방문하며, 국비와 문예진흥기금 지원단체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함
 -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의 경우, 지역문예회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연하며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음

-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유사한 성격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것을 감안하여, 2014년 신규단체 선정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함
 - 문화적, 경제적 소외지역을 최대 3년 연속 지원하는 것으로 차별화

-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선정된 서울지역 단체는 서울 문화재단 예술창작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불가능함

〈표 III-7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유사사업 비교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명	중앙		광역		민간	판단기준	특징
		문체부	문체부 산하	서울시/서울문화 재단	지자체/지역문화재단			
예술 창작 지원	문학창작활동지원			문학창작집발간 지원	전문예술연구출판지원 (경기)		수혜대상 자격	문화예술위원회:5년이상&5년미만 중 36세 이상 서울:서울거주&거점, 10년이하문인 경기:경기거주,3년기고&저술실적작가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연희문학창작촌			지원기간 사업방식	문화예술위원회:다년(2년), 공간간접지원 서울:3개월~6개월, 직접운영
	공공미술사업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내용 기대효과	문화예술위원회:예술의 공공성 확장 문체부:지역활성화 일자리창출, *비고:2015년 2개사업 통합
	창작뮤지컬육성지원 (아르코창작아카데미, K-뮤지컬 아카데미)					충무뮤지컬전문아카 데미(충무아트홀)	수혜대상 지원기간	문화예술위원회:다년(2년), 창작자 단년(3개월), 프로듀서, 매니저 충무: 5개월, 극작가, 작곡가
	융복합예술창작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수혜대상 사업내용	문화예술위원회: 공모 및 기획, 타분야도 지원 지자체: 공모, 해당지역 예술단체, 예술가
예술 인력 육성	차세대예술인력육성 (AYAF지원사업)			유망예술육성지 원사업		CJ Creative Minds (CJ문화재단)	분야	문화예술위원회: 8개 전 분야 서울: 다원, 전통, 음악, 무용, 시각, 연극 CJ: 연극, 뮤지컬 신인창작가
	예술인력재교육		아르떼 아카데미 (진흥원) 콘텐츠아카				수혜대상 자격	문화예술위원회: 무대예술관련종사자, 공연예술단체종사자 진흥원: 예술강사, 문화행정인력 콘진원: 대중콘텐츠분야

			데미 (콘진원)					
국제 예술 교류	민간국제예술교류	중앙정부 단위			지역정부단위		수혜대상	문화예술위원회:민간 문체부:국공립/정부사업위탁단체 지자체:지자체소속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 -해외레지던스(문학)		작가파견해 외레지던스(한국문학번 역원)			대산UC버클리레지던 스(대산문화재단)	사업기간	문화예술위원회: 3개월 한국문학번역원: 2개월(*2015년 문화예술위원회와 통합) 대산: 6개월(순수창작분야)
생활 속예 술헌 성화	통합문화이용권 사랑티켓						수혜대상 사업내용	문화이용권: 기초생활, 차상위 사랑티켓: 어르신, 아동청소년
	소외계층 문화순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내용 기대효과	문화순회:소외지역방문, 문화양극화해소 방방곡곡:국립예술단체참여,지역문제 회관역량강화 찾아가는:지역예술단체가 지역주민대상공연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마을미술 프로젝트	문화이모작(한국문화관 광역연구원)	서울시 마을공동체			수혜대상 지역	생활문화공동체:서울제외 전국대상 서울시마을공동체:서울지역 문화이모작:농촌지역
예술 가치 의사 회적 확산	문화예술홍보및간행물 발간-문예연감					문화관광연감(문공회) 한국문화예술연감(한 국문화사회연구원)	사업내용	문화예술위원회: 수록내용 차별화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실적보고서 內 각 사업별 유사사업 비교표 항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3.2.2. 사업분야별

□ 창작지원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중앙의 문화체육관광부 유관기관 사업 중에서 유사사업은 교육과 인력파견, 국제교류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외부기관들은 정관 혹은 법으로 규정된 고유사업 이외에 국고에서 이관된 사업의 주관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예술창작지원사업의 경우 중앙의 타 기관과 직접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은 없으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과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가 중복될 가능성은 있음
 -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역량강화사업은 ‘긴급복지지원’으로 실업급여의 성격이 강했지만, 2015년부터는 ‘창작활동 장려’를 목표로 창작역량 강화사업의 비중을 높여 ‘창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구축’ 사업과 유사한 시각예술분야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지원’은 창작지원보다는 국제교류 기반조성 사업에 가까움
- ‘예술인 복지’분야를 전담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출범으로, 문예진흥기금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은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영역의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만 남게 되었음
 -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은 수혜자 사망시 지급을 중단하는 ‘일몰제’사업이지만, 예술인복지재단이 2015년부터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신설하면서 관련사업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 교육

- 교육사업 중 현장인력 재교육 분야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3개 기관의 사업과 일부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교육대상은 문화예술위원회는 기획인력과 스텝인력,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기획인력,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인력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음

- 교육의 세부내용은 예술인의 취업과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실무교육,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교양교육 등 기관별로 차별화 됨
 -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경영아카데미’를 초급, 중급, 입문, 심화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종사자들의 실무능력강화와 함께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하고 있음
-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예술인의 역량강화와 직업전환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유일하게 본인이 선택한 강좌에 대한 수강료를 직접 지원해주는 바우처 형식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인력파견

- 인력파견형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사업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기획인력 고용을 지원하고 기업, 예술단체 등과 연계해 예술인에게 신규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기획인력 파견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 내부에서 경력단계별로 1단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 인턴, 2단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현장배치지원’, 3단계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지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예술인 고용 지원사업은 예술인복지재단, 스텝인력지원사업은 문예진흥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음
- ‘예술인파견지원’사업에는 2015년부터 매개 인력인 ‘퍼실리테이터’지원이 추가되면서, 타 기관의 기획인력 파견사업과 수혜대상이 중복될 수 있음
 - 타 사업은 고용기관에서 인력을 선발하고 관리하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은 월급 형식으로 재단에서 직접 지급하는 차이가 있음

□ 국제교류

- 문예진흥기금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과 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분야의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일부 유사성을 보임

-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주로 공연예술분야의 국제교류와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진행했으나, 2015년부터는 국고사업 이관으로 시각예술분야의 사업규모도 커지는 추세임
 - 이에 따라 해외진출 및 유통기반구축을 위한 문예진흥기금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신규 시각예술분야 사업과 중복될 수 있음

□ 향유지원

- 문예진흥기금의 향유분야 사업은 기본적으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과 수혜대상의 중복가능성이 있음
- 농산어촌, 섬과 같은 문화소외지역, 소외계층이 거주하거나 모여 있는 기관을 ‘찾아가는’ 유형의 사업의 경우 특정대상과 지역에 사업이 집중될 가능성 존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지원-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농산어촌 지역의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문예진흥기금의 ‘통합이용권사업-기획프로그램’, ‘소외계층문화순회’에도 해당지역과 대상이 포함되어 있음
 -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나 분교,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노인복지시설이 주요대상지임
- 두 기관 모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향유사업이지만 군부대, 교정시설 등 일부 특수계층과 시설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도 향유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임
- 문예진흥기금의 향유사업을 통해서도 일부 교육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일부 사업에도 공연관람이나 전시감상, 체험프로그램이 혼재되어 있어 사업내용면에서도 중복될 여지가 있음
 - 일반인 대상의 ‘문화예술 명예교사’사업에서는 마스터클래스와 같은 교육형 프로그램 외에도, 유명 예술인의 대규모 강연과 공연이 혼합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시민문화예술교육 대상 확대(현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사업내용, 3년 연속 지원이라는 사업운영방식이 유사함

〈표 III-74〉 문예진흥기금 내부사업별-중앙기관별 유사사업

분야	구분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	장르	·문학창작활동지원 ·차세대예술인력육성-문학			
	유형	·코리아아티스트프로젝트(시각)	·한국미술글로벌플랫폼구축		
복지	대상	·원로문예인복지지원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창작금지원)
교육	창작	·뮤지컬창작인력육성			·예술인 교육 이용권지원
	기획	·뮤지컬기획인력육성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 ·문예회관아카데미	·예술경영아카데미 Link ·한류아카데미Tak	·아르떼 아카데미	
	스텝	·무대예술전문교육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인력 파견	신입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경력		·문화예술 기획경영 인력 현장배치지원		
	전문	·공연예술분야 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지원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지원 ·무대예술전문인력지원			
국제 교류	해외진출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ARKO-PAMS협력사업지원	·공연 및 전통예술 해외전략거점진출 지원사업		
	한국문화 세계화	·한국예술주간행사	·권역별해외문화원 순회패키지 사업		
	기반조성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지원 ·노마딕 레지던스 프로그램 ·전통예술텍스트번역 및 해외전통예술보급	·해외홍보 통합 홍보물(Into the Light)		
향유	공동체	·생활문화공동체지원		·시민문화예술교 육 대상 확대	
	관람형	·통합문화이용권-나눔티켓 ·사랑티켓			
	방문형	·통합문화이용권-기획프로그램 ·소외계층문화순회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지 원	

※각 기관별 2014년 사업 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 사업기준(국고 수탁사업제외)

※참조: 2015년 통폐합 사업: 한국예술주간행사

3.3. 시사점

- 문예진흥기금이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포괄적이며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예진흥기금의 세부 사업들은 문예진흥기금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이 어떤 분야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문예진흥기금 사업과 타 기관 사업과의 유사성 검토나 문예진흥기금 내 사업의 추가, 존속, 폐지 문제는 각 사업 내용의 비교 분석에 기반하기보다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이 지향하는 목적과의 연계성 속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3.3.1. 내부사업 개편

- 현재 ‘세부사업-세세부사업-기초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체계 내에서는 사업명만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최하위 분류단위인 기초사업 내에서 다시 5개 이상의 별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사업의 분류체계가 맞지 않음
- 각 기초사업별 예산과 사업규모, 세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문예진흥기금 내부사업간통폐합과 위계 조정이 필요함
- 전통분야는 2015년부터 관광기금사업으로 재이관되면서 재편되었으나, 지원분야에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함
- 다수의 인력파견형 사업과 현장인력 재교육 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유형에 따른 재분류가 필요함
- ‘예술인력육성’사업 중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은 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이동하고, 예술창작인력사업 내의 현장인력 재교육 사업, 인력파견형 사업을 ‘예술인력육성’사업으로 이동시켜 사업체계를 재편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인력파견형 사업은 사업목적이 다른 ‘전문인력파견’과 ‘인턴파견’을 구분하고, 큐레이터 처럼 동일한 직종의 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이 문예진흥기금 사업 내에서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 교육사업은 장르별, 직종별, 경력단계별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3.3.2.외부기관과의 유사사업 조정

- 중앙 주요 기관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100% 동일한 사업은 없지만, 사업의 목적이나 지원대상, 내용면에서 유사성을 가진 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작, 복지, 교육, 인력파견, 국제교류, 향유 등 사업분류체계 내에서 타 기관 사업 분야의 유사 중복성을 검토해보고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 기관들의 설립 목적, 고유의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기관별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해야 함
- 예술창작분야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만한 우수작가 및 작품, 전국 단위 공모, 다년 지원 등으로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한국예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한국문화예술세계화’사업, 민간예술단체의 해외시장 진출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세부분야별로 예술경영지원센터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이 필요함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에서 인바운드 사업과 아웃바운드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생활문화공동체지원’사업은 주민모임, 협동조합, 공동체 지원 등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자체가 많아, 중앙단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차별화가 필요함
- 종합적으로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대비해 선택과 집중, 기관간의 협업 등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문예진흥법에 근거한 기관의 역할 설정과 공공기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력육성, 국제교류, 향유분야 사업을 특화하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함

IV.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 및 지원 수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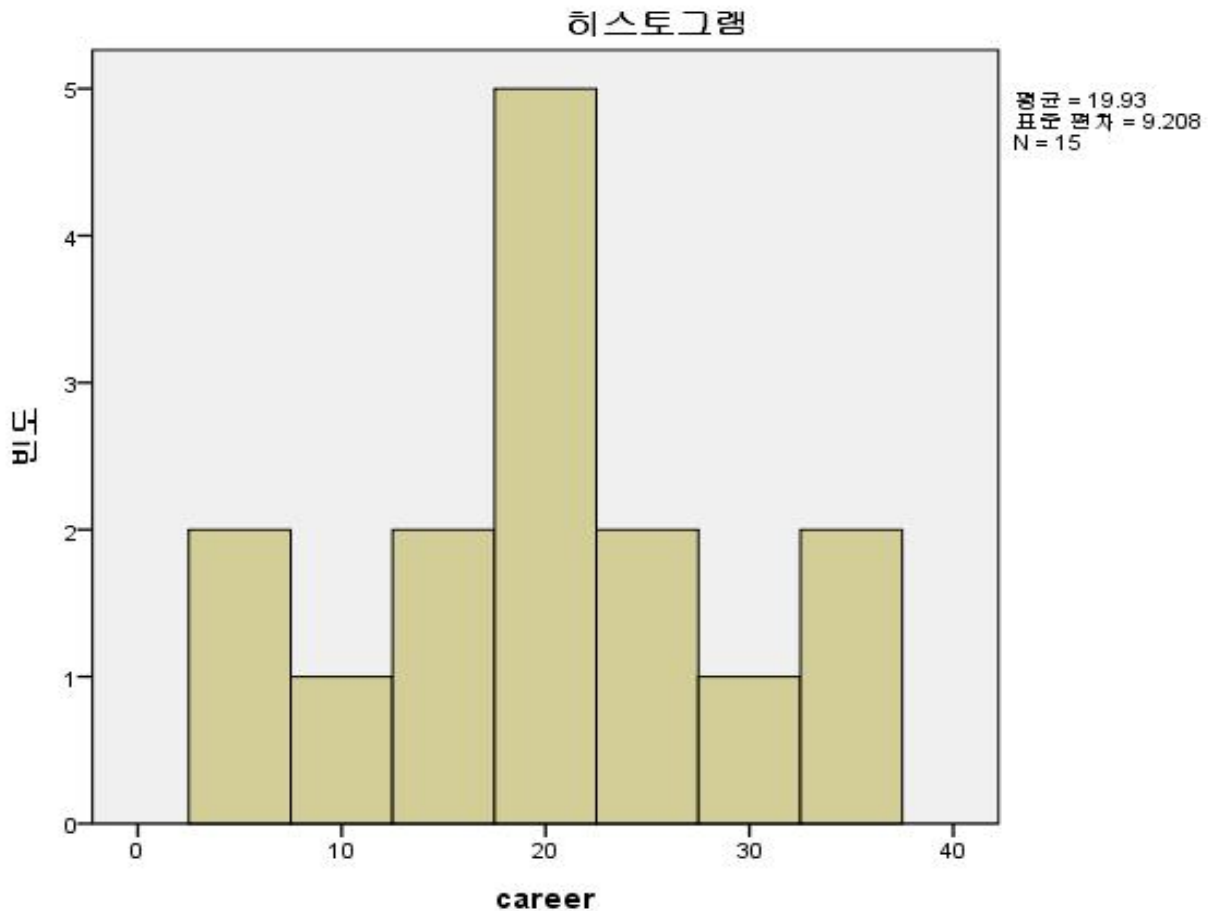
1. 조사 개요

- 목적: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예술인 및 정책 관계자들의 인식과 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 진행
- 대상: 총 18명 (예술인, 예술단체 관계자, 정책 담당자 등)
- 기간: 2015. 6. 22 - 6. 30
- 내용: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 분야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지원 성과에 대한 평가, 지원 기관간 지원사업의 유사 중복 문제에 대한 인식,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제안 등

〈표 IV-1〉 조사대상의 특성

구 분		빈도	퍼센트
연령	36-39세	1	5.6
	40-45세	5	27.8
	46-49세	3	16.7
	50-55세	3	16.7
	56-59세	4	22.2
	무응답	2	11.1
종사 분야	창작활동(개인)	3	16.7
	창작활동(단체)	1	5.6
	공공지원기관(문화재단등)	6	33.3
	문화시설	1	5.6
	비평분야(잡지포함)	3	16.7
	연구 기관	3	16.7
	교육 기관	1	5.6
활동영역	문학	2	11.1
	시각 예술	3	16.7
	공연 예술	5	27.8
	교육/연구	6	33.3
	국제 교류	2	11.1

- 대상자 18명 중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의 직접적 혜택 수혜자는 13명이었음
- 대상자가 직접 판단한 해당 분야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인지 수준은 18명 중 11명이 “잘 안다”라고 응답했고 “안다”에 해당하는 응답이 5명, “보통”에 해당하는 응답이 2명이었음
 - 대상자들이 해당 분야 사업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접 관여한 사업 이외에 모르는 사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음
- 해당 분야 종사기간에 대해서는 최소 5년부터 최대 35년까지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으며 무응답을 제외한 15명의 평균 종사기간이 19.93년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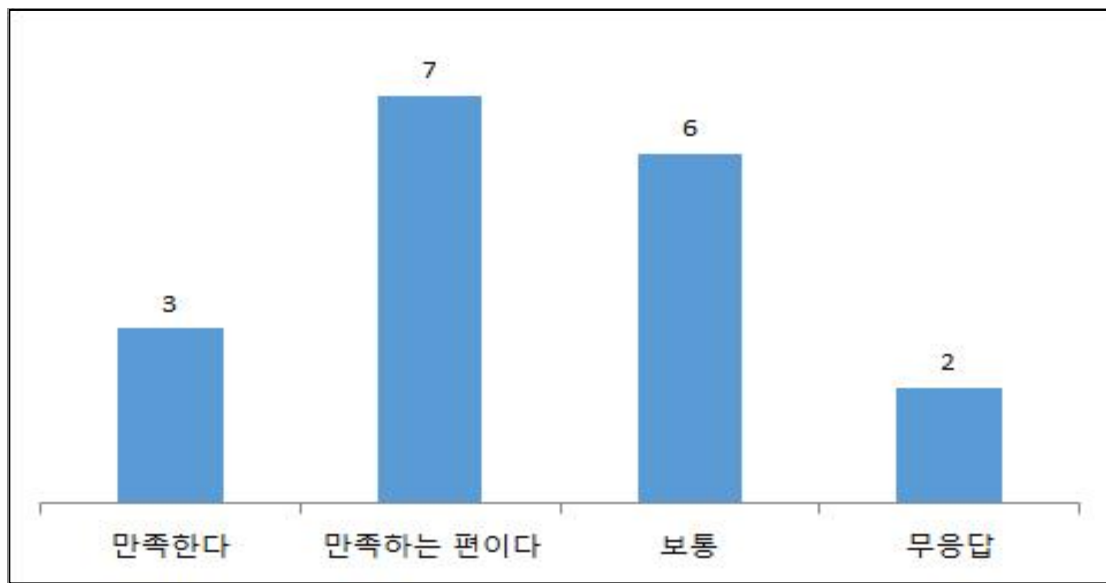


[그림 IV-1] 해당분야 종사 기간

2. 조사 결과(설문 및 FGD)

2.1. 문예진흥기금 사업 전체 평가

□ 만족도 및 불만 이유



[그림 IV-2] 현재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응답자: 18명)

-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를 물었을 때 관계자 18명 중 10명으로 55.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 관계자 18명 중 만족이라는 응답이 3명인 16.7%였고 만족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7명인 38.9%였음
 - 보통이라는 응답은 18명 중 6명인 33.3%였고 2명이 응답을 하지 않음
- 만족이라는 응답이 전체 관계자의 절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 본 조사결과가 소수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익명이 보장되는 다수의 설문조사에서는 만족도가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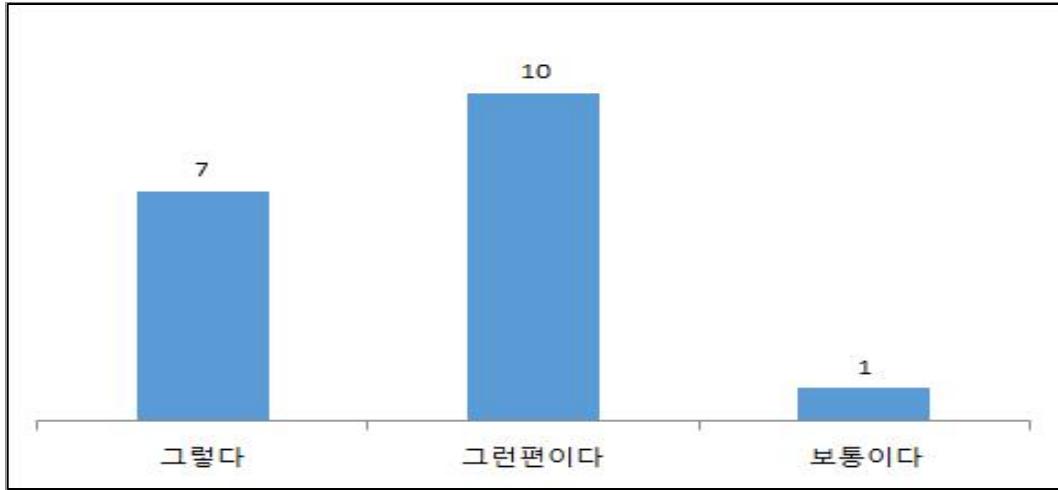
〈표 IV-2〉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만족 (만족하는 편이다+만족한다)	만족 (만족한다)
1) 시각예술분야	0 / 2	0 / 2
2)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	4 / 5	2 / 5
3) 국제교류분야	2 / 3	0 / 3
4) 예술인력육성분야	2 / 3	1 / 3
5) 문학분야	1 / 2	0 / 2
6) 공연예술분야	1 / 3	0 / 3

* 표 안은 해당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임.

- 사업분야별로 보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로서 5명 중 4명이 만족하고 있었음
- 시각예술분야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시각예술분야로서 2명 모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다음으로 불만족의 이유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알아 본 결과 지원 원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지원 규모 확대의 필요성도 지적되었고 지역문화재단 매칭의 부담도 지적되었으며 현장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의 현실성 결여 등이 제시되었음. 각 분야별로 보면
 -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라 설득력 있는 원칙에 맞는 심층적 사업부분 증가 필요”, “거시적 방향, 철학의 결여”가 지적되었음
 - 국제교류 분야에서는 “예산부족”, “혜택민간단체 확대 필요”, “전략적 지역사업 강화”, “지방문화재단 지원사업 최소매칭으로 집행지원 필요”, “소액다건, 집중지원 등 뒤섞여 있음”이 지적되었음
 - 예술인력육성 분야에서는 “인력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부족”, “매년 같은 사업만 이루어지고 있음”이 지적되었음
 - 문학분야에서는 “특정 분야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행사 등에 지원되는 사례가 있음”이 지적되었음

□ 기여도 평가



[그림 IV-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 (응답자 18명)

- “현재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들이 해당분야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자 18명 중 17명이 그렇다고 응답을 해서 94.5%가 동의하였음
 - 관계자 18명 중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10명인 55.6%로서 절반을 넘었고 그렇다는 응답이 7명인 38.9%였음
- 문예진흥기금이 고갈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관계자 대부분이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결과로 평가됨
- 앞서 본 만족도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과 달리 기여도에서는 대부분 동의한다는 점은 현재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예술계 대부분이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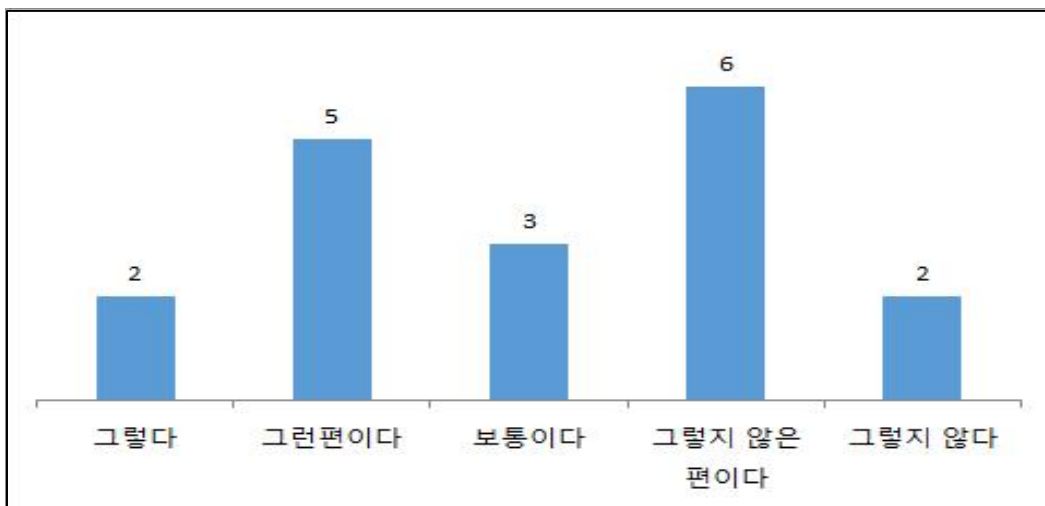
〈표 IV-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해당 분야 발전 기여도에 대한 인식

	동의 (그런 편이다+그렇다)	동의 (그렇다)
1) 시각예술분야	2 / 2	1 / 2
2)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	5 / 5	3 / 5
3) 국제교류분야	3 / 3	1 / 3
4) 예술인력육성분야	3 / 3	2 / 3
5) 문학분야	1 / 2	0 / 2
6) 공연예술분야	3 / 3	0 / 3

* 표 안은 해당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임.

- 현재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해당 분야 발전 기여도에 대한 분야별 조사결과를 보면 문학분야에서만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나왔고, “그렇다”는 명확한 응답의 빈도를 보면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와 예술인력육성분야에서 동의의 수준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문학분야와 공연예술분야에서는 동의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불필요 사업 존재



[그림 IV-4]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지원 필요성 적은 사업 유무 (응답자 18명)

- “현재의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에 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들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서는 관계자 18명 중 7명(38.9%)가 동의한 반면, 8명(44.4%)이 반대를 하여, 동의 보다는 반대의 의견이 약간 많았음

- 관계자 18명 중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는 명확한 응답은 각각 2명으로 같은 빈도로 나타났음

○ 현재 불필요한 사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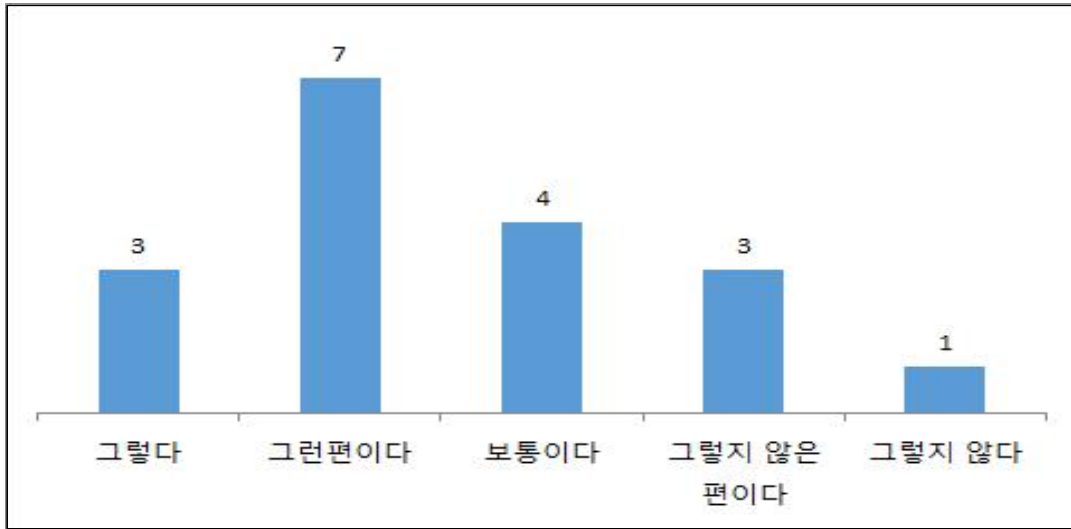
〈표 IV-4〉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 적은 사업 존재에 대한 인식

	동의 (그런 편이다+그렇다)	동의 (그렇다)
1) 시각예술분야	2 / 2	2 / 2
2)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	0 / 5	0 / 5
3) 국제교류분야	2 / 3	0 / 3
4) 예술인력육성분야	1 / 3	0 / 3
5) 문학분야	1 / 2	0 / 2
6) 공연예술분야	1 / 3	0 / 3

* 표 안은 해당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임.

- 현재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지원 필요성 적은 사업 존재에 대한 분야별 조사결과를 보면 시각예술분야에서 2명 모두 “그렇다”고 응답하여 동의하는 의견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국제교류분야에서도 3명중 2명이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동의하는 의견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음
- 반면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에서는 동의하는 의견을 보인 응답자가 없어서 지원 필요성이 적은 사업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다른 기관 지원사업과의 유사성



[그림 IV-5]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중 타 기관 유사 사업 유무 (응답자 18명)

- “현재의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에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자 18명 중 10명(55.6%)이 동의하여 절반 이상이 사업의 유사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사한 사업의 존재에 대한 반대의 의견은 관계자 18명 중 4명(21.8%)에 머물렀음

<표 IV-5>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타기관 지원 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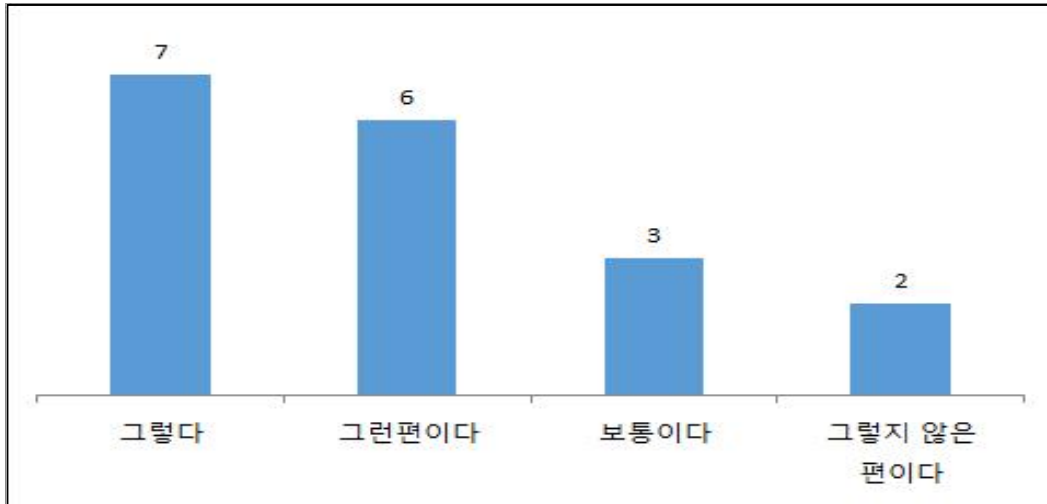
	동의 (그런 편이다+그렇다)	동의 (그렇다)
1) 시각예술분야	2 / 2	1 / 2
2)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	1 / 5	0 / 5
3) 국제교류분야	2 / 3	1 / 3
4) 예술인력육성분야	2 / 3	0 / 3
5) 문학분야	1 / 2	1 / 2
6) 공연예술분야	2 / 3	0 / 3

* 표 안은 해당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임.

- 현재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타기관 지원 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한 분야별 조사결과를 보면 시각예술분야에서 2명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으며, 국제교류분야, 예술인력육성분야, 공연예술분야에서 3명 중 2명이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음

-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에서는 5명중 1명만이 동의하는 의견을 보여서 타기관 지원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한 동의가 가장 적게 나타났음

□ 사업 차별화 필요성



[그림 IV-6]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타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필요성 (응답자 18명)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타 지원사업간에 지원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자 18명 중 13명(72.2%)이 동의하여 사업 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 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의 의견은 관계자 18명 중 2명(11.1%)에 머물렀음
- 앞서 살펴본 사업 유사성 인식 보다 사업 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음
 - 현재 사업이 타 기관 지원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을 차별화해야 하는 논리 외에도 현재 사업이 실제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사업의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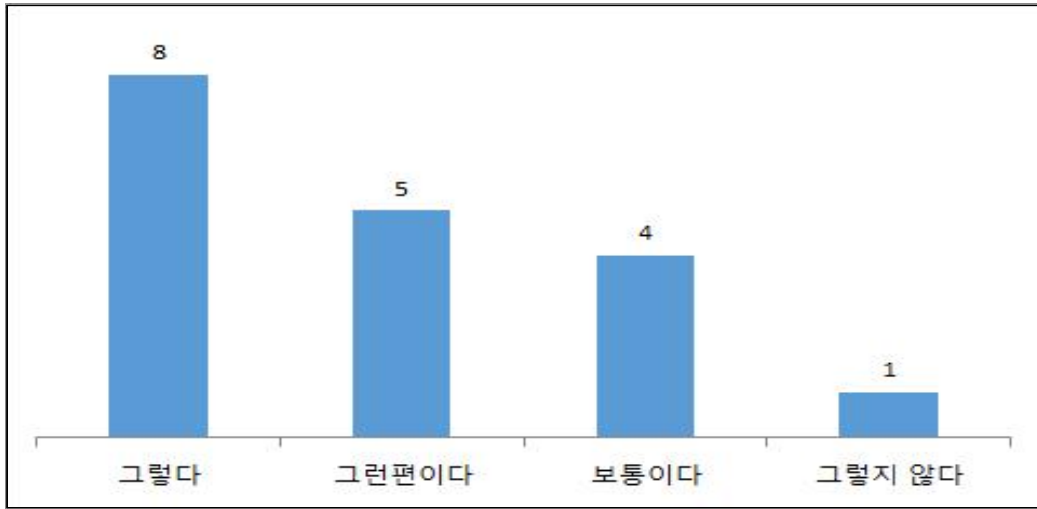
〈표 IV-6〉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타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동의 (그런 편이다+그렇다)	동의 (그렇다)
1) 시각예술분야	1 / 2	1 / 2
2)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	5 / 5	1 / 5
3) 국제교류분야	2 / 3	1 / 3
4) 예술인력육성분야	2 / 3	2 / 3
5) 문학분야	1 / 2	1 / 2
6) 공연예술분야	2 / 3	1 / 3

* 표 안은 해당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임.

- 현재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타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필요성에 대한 분야별 조사결과를 보면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에서 5명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으며, 국제교류분야, 예술인력육성분야, 공연예술분야에서 3명 중 2명이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음
-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에서는 특히 현재 사업의 타기관 지원사업과의 유사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응답이 적었으나 사업 차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혜자 수 증가보다 실질적 혜택 증가 필요성



[그림 IV-7] 수혜자 수보다 수혜의 실질적 혜택 강화 필요성 (응답자 18명)

- “수혜자 수를 늘리기보다 수혜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관계자 18명 중 13명(72.2%)이 동의하여 수혜자 수 확대 보다 실질적 혜택 강화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혜의 실질적 혜택 강화에 대한 반대의 의견은 관계자 18명 중 1명(5.6%)에 머물렀음
- 사업 성과의 양적 지표가 될 수 있는 수혜자 수 증가 보다 사업 수혜자들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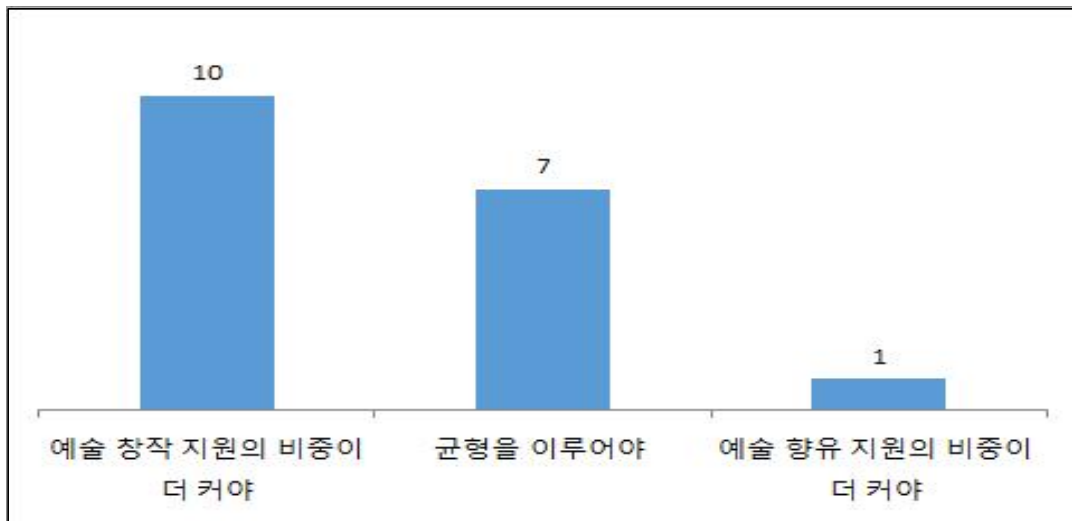
<표 IV-7> 수혜자 수 증가 보다 수혜의 실질적 혜택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동의 (그런 편이다+그렇다)	동의 (그렇다)
1) 시각예술분야	1 / 2	1 / 2
2)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	5 / 5	3 / 5
3) 국제교류분야	1 / 3	0 / 3
4) 예술인력육성분야	2 / 3	2 / 3
5) 문학분야	1 / 2	1 / 2
6) 공연예술분야	2 / 3	1 / 3

* 표 안은 해당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임.

- 수혜자 수 증가보다 수혜의 실질적 혜택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분야별 조사결과를 보면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에서 5명 모두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으며, 예술인력육성분야, 공연예술분야에서 3명 중 2명이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음
- “그렇다”는 명확한 동의의 응답 빈도를 보면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에서 5명 중 3명, 예술인력육성분야에서 3명 중으로 나타나서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혜의 실질적 혜택 강화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음

□ 창작과 향유 지원 비중



[그림 IV-8] 창작과 향유 지원의 비중에 대한 의견 (응답자 18명)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서 창작과 향유 지원의 비중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 18명 중 10명(55.6%)이 “예술 창작 지원의 비중이 더 커야 한다”는 의견으로 응답한 반면, “예술 향유 지원의 비중이 더 커야 한다”는 의견은 1명(5.3%)에 불과했음
- 근래 향유 지원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반면, 창작 지원의 규모가 담보 상태에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표 IV-8〉 창작과 향유 지원의 비중에 대한 인식

	창작이 커야	균형	향유가 커야
1) 시각예술분야	2	0	0
2)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	1	3	1
3) 국제교류분야	3	0	0
4) 예술인력육성분야	1	2	0
5) 문학분야	1	1	0
6) 공연예술분야	2	1	0

- 창작과 향유 지원의 비중에 대한 분야별 조사결과를 보면 시각예술분야, 국제교류분야에서는 응답자 모두 창작 지원의 비중이 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와 예술인력분야에서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응답의 빈도가 각 3명, 2명으로 많이 나왔음
- 향유 지원의 비중이 커야 한다는 응답은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분야에서 1명이 나왔음
- 분야별 사업 특성에 따라 가지는 창작과 향유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비중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2. 문예진흥기금 사업 분야별 평가

□ 시각예술분야

〈표 IV-9〉 시각예술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응답 결과	평균
1)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	3.5
2) 시각예술행사 지원사업	++	4
3) 시각예술 비평 연구 활성화 지원사업	++	4.5
4) 공공미술사업 운영 지원사업	+	2.5
5) 사립미술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	2
6) 사립미술관 전문인력운영 지원사업	+	3.5
7)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 지원사업	+	3.5
8) 융복합 예술창작 지원사업	-	2.5
9) 시각예술 분야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지원사업	++	4
10)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지원 사업	+	3
11)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	2
12) 원로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	2

* +는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 -는 “필요성이 적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를 표시.

“보통”은 표시하지 않음.

** 평균은 “필요성이 적다”의 1점부터 “필요성이 크다”의 5점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임.

- 2명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모두 인정한 사업은 시각예술행사 지원사업, 시각예술 비평연구 활성화 지원사업, 시각예술 분야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지원사업이었으며, 평균값은 시각예술 비평 연구 활성화 지원사업이 4.5로 가장 높았음
- 2명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사업은 사립미술관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원로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이었으며 세 사업 모두 평균값이 2로 가장 낮았음
-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소액다건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의 사업 구조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많았음

- 사업 평가자로서 참여한 경험을 볼 때 현재의 사업은 소액다건으로 복지적 성격이 강해서 제대로 평가할만한 상황이 되지 않음
 - 복지적 성격이 강한 소액다건의 사업 구조에서 도록 인쇄, 카탈로그 제작 등의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예술적 향상을 요구하는 심층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평가함
 - 시각예술분야 지원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지원 현실에서는 이와 같은 소액다건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상 유지 이상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지원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하여, 심사위원들을 1년에 한두번 갑자기 소집하는 상황에서 소액을 지원해 주던 대상자들을 대폭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안건이 제안되어도 현실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이를 지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책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 원칙에 따른 집행 의지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심사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자신감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회가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는 상황임
- 원칙과 의지를 갖고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예술창작 지원의 방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사립미술관 지원의 필요성 혹은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사립미술관이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과연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전체 생태계에 비추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여러 분야에 걸쳐 사립미술관에 대한 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함
 - 일부 사립미술관이나 특정 기관이 조직과 시스템이 크고 외양이 좋아서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타남
- 수혜 예술단체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자생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됨
-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고 싶지만 심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원을 일부 축소하면서 지속되는 상황이 일부 존재함

-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안공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됨
 - 대안공간이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 제도화되고 혁신적인 성격이 약화되어 젊은 신진 예술가들과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를 제시

- 현재의 대안공간 지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젊은 작가들 중심의 새로운 대안공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 지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추진체계에 대해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함
 - 한편으로 심사위원 선정과 같은 전문가 활용에서는 연속성이 없는 반면 ,지원기구의 구조라는 점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거 조직 구성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음
 - 지원 분배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 분야

〈표 IV-10〉 예술향수 및 지역문화진흥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응답 결과	평균
□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		
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	4
2)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	4.2
3) 사랑티켓 사업	++-	3.6
4) 방방곡곡 문화공감	+++-	4
5) 창작나눔(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3.8
□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6)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사업	++++	4.8
7)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	++++	4.2
8)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	+++++	4.6

* +는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 -는 “필요성이 적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를 표시.

“보통”은 표시하지 않음.

** 평균은 “필요성이 적다”의 1점부터 “필요성이 크다”의 5점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임.

- 5명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모두 인정한 사업은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이었고, 5명중 4명이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소외계층 문화소외 사업,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이었으며, 이 중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사업의 평균값이 4.8로 가장 높았음
-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응답이 나온 사업은 사랑티켓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창작나눔에서 각 1명의 응답자가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 중 사랑티켓 사업의 평균값이 3.6으로 가장 낮았음
- 사랑티켓사업은 처음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서 사업의 차별성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초기에 관객 개발의 성격이 강했다가 복지 사업으로 사업 성격이 전환되고 노년층 포함으로 연령층 중심의 사업 구조가 되면서 사업의 취지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 지역문화진흥 차원에서 보면 공연장상주단체 사업은 장르간 문예진흥의 균형을 깨뜨린 문제가 나타남
 - 한정된 예산에서 공연장상주단체 사업에 큰 지원이 나가면 그 결과 문학이나 시각예술 진흥에 사용될 예산이 크게 부족해짐
- 지역문화진흥에서 시민예술이나 향수지원이 신장되는 반면 순수예술진흥의 지원이 담보되면서 위축된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문화재단 사업 초기에 대부분을 차지했던 순수예술 지원은 규모가 변화되지 않은 반면, 시민예술, 향수지원 등의 규모가 최근 급증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비판적 인식을 초래하면서 순수예술 지원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기금 고갈이 순수예술 지원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중시키고 있음
- 지역 현장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 확보의 요구가 제기됨
 - 현재의 예산집행 구조는 지역기관이 지역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역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상황임
 - 예산의 전체 규모만 정하고 그 안에서 사업구조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함
 - 공연장상주단체 지원사업의 예산이 지역의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인식이 존재
-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불확실성에서 나타나는 위기감이 표출됨
 - 일반회계로 편입되거나 지역특별발전회계로 편입되어 문화예술예산이 지자체장의 의지나 의회의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함
 - 새로운 민간기금 조성이나 문화복권 도입의 희망이 제시됨
 - 문화예술인이나 기구, 단체들이 예산결정권자들을 상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상이한 평가가 제시됨
 -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명성을 쌓은 성공적 경우들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음
 -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지원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향유 분야에서는 예산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급격하게 예산 규모가 확대

되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표출됨

- 특히 문화향유 분야가 예술 창작 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됨

-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의 확대가 예술시장 생태계의 왜곡을 초래하는 위험을 지적함
 - 특히 문화향유 분야가 예술 창작 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됨

- 소외계층에 대한 강조 때문에 공연 상품의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이 약화되고 경제적 소외계층으로 소외계층을 한정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됨
 - 경제적 소외계층 특히 문화향유 분야가 예술 창작 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소외계층의 범위를 경제적 소외계층이나 특수취약계층으로 한정시킴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 문화향유 정책의 수혜자들의 향유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용을 조절할 수 있는 할당 정책을 제안함
 - 특정 장르에 따른 할당을 부여하여 다양한 장르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지역에 자율성을 주고 재원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는 입체적 설계의 가능성과 현실을 볼 수 있음

일례로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예진흥사업을 하는 데에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게 입체적 설계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문화재단도 서울문화재단도 최소한 수도권에 있는 광역계 문화재단은 문예진흥사업을 입체적 설계를 하는데요. 일례로 창작을 위한 지원은 물론이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세팅부터 활용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향수자들이나 교육 영역에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예산은 전부 다 따로따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위한 나눔사업예산 별도로, 교육사업 별도로, 뭐 따로 뭐 따로 그런데 그것도 각각의 지침들이 따라서 오는 거죠.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고. 사실 지역에 내려오면 지역 생태계를 건강하게 맞춤 세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전부 다 한 주머니로 들어와서 그 생태계의 전이 단계에 따라서 여기는 씨앗 뿌리는 단계인지 여기는 추수하는 단계인지 여기는 개간해야 되어야 되는 단계인지에 따라서 세팅이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 신규사업으로는 서울시 사업 사례로서 예술인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을 제시함
 - 예인촌을 바탕으로 공동창작실, 회의실, 교육장을 운영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도 예술적 수혜를 받고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가능할 것으로 제시

- 신규사업으로서 문화예술공간을 문화예술단체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함
- 신규사업이 될만한 사례로서 경기문화재단의 인천문화재단의 청년플레이스 사업이 제시됨. 청년플레이스 사업은 청년들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여 제공하여 예술작업도 하고 기획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함.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여러 구조의 지원사업에도 응모할 수 있는 준비를 수행함. 청년기획자들을 인천으로 유입하는 동인이 되었고 청년들끼리 파트너십 형성에도 기여를 함
-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문화발전기금 사업과의 차별화 정리가 필요함
 - 경기도의 경우 문예진흥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문화발전기금 사업이 있어서 주로 관내 단체, 협회들의 지원에도 사용되고 있음
 - 현재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분명한 규칙이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팔거리 원칙이 퇴색되는 경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됨
- FGI 과정을 통해 중앙에서 시행중인 신진예술가를 위한 사업의 인지도가 지역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국제교류 분야

〈표 IV-11〉 국제교류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응답결과	평균
□ 문화예술교류 및 협력		
1)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	4.33
2)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	4.33
□ 한국문화예술세계화		
3) 한국예술주간행사	++-	3.33
4)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	+++	4.67
5)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국고이관)	---	2
6) 아리랑세계화(국고이관)	---	1.67
7) 전통예술텍스트번역 및 해외전통예술보급(국고이관)	---	2.33

* +는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 -는 “필요성이 적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를 표시.

“보통”은 표시하지 않음.

** 평균은 “필요성이 적다”의 1점부터 “필요성이 크다”의 5점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임.

- 3명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모두 인정한 사업은 국제문화기관 협력지원,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이었으며,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과 한국예술주간행사는 3명 중 2명이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이 중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의 평균값이 4.67로 가장 높았음
- 국고이관되는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아리랑세계화, 전통예술텍스트번역 및 해외전통예술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3명의 응답자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중 아리랑세계화 사업의 평균값이 1.67로 가장 낮았음
- 일반회계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관되어 온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사업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됨
- 국제교류사업의 부처간 기관간 중복성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사업의 통합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 국제교류 목표의 명확성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적은 예산으로 모든 목적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음
 - 국제교류에 있어서 문화예술위원회가 목표로 하는 사업 방향이 분명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분야의 사업예산을 합해서 사업 규모를 키우는 시도가 필요함
 - 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사업의 목표가 작가 역량 개발인지 혹은 시장개발인지에 대해서 타기관 사업과 구분되는 차별적 정체성 확보가 필요함
- 예산집행보다 목표 기준 성과중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산의 번거로움이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됨
- 정산의 부담이 경감되어야 할 필요성과는 달리 최근에는 신뢰에 바탕을 둔 정산 제도가 과거 보다 더 후퇴하였으며,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좀더 유연한 정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영국처럼 사업의 목적 달성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한국예술주간행사가 폐지된 것에 대한 아쉬움과 긍정적 기능을 수행했었던 점이 지적됨
- 한국예술주간 행사 없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행사들이 물론 개별 작가들이 창작 역량에 도움이 되죠 이런 행사는 위원회에서 할 일인가 문진금으로 할 얘기인가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예술주간행사 물론 이 행사도 아티스트가 문학 작가들이 참여 함으로써 시각이 넓어지고 이런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창작 역량을 증진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은 갈라주는 게 좋지 않나.
- 현재의 외교부 유사 사업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국제교류 대상국 선정의 전략적 관점이 부족하여 관성적으로 교류해왔던 국가 중심의 교류 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임
- 미국, 유럽 중심의 사업 운영에서 중국,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으로의 사업 다변화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할당제 필요성 제시
 - 지역문화재단의 국제교류 사업 참여 필요성과 달리 실제 일부 지역문화재단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나타남
- 소액다건의 지원이 많은 상황인데 소액다건의 지원사업이 실제 필요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 예술인력육성 분야

〈표 IV-12〉 예술인력육성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응답결과	평균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1) 문학	+++	4.33
2) 시각예술	+++	4.33
3) 공연예술	+++	4.67
□ 예술인력재교육		
4) 예술인력개발원운영관리	+++	5
5) 무대예술전문교육	+++	4.67
6)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	+++	5
7) 전문무용수센터지원(국고이관)	+++	4.33
8)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국고이관)	+++	4.33
9) 전통예술기획자양성프로젝트(국고이관)	+++	4.67

* +는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 -는 “필요성이 적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를 표시.

“보통”은 표시하지 않음.

** 평균은 “필요성이 적다”의 1점부터 “필요성이 크다”의 5점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임.

○ 예술인력육성분야에서는 3명의 응답자가 현재 사업에 대해서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이 중 예술인력개발원 운영관리, 국제공연예술전문가시리즈의 평균값이 5로 가장 높았음

- 무대예술 아카데미 부활의 필요성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됨.
- 무대예술아카데미가 2000년대 후반 대에 운영되면서 많은 인력 배출의 성과를 쌓았고 현장에 투입되어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사업이 폐지되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공연예술계가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지만 적절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연법에서 국가가 무대예술인력을 양성할 책임이 제시되었음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상황인데 이를 개선해야 함
 - 공연시장이 계속 커지는 상황임에도 공급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는 잘 모르는 사람

을 뽑아다 가르쳐서 인력을 키우는 상황임

○ 극장 인력의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 회의적임

- 상업적인 공연 위주의 극장이나 대규모 극장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 제시됨

○ 신규사업으로서 15년 이상 경력자 리마인드 사업 필요성을 제기함

15년 이상 경력자들 리마인드 사업을 통해서 계속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복지로 돈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계속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니네 배 고프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명 받지 않는, 같이 시작 했는데 충분히 가치 있는 용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는 단순 지원을 줄이고 인프라 확충이나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술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정산 구조를 외국처럼 간소화해야 함

단순한 돈을 지원해 주는 개념 보다 기반 시설이든 인력의 기반 교육이든 인프라 확충해 주고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문진금 사업에서는 정상적으로 가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에서는 우선 심의를 해서 주면 신뢰를 하고 알아서 써라 밥을 먹든 무얼 하든.... 여기는 김치찌개를 먹으면 내역까지 증빙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예술가를 못 믿으니까 증빙 하라고 하는 건데 간소화 해 주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회적 인식 같아요.

○ 심의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함. NCS 보급 이후 투명성이 약화되었으며, 총평만 밝히고 단체와 금액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인데 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됨

- 문자로 결과를 통보받는 것 이외에 수혜단체와 금액이 동시에 공개되어야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문학 분야

〈표 IV-13〉 문학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응답결과	평균
1) 문학창작 활동 지원사업	++	4.5
2)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	4.5
3)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지원사업	++	4.5
4) 문학집필공간 운영 지원사업		3
5) 문학행사 및 연구 지원사업	+	3.5
6) 문학분야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지원사업	++	5
7) 한국문학세계화 지원사업	++	4.5
8) 원로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	2

* +는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 -는 “필요성이 적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를 표시.

“보통”은 표시하지 않음.

** 평균은 “필요성이 적다”의 1점부터 “필요성이 크다”의 5점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임.

- 문학분야에서 2명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모두 인정한 사업은 문학창작 활동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사업, 사이버문학광장 운영 지원사업, 문학분야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지원사업, 한국문학세계화 지원사업이었으며 문학분야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지원사업의 평균값이 5.0으로 가장 높았음
- 원로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명중 1명이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하여서 평균값이 2.0으로 가장 낮았음
- 문학집필공간 운영 지원사업은 2명의 응답자 모두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보통의 응답을 하였음
- 사이버문학광장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문학계 인사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대중적인 인기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달에 3만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기반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 문예지 지원 축소에 따라 원고비 지급을 통해서 혜택을 받았던 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했음을 비판함

- 문예지에 대한 지원은 전국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지방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중복 지원이라 볼 수 없으며 발간 지원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문예지 지원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업 규모의 유지가 필요

2015년 올해 진행된 사업 중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이 뭐가 있냐하면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이 대폭 축소가 되었어요. 2013년에는 20건 정도가 선정 되었다고 하면 올해는 4,5건으로 줄었거든요. 사실상 터를 만들고 작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는 문예지가 주류인데 이 문예지에서 이 기금을 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작가들한테 원고료 지급이 어렵게 되거나 작가들이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이 줄어들게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 한 명 한 명에게 기금이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예지 자체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서 인해서 작가들도 위축이 되고 편집자들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진작가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게 증가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그동안 수혜를 받아 온 것은 기성 작가들이라는 점이 지적됨
- 작가의 경력에 따른 지원기회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상이한 판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국가에서 하는 거는 이 아야프가 유일 하고 민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음사에서 주관하는 김수현 문학상은 등단 10년 이내 작가들만 지원을 할 수 있고 반대로 10년 이후에 했던 사람들만 모집하는 공고도 많고 민간 사업 중에서 저는 차세대 작가들만 지원 하는 게 많다고 생각 하는 게 오류가 많다. 이게 시작 한지 3년 차 거거든요. 얼마 안 되었고 사실상 예술 창작 지원이 더 많았던 과거 시절을 본다고 하면 수혜를 받은 거는 기성 작가들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저희가 오히려 혜택을 못 받으면 못 받았지 많이 받았다고 생각 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균형을 잡는 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20대)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견 이상 원로들에게는 잘 안 돌아가요. 지금 얘기한 김수현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개 30대 미만일 거예요. 30대 미만 작가들. 제자들도 보면 토지 문학상 이런데 가서 받아 오고 김유정 문학상 이런 데서도 받아 오고(60대)

- 수혜자들의 출판을 위한 관리 과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특히 신진작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출판 관리 지원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지원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작품집 발간이 조건인데 이에 대한 관리 성격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음

중요한 거는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랑 서울 문화 재단에서 매년 문학 창작 기금을 지원 해 줘요. 천 만원.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수혜를 받고 2년 이내에 작품집 발간을 해야 하는 조건이 거거든요. 이 천 만원을 어떻게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책을 2년 안에 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이 달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출판사에서 책을 내

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돈을 2년 안에 책을 못 냈을 경우에 반환을 하거나 이런 일도 종종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해요. 막연하게 2년 안에 내야 된다가 아니라 이 작가는 어디랑 계약했고 이 출판사에서 어떻게 출판이 진행 되고 있는지 ...

2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볼 때에는 딱 기금을 받아 가지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시작 하면 2년은 짧을 수 있지만 그 전부터 시를 쓰고 소설을 공부 해 온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를 문제로 내세우는 것이 객관성이 큰 거는 아닙니다.

- 생계지원과 창작지원의 성격을 구분하여 창작지원은 작가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성격의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 작가의 창의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른 장르 활동과의 연계 등 창작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말 그대로 예술가들의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는 말 그대로 생계 지원이 아니잖아요. 창작 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히 분리를 해서 생계 지원이 어려운 작가들은 생계비로 쓸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예술 창작 지원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데 돈 주고 너네 2년 안에 작품집을 내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창작 지원을 마련을 해주는 것이 본질적인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 창작에서 이래서 작가들을 뽑았고 신흥 예술에서 이런 작가들을 뽑았다고 하면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활성화 해서 부가적인 게 창출 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 지자체와 중앙의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해외교류의 경우 지역의 문화재단이 소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서울시 문화 재단에서도 한번 지원을 받아 본 적이 있는데 서울시 문화 재단에서는 해외 문화 교류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도 소극적입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문화예술위원회는 거기에 비하면 적극적이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 공연예술 분야

〈표 IV-14〉 공연예술 분야 사업별 필요성에 대한 응답 결과와 평균

	응답결과	평균
1) 공연예술행사지원	+++	4
2)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국고이관)전통예술진흥기반조성비	+++	4.67
3) (신규)기초공연예술활성화지원	+++	4.67
4) (신규)공연연습공간조성·운영지원	+++	4
5) (신규)시민참여형예술프로젝트	+·-	2.67
6) (국고이관)창작뮤지컬육성지원	+++	4.33
7) (국고이관)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	4.33
8) (국고이관)공연예술활성화기반조성	+++	4
9) (국고이관)전통공연예술활동지원	+++	4
10) 융복합예술창작지원	+++	4.67
11) 공연예술 분야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	4.67
12) (국고이관)전국무용수센터지원	++	4
13)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	4.67
14)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	4.33
15) 한국예술주간행사	+++	4.33
16)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	+++	4.67
17) (국고이관) 아리랑 세계화	+	3.67
18) (국고이관)전통예술텍스트 번역 및 해외전통예술보급	++	4

* +는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 -는 “필요성이 적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를 표시.
“보통”은 표시하지 않음.

** 평균은 “필요성이 적다”의 1점부터 “필요성이 크다”의 5점까지 5점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임.

- 공연예술분야에서 3명의 응답자가 필요성을 모두 인정한 사업은 공연예술행사지원,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기초공연예술활성화지원, 공연연습공간조성·운영지원, 창작뮤지컬육성지원,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지원, 공연예술활성화기반조성, 전통공연예술활동지

원, 융복합예술창작지원, 공연예술 분야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문화기관협력지원, 한국예술주간행사,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이었으며, 이 중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기초공연예술활성화지원, 공연예술 분야 차세대예술인력육성(AYAF),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기반강화지원의 평균값이 4.67로 가장 높았음

- 3명의 응답자 중 1명만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으로는 시민참여형 예술프로젝트, 공연예술브랜드화사업, 아리랑세계화가 있으며 이 중 시민참여형 예술프로젝트는 필요성이 적다는 평가도 있어서 평균값이 2.67로 가장 낮았음
- 단일프로젝트 사업이나 끼워넣기 성격의 사업 등 사업 성격이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성격에 잘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됨
-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기관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일본의 유사 사례가 있으나 일본은 애초에 국립극장을 운영하기 위해 만든 법인이 1990년대에 예술 지원을 하게 된 상황으로 전후관계가 반대인 경우임
-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의 명확성이 프로그램 명칭에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다양한 종류의 사업들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서는 사업의 다목적성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인정하는 사업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됨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다목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목적에 더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혼선이 일부 존재함
 - 지역 여건에 따른 차이도 매우 커서 이를 고려하는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시민참여형 예술지원은 지역문화재단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특별히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의견 제시

3. 시사점

- 문예진흥기금 고갈과 지역특별회계로 지역형사업 예산이 이관되면서 이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
- 문화재원 조성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전망을 예술계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문예지원 기관의 다원화, 사업의 유사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원칙 정립, 강력한 시행의지, 개별 사업의 명확한 목표 설정, 목표성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 일반회계와 기금 사업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금 사업 수행에 대한 예술계의 공감을 얻기 위한 작업을 확대 강화해야 함
 - 원칙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목표 제시가 이루어져야 예술계를 설득하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원칙에 입각한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예술 동향을 파악하고 예술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과 다양한 소통 창구 확대 노력이 필요함
- 지역의 문화재단들이 증가하고 사업 경험이 축적되면서 지역 문화재단과의 상생적 관계 정립이 필요함
 - 지역의 현장성, 전문성,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방식의 개발이 필요함
 -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산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다양화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내부적인 갈등 요인들이 생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먼저, 생활예술지원이나 향유 지원의 비중 증대 결과 창작예술지원이 위축되고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음

- 향유 지원 증가가 창작 환경 기반의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에 대해서 예술가 집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 예술가에 대한 지원에서도 예술인 복지 도입에 따라 이전에 복지적 성격을 갖고 있던 창작지원의 성격이 이제 좀 더 창의적인 예술 지원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남
- 또한 세대별 특화된 지원이 증가하면서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잠재적 갈등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력 경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세대에 대한 지원이 균형을 이루도록 사업의 전체 운영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영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이 과도해졌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영 아티스트 지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계속 증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중견 예술가나 예술기획자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은 영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함
 - 원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비판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층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원 심사 과정과 관련한 투명성 증대와 소통의 노력이 확대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하며 청탁 불이익 감수 서약서의 의무 제출과 시민 참관단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V. 문예진흥기금사업 종합 진단 및 개선 방안

1. 종합 진단

- 이 연구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하여 지원 목적과 방향, 지원 내용, 추진 체계, 성과 등의 차원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해봄으로써 그동안 문예진흥기금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음
- 1973년 문예진흥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기금지원 사업은 우리나라의 문화관련 인프라 구축 및 예술창작 활동 지원, 나아가 2000년대 중반들어서면서 국민, 특히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원하면서 문화예술분야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수요는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도 확인됨. 그러나 이러한 개선 필요성이 동일한 방향이나 내용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예술 장르별, 지원 분야별(창작, 향수), 지원대상별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차이를 보이기도 함
- 이러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개선 필요성에 대응하여 그동안 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수정, 보완하여 왔으며, 사업운영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타 기관, 단체에 비해 많은 개선을 이루어왔음
 - 지역 현장의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크게 이관한 바 있으며,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지원 방식을 사후 지원으로 조정하고, 소규모 개인 지원대신 집중 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광역 및 기초지역에서의 지원과 중앙단위의 지원의 차별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특히, 지원환경이 과거 문화예술위원회 단일체계에서 오늘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 민간문화재단 등으로 다원화되면서 최근에는 수월성(excellence) 중심의 집중 지원 및 신진예술가단계부터 전문예술가에 이르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창작산실’ 형태의 지원방식을 도입하여 문화예술분야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개선과 관련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체계 내부적인 문제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문화예술분야 지원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상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곧, 문예진흥기금사업과 타 사업과의 유사성 문제만 하더라도, 타 기관과 사업성격 유사 문제 이외에도 문화부 국고사업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간 사업성격의 유사성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난다든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외에 정부 및 타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자체의 지원방식이나 내용, 성격 조정만으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성격을 차별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지원방향과 성격, 내용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 성격 및 내용의 유사성 문제는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측면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지원 목적과 방향, 지원 내용, 지원 체계, 성과 등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은 기금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음

1.1 지원 목적과 방향

- 문예진흥기금은 역사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중추적인 지원 재원으로 기능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역할은 1990년 문화부의 설립과 1997년 경기문화재단 설립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지역문화재단 증가, 2000년대 이후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인복지재단 등 다양한 공공지원기관들의 설립 등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었음
-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또한 지원사업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왔음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1970-80년대 문화인프라 구축과 창작분야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창작은 주로 민족문화,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제공
 - 1990년 문화부의 설립과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1990년대는 국민들의 문화향유

- 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기 시작
 - 2000년대 이후 향유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는, 사회 양극화 논의와 함께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 필요성으로 확대되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활동에 대한 지원이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된 재원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됨
 - 특히, 2000년대 이후는 지역문화재단의 증가로 지역차원의 문화예술진흥 활동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에 지역의 문화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된 문예진흥기금의 일부는 지역특성화사업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배분됨
-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창작과 향유를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의 사업 추진, 일부 세분화된 사업의 타 사업과의 유사성, 사업별, 장르별 지원 대상 및 방식의 다원적 특성 등으로 말미암아 지원의 초점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 이것은 총괄적인 차원에서 문예진흥기금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기금지원사업이 우리나라 문화예술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기금사업의 지원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목표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단순화 하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앙단위 예술창작 지원의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1.2 지원 내용과 방식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크게 창작분야에 대한 지원과 향유 부분에 대한 지원, 두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산 비중 또한 두 영역이 비슷하여 50:50의 비중으로 나타남

1.2.1 창작지원 분야

-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창작분야 지원사업은 사업 영역과 예술 장르에 따라 서로 다른 대상과 내용으로 지원되고 있음
-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개인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그 역할이 이관되었으며,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한 지원은 공간지원, 기관지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짐
 - 공연예술분야는 창작활동과 공간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고로부터 이관

된 사업이 많아 그 특성이 불분명한 모습이 나타남

- 문학분야의 경우, 장르의 특성상 작가 개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되, 기존과 같이 개인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1회성 지원이 아니라 단계에 따라 창작활동이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연계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짐

- 창작분야에 대한 지원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큰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문화예술분야 지원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순수예술에 대한 창작지원 기능은 여전히 문화예술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방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제외하면 예술가들의 순수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왔음
- 오늘날 창작활동은 예전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술가의 창작 지원 수요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활동 지원이 어떠한 내용과 방향을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가 보다 명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점차 예술가들의 수요는 창작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창작 결과물을 대중과 보다 용이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원, 순수예술 창작 활동과 과학, 기술 등 타 영역간 융합적 차원의 교류에 대한 수요, 예술과 시장의 만남에 대한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수요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비해 현재의 창작지원 방식은 이와 같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보다 과거와 같은 순수예술창작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처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주로 순수예술창작활동에 집중하는 것은,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 이외에도, 그동안 중앙단위의 공공지원기관들, 예를 들어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예술인복지재단과 같은 기관들이 새로 신설되면서 기능과 역할의 분담차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창작분야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예술가의 직접 창작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창작활동의 산물이 대중 및 시장과 잘 소통하도록 연계하는 부분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면, 현재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범위는 전통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2.2 향유지원 분야

- 향유 분야에 대한 지원은 주로 복권기금에서의 전입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금 지출에 따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은 복권기금 지원사업 전체 평가에서 지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들로 평가되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

-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볼 때,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이 상호 연계성을 보이지 않아, 창작과 향유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두 영역을 분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지역문화재단들이 실시하는 다수의 사업들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지원과 연계되어 있어, 향유지원분야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라는 특징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타 기관, 특히 지역문화재단 사업들과의 유사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를 가지고 있음

- 문화향유에 대한 지원이 통합문화이용권과 같은 중앙정부 단위의 정책 사업 성격을 띠는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중앙단위 조직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역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수요나 내용, 지원 대상 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지역단위의 공공서비스 지원주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문화예술위원회가 우리나라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에 핵심적인 기관이라면,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사업 또한 이러한 기관의 역할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 곧, 창작지원을 중추적인 기능으로 가진 문화예술위원회가 향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면, 이는 보다 창작과 향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며, 예술창작의 활성화 나아가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는 차원에서의 향유지원으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함

- 이런 맥락에서 예술의 미래 고객이 될 잠재 수요자를 발굴하는, 관객 개발을 목표로 한 측면에서의 향유활동 지원이라든지, 창작물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창작과 향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창작자와 향유자가 서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향유 지원활동은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과 비교하여서도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향유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처에서의 복지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나 지역 문화재단들에서의 향유지원 사업들과 유사, 중복 문제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킴으로써 통폐합이나 이관사업의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1.2.3 인력양성 분야

- 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는 인력양성분야 지원사업은 크게 차세대예술인력 육성사업과 무대예술전문인력 육성사업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⁶⁴⁾ 차세대예술인력 육성사업은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분야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진 인력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이전의 사업이 1회적 지원에 그쳤다면 차세대예술인력 육성사업은 성장 가능성에 따라 단계적, 연속적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지원사업 형태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임
- 무대예술전문인력 육성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가 과거부터 시행해오던 인력육성 분야의 대표적 사업으로 수많은 무대예술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이러한 성과와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인력양성 분야는 타 기관, 특히 중앙단위 타 기관과 유사, 중복 여지가 매우 크고, 인력양성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특징을 보임
 - 예를 들어, 사업의 유사, 중복문제를 피하고자,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의 인력양성은 주로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기획자를 대상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⁶⁵⁾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또한 양성인력의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력양성 기능을 매우 중요한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예술강사나 문화예술교육사와 같은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육성 기능 이외에도 문화분야 공무원 연수 등 타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기도 함

64) 이외에도 국고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다수의 사업들이 있으나 이 연구는 문예진흥기금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65) 이러한 경향은 2015년 5월 기관간 업무조정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인력양성 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는 결과로 나타났음

- 각 분야마다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해당 분야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려 관련 기관에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문화예술위원회가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경우 어떤 차원에서 이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보다 심층적으로 대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업은 종전부터 이어져온 무대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차세대예술인력 양성사업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차세대예술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지자체로 이관한 사업 중 많은 부분이 예술창작활동 지원에 활용되고 있고, 이와 별개로라도 지역문화재단 차원에서의 지원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유사, 중복 문제가 종종 지적되고 있음
 - 아직까지 차세대예술인력 육성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지역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의 의미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지역에서 예술가를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지역에서의 이 분야 지원 사업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력양성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인력양성 사업의 대표사업으로 특성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질적으로 예술인력은 주로 대학을 통해서 양성되고 공급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인력양성사업은 창작자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기능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의미와 방향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예술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인력양성은 단순히 창작자의 양성이나 이들에 대한 재교육, 계속교육, 직업전환 교육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의 가치 이해 교육이나, 예술의 성과를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 과학과 기술 등 예술을 타 분야와 융합시키는 사례 교육,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활동을 위한 교육 등 매우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될 수 있음
-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 지원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한 옹호(advocacy)와 관련한 이와 같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력양성 사업은 창작진흥 영역과 마찬가지로 창작자를 대

상으로 한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모습을 보임

1.3 추진 체계 및 성과

1.3.1. 사업 추진 체계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과거와 달리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음. 과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핵심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시기에는 공모 방식의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위원회가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중심을 이루었음. 2000년대 중반 이후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활동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지원은 광역단위의 지역주관처를 선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특성화 사업과 같이 지역으로의 기금 일부 이관을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체계가 추가로 도입됨
- 2014년 5월 현재, 13개의 광역문화재단과 46개의 기초문화재단이 운영됨으로써 일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있음
- 추진체계 문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곧, 문예진흥기금이 창작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수월성(excellence) 위주의 소수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금사업 추진체계는 기존의 공모 중심의 문화예술위원회 직접 지원체계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향유지원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확대할 경우, 현재와 같은 추진체계는 보다 공식화,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지원주체가 중앙이나 지역단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변화된 환경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자체 맥락보다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창작과 향유를 아우르는 차원에서의 발전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음. 곧, 창작 지원은 어느 단위(중앙, 광역, 기초)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향유 지원에 있어서 각 단위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단위간 협력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재정 지원은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구상함에 있어 핵심적인 만큼, 이러한 논의의 기반 위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1.3.2. 성과와 평가

- 현재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는 기금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을 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할 측면이 있음.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는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기금사업성으로 총평되게 되는데, 사업자체의 평가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해진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그것을 통하여 지원된 개인이나 기관, 단체 나아가 기금 사업 전체가 해당 분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기에는, 평가의 취지나 기준, 층위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이루어졌지만, 그 평가에 기반하여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해당분야의 발전을 가져왔는지를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를 보임. 이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성과, 나아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각 분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늠하기 어렵게 하는 환경을 초래함
- 따라서 현재와 같은 사업단위 평가보다 지원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통하여 지원사업이 수혜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평가로 평가의 내용과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개선 방안

2.1. 기금지원사업 위상 및 내용 조정

-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무엇보다 과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에서 유일한 재원으로 역할했던 시기의 관성과 관행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음. 현재의 환경은 중앙 및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지원주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문예진흥기금사업과의 협력 또는 이와는 별개의 재원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지원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에서 그 영역과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향유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 및 방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창작 분야에 있어서도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 유형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예술 창작 지원은 기초 단위에서 감당하기에는 역력이 부족하므로, 광역차원에서 지원토록 하되, 향유 지원의 경우는 기초 단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초 단위와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이관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도 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협력형 사업을 통하여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지역협력관제도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기적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음. 다만, 이러한 협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인원, 사업추진체계 등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 과정에서 광역 및 기초문화재단과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구분, 중앙단위 문화예술분야 지원 기관들의 기능 재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⁶⁶⁾

2.2. 위원회 역할과 기금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 현재 기금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위원회가 기금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예술분야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이를 기금사업에 대한 분석만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기준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는 예술발전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예술발전의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기관/공간에 대한 기금 직접 지원이외에도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기관의 활동, 운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예술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함. 현재 문화예술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을 배분해주는 것에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현재 예술계는 기금과 관련 없이도 생존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생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은 제도적인 것에서부터,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 활용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이 과거 창작자의 순수창작활동 지원이라는 전형적 틀에

66) 2015년 5월 문화예술분야 지원기관간 일부 기능 재조정이 이루어졌으나,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여 재정립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예술가 및 예술작품이 향유자 및 시장, 산업 등과 보다 용이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활동이나 창작자의 활동 범위를 예술 이외 타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활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함. 문예진흥기금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에도 비중있게 활용될 필요가 있음

2.3. 수월성 중심의 지원 강화

- 문예진흥기금사업이외에 지역단위의 지원사업이나 중앙단위의 타 지원사업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수월성을 중심으로 평가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에 있어서도 지원 규모나 방식이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원이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대규모, 중기 지원 중심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사업이외에도 국고 등으로부터 위탁된 다양한 수탁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따라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수월성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기금지원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맡게 되는 수탁사업 등을 통하여 특정 시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수행해나가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예술창작활동이 공공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지원 없이도 창작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맥락에도 불구하고, 지원 필요성이 있는 단기적, 일회적 성격의 지원은 지역문화재단이나 타 중앙단위 지원기관 사업들에 의해 지원되도록 하고,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수혜의 범위와 기회를 축소하되 수월성 기준에 의해 선정된 작품, 작가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향후 큰 성장에 이르게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사업 성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수월성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우리사회 문화예술의 다양성, 실험성, 예비인력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선별하여 지원하되, 역시 지원의 규모와 기간은 선정된 작품의 가치에 맞게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4. 기관 목적에 따른 사업의 유사성 평가

-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일부 사업에 대하여 유사, 중복의 측면이

지적되기도 함.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자체 사업을 확장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문제로 사업 자체의 유사, 중복성의 차원에서 검토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목적과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의 차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곧,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간 유사, 중복문제를 살펴보되,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나 유사, 중복성 여부에서 문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목적과 역할을 중심으로 활동 및 사업 영역을 재검토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유사 중복성 문제를 검토할 경우, 기존 사업 영역에서 창작지원 분야는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및 운영 목적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인력 양성 또한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인프라 구축이나 향유 지원과 같은 영역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국고나 타 기금의 목적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지원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면, 해외 사례와 같이 Regular Funded Organizations 등은 기금을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분야 지원기관으로서의 문화예술위원회 및 문예진흥기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2.5. 지원 일몰제 도입

○ 일부 분야의 경우, 기관,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특정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경우가 나타남. 이는 지원의 형평성, 공정성 및 지원의 효과 등 제반 차원에서 문제를 불러올 여지가 있음. 국가기관이 아니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공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한편으로 새로운 기관에 대한 지원 기회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단체로 하여금 공공지원에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는 운영될 수 없는 단체, 기관들도 대부분인 현실에서 공공지원 혜택 기간을 단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의 '예측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음. 곧, 수혜받는 기관, 단체가 언제까지는 최대 공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그 일정에 따라 자생적 운영을 도모해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함. 이런 점에서 기금사업 지원은 일정 기간 이상까지는 지원받을 수 없는 제도(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창작 진흥이나 새로운 수혜자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6. 기금사업 평가 방식의 전환

- 평가의 기본 목적은 지원받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있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업 자체가 잘 운영되었는지 여부보다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개인, 단체, 기관이 더욱 안정적인 역량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창작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평가는 해당 단체의 활성화에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었는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 이것이 창작지원의 본연의 목적일 수 있으나 현재 사업평가는 지원된 사업 자체가 원활히 실행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러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성과 지표 중 하나로 관람객 수와 같은 향유자 중심의 지표가 부각되어 창작자 중심의 지표는 반영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보임
- 사업에 대한 평가는 따라서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에 국한되기보다 지원받은 단체의 활성화에 지원된 사업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될 필요가 있음. 이렇게 되어야 안정적으로 공공지원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민간기관, 단체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그 운영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될 수 있음

참고문헌

[국내자료]

- 김진 (2014). 『문예진흥기금 사업 존치평가연구』, 문화경제연구, 17(1), 57-82.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 서울문화재단(2014). 『서울+문화+재단+10년』
- 서울문화재단(2015).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업무보고』
- 서울문화재단(2015). 『2015년도 사업 운영계획』
- 임학순, 정종은(2013). 『예술위원회 역할체계 비교분석: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 한국의 사례』
- 예술경영지원센터(2015). 『201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교류사업본부 사업안내』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4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미술감상교육 프로그램 추진계획』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4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제안요청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2014 사회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5). 『문예진흥원 32년사 1973-200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2). 『2013년도 지역협력형 사업 세부지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3).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201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설명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2014 문예진흥기금 실적보고서-공연예술창작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사업설명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실적보고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14). 『2014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

[해외자료]

- ACE(2010). 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London: Arts Council England.
- ACE(2012). 「Arts Council England announces Details of Its New Structure」
(201210.30일자 보도자료)
- ACE(2013). Great Art and Culture for Everyone:10-year Strategic Framework
2010-2020, London: Arts Council England.
- ACE(2014). Arts Council England Grant-in-Aid and Lottery Distribution Annual

- Report and Accounts 2013/14.
- ACA(2014a) A Culturally Ambitious Nation: Strategic Plan 2014–2019.
- ACA(2014b) Australia Council for the Arts Annual Report 2013–2014.
- ACE(2015a). What We Do (Explore Our Infographic).
<http://www.artscouncil.org.uk/what-we-do/mission/> (2015.07.15. 최종접근)
- ACE(2015b). Arts Council England Grant-in-Aid and Lottery Distribution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14/15.
- CCA(2007). Moving Forward Strategic plan 2008–2011: Values and Directions. (2007.10.01일자보도자료)
<http://www.canadacouncil.ca/council/about-the-council/moving-forward-strategic-plan-2008-2011> (2015.07.15 최종접근)
- CCA(2010a). Canada Council for the Arts releases Five Year Strategic Plan. (2010.10.20일자보도자료)
<http://www.canadacouncil.ca/en/council/news-room/news/2010/canada-council-for-the-arts-releases-five-year-strategic-plan> (2015.07.15. 최종접근)
- CCA(2010b). Strengthening Connections: Strategic Plan 2011–2016.
http://canadacouncil.ca/~media/files/corporate-planning%20-%20en/canadacouncil_strategic_plan2011_16_en.pdf?mw=1382 (2015.07.15. 최종접근)
- CCA(2014a). National Overview: Canada Council for the Arts Funding to Artists and Arts Organizations 2013–2014
- CCA(2014b). Canada Council for the Arts Annual Report 2013–2014.
<http://www.canadacouncil.ca/council/about-the-council/annual-reports/annual-report-2014> (2015.07.15. 최종접근)
- CCA(2015). Canada Council for the Arts Introduces New Funding Model. (2015.06.03.일자보도자료) <http://canadacouncil.ca/council/news-room/news/2015/new-funding-model> (2015.07.15. 최종접근)
- Owens, J. (2015). Budget 2015: The National Program for Excellence in the Arts Established. The Australian.
<http://www.theaustralian.com.au/national-affairs/budget-2015/budget-2015-national-programme-for-excellence-in-the-arts-established/story-fnfa2d0-1227352579891> (2015.07.15. 최종접근)

[웹사이트]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www.alio.go.kr)
-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사이트(www.gokams.or.kr)
-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사이트(http://www.gokams.or.kr/02_edu/expert.aspx)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http://www.artscouncil.org.uk/>
- 캐나다 예술위원회 <http://www.canadacouncil.ca/>

캐나다 예술위원회 법안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C-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www.kawf.kr)

호주 예술위원회 <http://www.australiacouncil.gov.au/about/>